

정책연구 2017-27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취·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Policy Issues to support young women's employment
and startup in Daejeon Area

류유선

연구책임

• 류유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정책연구 2017-27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취·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발행인 박재묵

발행일 2017년 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협성문화사 TEL 042-627-8893 FAX 042-627-899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 마련

■ 연구 방법

- 대전지역 거주 취업준비 청년여성 15명에 대한 심층면접, 대조군 청년 취업준비남성 1명, 창업준비 혹은 창업여성 6명, 창업남성 1명
 - 면담대상 : 총 23명
- 조사결과에 대한 청년여성당사자 자문회의 및 전문가 자문

■ 연구결과

- 대전지역 청년인구(통계청 기준 15~29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 6개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4번째로 많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고학력인구는 높아지고 있다.
-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0.5%로 청년남성 비율 44.0%보다 6.5%로 높다.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청년여성의 경우 20세에서 24세까지 56.1%, 25세에서 29세까지 80.1%를 차지하던 비율은 30대로 접어들면 50%대로 떨어진다. 2016년 대전 청년 여성의 실업률은 2015년보다 2.5%로 증가한 5.5%이며, 타 연령대와 비교해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높다. 한편 지난 4주간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실질실업률을 추정하면, 2016년 청년여성의 실질 실업률은 14.4%로 공식실업률과의 큰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 청년여성 비구직 첫 번째 이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인 반면 청년남성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비구직의 이유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47.7%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69.8%, 임시/일용근로자 27.2%로, 비임금근로자 3.0%로 상용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용근로자라도 1년 계약자가 74.7%를 나타내어 상용근로자 대부분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불안정고용 상태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여성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가 87%, 1년에서 2년 사이가 13%로 대전지역 청년여성 상용근로자 대부분이 2년 이내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현황은 비정규직 비율이 34.9%(전국 32.8%)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주거빈곤율(14㎡이하 거주)도 25.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청년여성들의 경우 부모의 계층과 지원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현재부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 시기의 차이가 청년 이후의 삶의 질 전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부모의 계층에 따른 차이로 인한 현재 상황의 차이에 대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넘어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여성들의 심리적 -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취업과정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한 상담과 함께 취업 이후에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과과정에 노동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평등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청년 여성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청년여성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이나 기타 지원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청년취업이라는 실질적 효과와 연계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청년여성들은 취업준비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근로시간, 급여, 복지 등에 대한 자세한 취업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여성들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취업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일단 취업부터’ 라는 사회적 시선이 한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취업 관련 사이트, 기관의 필요 :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이트 혹은 학교 내 경력개발센터 및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원자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 관한 장점과 단점, 급여,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고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취업 준비과정에서 청년여성들이 경험하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불안에 대해 상담해주고, 취업 후에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와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멘토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젠더화된 학교와 사회의 인식 및 정책의 시급성 : 여성들은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취업을 한 후에 출산, 육아 및 휴가 등을 통해 회사 내에서 많은 성차별과 승진의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 취업 수당 :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도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청년여성이 창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문제와 지원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파악되었다. 창업자금 지원, 세금문제, 창업과정의 절차와 지원에 대한 홍보와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육아서비스 확충 :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에게도 출산과 육아는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정책제언

- 취업 또는 창업 진로과정에서 청년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첫째, 노동시장의 성차별이 젠더감수성과 결합될 크게 인식된다는 점이고 둘째, 진로선택에 있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성평등하게 재구조화되어야 청년여성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된다.
- 지역대학 및 여성이라는 이중의 장애물에 대한 대전시 정책당국과 각 대학의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청년노동 권익지원을 위한 노동권 및 노무제도에 대한 교육,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을 포함한 취업교육(지자체 재원으로 실시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의무 커리큘럼으로 포함), 대전형 청년여성 창업 패키지 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을 위해 취업상담과 생활상담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취업을 포기했거나 준비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이 열악한 상태로, 이들을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1
2장 선행연구	17
1절. 불안정 노동과 빈곤	17
1.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17
2.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	18
3. 여성노동자	19
4. 청년여성 고용현황	22
2절. 청년여성노동	25
1. 청년의 다양성	25
2. 해외의 청년 일자리 제도 사례	29
3. 청년노동의 질	30
4. 청년여성의 사회경제적 독립 유보	31
5. 좋은 일자리	32
6. 청년실업과 우울	34
7. 창업	35
8. 청년취업 관련 신조어	36
3장 대전시 청년 일자리 정책 및 현황	41
1절. 추진 기반	41
1. 청년일자리 및 청년관련 지원조례	41
2. 정책 계획	45
3. 거버넌스	47

2절. 2016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결과	50
1. 2016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사업과 성과	50
3절. 2017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목표	53
1.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계획	53
4장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제 참여 현황	87
1절. 국내 청년 현황	87
1. 청년여성 고용동향	87
2. 대전 청년여성 현황	95
3. 대전 청년여성의 특성	126
5장 대전지역 청년여성 심층면접 결과	131
1절. 조사개요	131
2절. 조사결과	134
1. 취업준비 여성	135
2. 창업 중이거나 창업 준비 여성	171
3절. 시사점	185
6장 정책제언	191
1절. 청년여성 당사자 의견 수렴	191
1. 대전지역 취업준비 청년여성의 상황	191
2. 청년여성이 바라는 취업정책	192
2절. 전문가 자문	196
1. 대전지역 청년취업 관련 정책 제언	196
2. 대전지역 청년창업 관련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00

표 차례

[표 1-1] 대전소재 대학 졸업생 및 대전거주 현황	5
[표 1-2] 인터뷰 일정표	12
[표 2-1] 전문직 내 여성 집중 직업의 여성비율과 급여	21
[표 2-2] 전문직 내 남성 집중 직업의 남성비율과 급여	22
[표 2-3] 2008~2015년 학력별 여성 고용률	23
[표 2-4] 2008~2015년 학력별 남성 고용률	24
[표 2-5] 청년취업 관련 신조어	36
[표 3-1]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및 청년관련 지원조례 현황	42
[표 3-2]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기본조례 주요내용	43
[표 3-3]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개요	46
[표 3-4]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분야별 추진 과제	47
[표 3-5] 청년정책담당관실 조직별 담당 업무	48
[표 3-6] 2016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추진목표 및 추진성과	51
[표 3-7] 2016년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우수사례	52
[표 3-8]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분야별 시책 수	55
[표 3-9]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계획 예상소요액	56
[표 3-10]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수 창출 목표	57
[표 3-11]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 개요	59
[표 3-12]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사업 개요	62
[표 3-13]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사업 개요	64
[표 3-14] 공공부문 및 공사·공단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65
[표 3-15]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사업개요	70
[표 3-16]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사업개요	72
[표 4-1] 전국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87
[표 4-2] 전국 연령별*성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89
[표 4-3] 전국 남녀 실업률	89

[표 4-4] 전국 연령별*성별 청년 실업률	90
[표 4-5] 전국 남녀 고용률	91
[표 4-6] 전국 연령별*성별 청년 고용률	93
[표 4-7] 전국 남녀 비정규직 비율	93
[표 4-8] 전국 남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95
[표 4-9] 전국 청년인구 현황(15~29세)	96
[표 4-10] 2008~2017 대전 청년인구수 변화	97
[표 4-11] 대전 청년여성의 교육 수준 변화	98
[표 4-12] 대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100
[표 4-13] 대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01
[표 4-14] 대전 청년 실업률	102
[표 4-15] 대전 연령별 실업률	103
[표 4-16] 대전청년 구직 단념자 수 및 실질실업률	104
[표 4-17] 대전청년 구직단념자의 비구직 사유	105
[표 4-18] 대전 연령별 실질 실업률	106
[표 4-19] 대전 청년 고용률	107
[표 4-20] 대전 연령별 고용률	109
[표 4-21] 전국 청년 고용률	110
[표 4-22] 대전 청년 종사상지위의 변동	112
[표 4-23] 대전 청년 고용 계약 정함 여부	113
[표 4-24] 대전 청년 고용 계약 기간	114
[표 4-25] 대전 청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116
[표 4-26] 전국 청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117
[표 4-27] 대전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일자리 변동	118
[표 4-28] 대전 청년 취업자의 종사 산업의 순위별 일자리 변동(1~5순위)	120
[표 4-29] 대전 청년 취업자의 직종별 일자리 변동	121
[표 4-30] 대전 청년 취업자의 직종별 순위별 일자리 변동(1~3순위)	122
[표 4-31] 대전 청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122
[표 4-32] 대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124

[표 4-33] 대전 연령별*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인구	125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 개요	133
[표 5-2] 심층면접 성별 및 경제활동 현황	135
[표 5-3] 취업준비 심층면접자	135
[표 5-4] 심층면접 참여자	171

그림 차례

[그림 1-1] 청년(15~29)실업률 추이	4
[그림 3-1] 대전지역 청년 미래상	45
[그림 3-2] 청년정책담당관실 조직 구성	48
[그림 3-3]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비전과 목표	54
[그림 3-4]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분야별 시책 수	55
[그림 3-5]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계획 예상소요액	56
[그림 3-6]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수 창출 목표	58
[그림 3-7] 2017년 대전지역 청년 실업률,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목표 ·	59
[그림 3-8]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76
[그림 4-1] 전국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88
[그림 4-2] 전국 남녀 실업률	90
[그림 4-3] 전국 남녀 고용률	92
[그림 4-4] 전국 남녀 비정규직 비율	94
[그림 4-5] 전국 남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95
[그림 4-6] 2008~2017 대전 청년인구수 변화	97
[그림 4-7] 대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 변화	99
[그림 4-8] 대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100
[그림 4-9] 대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02
[그림 4-10] 대전 청년 실업률	103

[그림 4-11] 대전 연령별 실업률	104
[그림 4-12] 대전 청년 구직단념자의 비구직 사유	105
[그림 4-13] 대전 연령별 실질 실업률	106
[그림 4-14] 대전 청년 고용률	108
[그림 4-15] 대전 연령별 고용률	109
[그림 4-16] 전국 청년여성 고용률	111
[그림 4-17] 대전 청년 종사상지위의 변동	112
[그림 4-18] 대전 청년 고용 계약 정함 여부	113
[그림 4-19] 대전 청년 고용 계약 기간	115
[그림 4-20] 전국 청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118
[그림 4-21] 대전 청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123
[그림 4-22] 대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124
[그림 4-23] 대전 연령별*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인구	125

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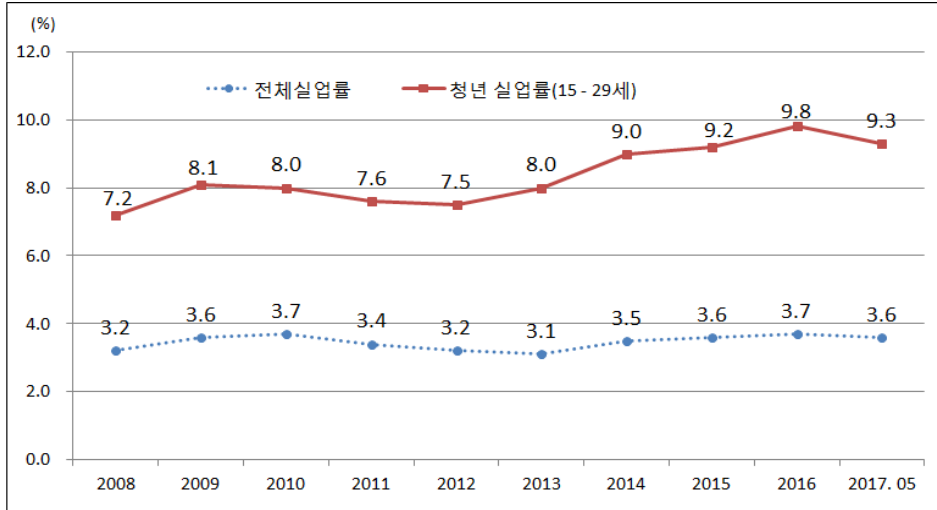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청년 취업과 실업이 긴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불안정한 노동조건도 함께 강화되었는데, 이 속에서 청년과 여성, 노인층의 일자리 문제가 도드라졌다. 이들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곤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졸업이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과거 청년세대의 생애경로 혹은 독립경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이었던 여성과 노인 외에 생산활동의 주요 주체인 청년들 또한 복지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태완·최준영, 2017; 김문길·이주미, 2017¹⁾).

매월, 매 분기 통계와 신문의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청년실업률에 우리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들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때문이다(한겨레신문, 2017년 5월 11일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명시하고 있는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희망과 자유의 이미지와 상징을 내포한다. 그러나 최근 청년은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과 희망, 나아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 이자, 취업에 대한 희망이 없어 무기력한 ‘달관세대’이며, 허드렛일이나 단순노동만 반복하는

1) 김태완·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통권 244호, 6-19; 김문길·이주미(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244호, 20-37.

저임금 인턴만을 반복하는 ‘호모인턴스’ 이거나, 나아가 실업과 신용불량 상태를 의미하는 ‘청년실신’ 등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정적 상징의 대명사까지 되고 있다. 즉 청년이라는 이미지와 상징체계와 모순되게 이들의 현실 생활에서 희망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1-1] 청년(15~29)실업률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17.06.27.

한국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대전지역도 마찬가지다. 타 광역시와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2013년 이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전 지역 청년인구의 급증은 안정적 일자리문제의 시급성을 표현한다. 2013년 전출과 전입하는 청년인구가 약 37,000명으로 균형을 맞췄다면, 2015년에는 대전지역으로 들어오는 청년인구보다 타 지역으로 나가는 대전 청년인구수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2016, 대전광역시²⁾). 실제로 대전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 등의 이유로 대전을 떠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전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대전거주율이 그 근거다.

2) 대전광역시(2016), 대전광역시 청년세대 분석

[표 1-1] 대전소재 대학 졸업생 및 대전거주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청년 졸업생	127,822	26,201	25,786	26,336	26,985	22,514
대전 거주 청년 졸업생	42,319	7,371	8,130	8,702	9,508	8,608
청년 졸업생 중 대전거주자 비율	33.1	28.1	31.5	33.0	35.2	38.2

자료: 대전광역시(2016), 대전소재 대학교 졸업생 유출입 현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66.9%가 직장고향으로 이동한다(대전광역시, 2016³⁾).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사회적 독립의 중요한 정체성인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그곳은 주로 수도권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인구가 수도권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인적자본 수준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노동시장 나아가 지역의 내생적 성장 역량도 떨어지게 된다. 고학력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공간적 재배치를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보육 및 교육여건 등 지역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강동우, 2016⁴; 김동수·장재홍·이두희, 2009⁵). 고학력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취업의 기회로 설명되고 있다. 출신대학과 대학의 위치에 따른 임금차이와 수도권에 밀집한 고용기회는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요인이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정민우·이나영, 2011⁶). 실제로 대전

3) 대전광역시(2016), 대전소재 대학교 졸업생 유출입 통계-5년간의 졸업생들의 대전거주 현황 등-

4)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고용정보원

5) 김동수·장재홍·이두희(2009),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 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지역에서 전출하는 청년인구 가운데 서울로 나가는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대전광역시, 2016⁷⁾).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의 이유는 직업과 교육으로 조사되는데(정민우·이나영, 2011⁸⁾),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에 따르면, 시·도간 이동의 이유로 직업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가족 28.2%, 주택 24.9%, 그 외 교육·환경·기타가 13.6%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경우 80세 미만 전 연령층에서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순이동률로 본다면,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대전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6⁹⁾).

정치, 경제, 문화와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권력구조가 서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에 위치한 대학, 그곳의 구성원보다 지역과 지역에 위치한 대학, 그리고 그곳의 구성원을 열등하게 인식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지역을 주변화, 타자화하는 서울중심주의가 정착된 한국사회에서 지역과 지역민들은 서울의 타자화 담론에 저항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에 대한 이주욕구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애과정에서 첫 번째 직업 정체성을 획득해야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에 대한 욕망과 지방에 있는 현실은 딜레마로 다가오기도 한다.

대학 및 대학생이 많은 대전지역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시급하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2016년을 [청년 대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대전·충남권 우수기업 채용 박람회’, 대학청년 공감 일자리 서포터즈, ‘Good-Job 행복드림 버스’, ‘청년 희망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년 인턴십’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실행해 왔고, 2017년에는 기획조정실 내에 청년정책담당관 신설했다.

6) 정민우·이나영(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5집 2호, 130-175.

7) 대전광역시(2016), 대전광역시 청년세대 분석-청년의 인구, 복지, 경제부문 분석-

8) 정민우·이나영(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5집 2호, 130-175.

9) 통계청(2016),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대전시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발표¹⁰⁾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대전지역 취업자는 전년대비 6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전국 유일 지역으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증가한 상태로, 간략히 말해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이다. 취업자의 특성으로는 여성, 30대에서 높은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0대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업은 개개인의 경제적 생활기반과 자존감을 침해하는 요소로, 실업의 증가는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독립의 지표로 작동되는 취업여부는 청년의 주요한 정체성이 된다. 따라서 실업상태의 청년들은 “분노, 좌절, 신체화 장애,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자립능력의 저하,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작용회피,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임선영·김태현, 2005:531¹¹⁾). 이러한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졸업-취업-결혼이라는 정상적이라고 인식되는 이행과정을 경험해야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과 상관관계가 높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호감이 낮아지는 것은 예측된 결과다. 최근 충청남도가 도내 청년 558명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 및 주거 비용 마련(21.9%)과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부담(21.3%), 즉 경제적 이유가 40%를 넘게 조사됐다. 즉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연합뉴스, 2017¹²⁾).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이 청년들의 사회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0) 한국고용정보원(2017),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16개 시도별 고용동향-, 2017/여름

11) 임선영·김태현(2005), 청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0권 1호, 51-73

12) 연합뉴스 2017년 7월 31일자, “문제는 돈... 청년 40%, 결혼 안 하는 이유 ‘경제적 부담’ 꼽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우울한 청년의 이미지 가운데, 양극화는 뚜렷하다. 부모의 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수저(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들, 네이버 국어사전)와 흙수저(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받고 있는 자녀들, 네이버 국어사전)가 일자리에서는 금턴(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어 있거나 전환율이 높은 인턴 자리)과 흙턴(허드렛일과 단순 노동만 반복하는 인턴 자리)으로 분류된다. 부모의 계급이 청년의 취업과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청년의 취업과 실업, 즉 일자리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이들을 ‘청년’이라는 단일범주로 대상화하는 것은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비가시화 하는 효과를 갖는다. 성별과 계급, 학력, 장애 등 다양한 요인들로 청년들은 분화되어 있다(류유선, 2017¹³). 특히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소위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청년들과 다른 정체감을 갖는다. 주형일(2010¹⁴)은 공식적으로 지방대, 비공식적으로 지잡대¹⁵)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서울중심주의와 성적지상주의,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임금이나 취업에 있어서 서울/수도권/지역이라는 출신 학교의 위치에 따라 청년들의 기회는 제한된다.

지역여성이 경험하는 현실은 더 복잡하다.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에 진출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여성은 낮은 취업률과 성별임금격차는 지속되고 있다(최나리, 2008¹⁶) : 최희선, 2017¹⁷).

13) 류유선(2017), “노동사회의 청년은 왜 단일한 범주로 인식되는가?”, 여행대전, 제25호
14) 주형일(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미디어, 젠더&문화, 제13호:77-183.
15) ‘지방의 잡다한 대학’을 일컫는 신조어로 지역의 대학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
16) 최나리(2008), 20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현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7)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산업연구원

지역여성은 비수도권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일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신조어로 ‘지역인’이 있다. 이 용어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여성”을 일컫는 말로, 취업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치평가를 받는 출신을 의미한다(박건·국미애, 2016¹⁸⁾).

청년일자리가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여성의 고용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고(강순희, 2014¹⁹) 특히 지역청년여성의 일자리 문제는 덜 주목을 받았다. 청년취업과 관련한 연구(김유빈·전주용, 2014)는 한국 청년 고용상황이 OECD 평균인 39.6%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층의 고용 하락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주장한다. 다른 연구는(이승렬, 2015)는 일자리 정책차원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독립의 문제로 보고,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다양한 맥락에서 청년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고용시장에 진입한 남성청년과 여성청년의 요구와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 자리는 ‘청년’을 단일 대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의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은 동일한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는 유사한 연령대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들 청년은 성별과 학벌, 학력, 계급과 장애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진 존재들이다. 예를 들어, 청년여성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있고, 대학을 졸업한 여성 가운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대학을 출신자로 나뉘

18) 박건·국미애(2016),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19) 강순희(2015),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The Women's Studies*, Vol.87.NO.2, 317-347

며,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여성 가운데 부모의 지원을 받아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한 이와 그렇지 못하여 대학기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이들로 나뉜다.

한편 여성일자리 연구와 담론은 여성일자리 연구와 담론은 경력단절여성 및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분야에 특화된 창업 및 취업 지원서비스’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주장하는 연구(이택면 외, 2015)와 조부모 육아지원을 영아로 집중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 등 정책을 주장하는 조부모의 육아지원을 정책화하는 연구(유희정·이슬·홍지수, 2015),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체인력활성화(문미경 외, 2015) 및 근로시간 유연성과 작업과정의 자율성 등을 제안하는 연구(이택면 외, 2015)도 있다. 복지국가 사회정책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을 살핀 장지연 외(2014)는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이유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취약으로 분석하고, 고학력여성들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재구성을 주장함으로써 젠더적 관점을 담고 있다.

이처럼 청년취업연구가 남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고, 여성취업연구는 주로 경력단절여성과 일가족양립문제로 집중되면서, 청년여성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청년여성의 첫 일자리 경험을 담은 연구(박진·국미애, 2016)는 주목할 만하다.

대전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청년여성의 현실을 고려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필요하다. 현재 대전광역시도 청년취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준비·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적 차원의 구체적 사례연구를 진행 경험은 없고 특히 청년여성의 욕구와 필요에 집중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취·창업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고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취·창업시장의 현실과 취·창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의 경험과 의견을 취·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전시 청년/청년여성정책을 분석했다.

둘째, 대전시 청년/청년여성의 인구통계 및 취업현황을 분석했다.

셋째, 대전시 거주하는 청년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질적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구체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객관적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면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여성들의 취업 및 고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용도로 실시하고 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것도 조사의 경제성이나 객관성에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여성 21명과 남성 2명으로 총 23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이 15명, 창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여성이 5명, 그리고 1명은 창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다. 여성의 대조군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남성1명은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을 준비중이며, 다른 남성은 현재 창업 3년차이다. 연구는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표 1-2] 인터뷰 일정표

번호	인터뷰이	날짜	장소
1	창업 중, 남성	4월26일, 18시	중구
2	취업준비1, 여성	5월18일, 15시	대전세종연구원
3	취업준비2, 여성	5월18일, 18시	대전세종연구원
4	취업준비3, 여성	5월19일, 09시	대전세종연구원
5	취업준비4, 여성	5월19일, 14시	대전세종연구원
6	취업준비5, 여성	5월22일, 15시	대전세종연구원
7	취업준비6, 여성	5월22일, 18시	대전세종연구원
8	취업준비7, 여성	5월23일, 10시	대전세종연구원
9	취업준비8, 여성	5월24일, 15시	대전세종연구원
10	취업준비9, 여성	5월29일, 18시30분	대전세종연구원
11	창업준비1, 여성	5월30일, 15시	유성구
12	창업중 2, 여성	5월31일, 14시	동구
13	취업준비10, 여성	6월5일, 15시	대전세종연구원
14	취업준비11, 여성	6월5일, 10시	대전세종연구원
15	취업준비12, 여성	6월7일, 15시	대전세종연구원
16	취업준비13, 여성	6월8일, 10시	대전세종연구원
17	창업중 3, 여성	6월16일, 12시	중구
18	창업중 & 취업준비4, 여성	6월16일, 18시	대전세종연구원
19	창업중 5, 여성	6월30일, 10시	유성구
20	창업준비 6, 여성	7월3일, 14시	유성구
21	취업준비14, 여성	7월 11일, 10시	대전세종연구원
22	취업준비15, 여성	7월13일, 15시	대전세종연구원
23	취업준비1, 남성	7월 19일, 18시	대전세종연구원

넷째, 청년여성취업 관련 당사자 자문회의를 열었다. 청년여성의 심층면접 결과에 대해 청년여성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했다. 심층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의 청년여성(대전지역에 있는 4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취업준비중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 취업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해 냈다. 연구자가 청년들의 의견과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점검이었다.

다섯째, 청년여성취창업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청년활동가 당사자 1명과 청년여성노동 연구자 3명의 자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참고했다.

여섯째, 대전지역 청년여성 취업 및 창업활동을 젠더적 관점으로 보기 위해 취업준비 중인 청년 남성과 창업 중인 청년남성을 대조군으로 인터뷰했다. 그러나 두 남성의 인터뷰만으로 여성취업준비생과 창업자와의 비교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 최종적으로 연구결과에서는 제외했다.

2장 선행연구

- 1절. 불안정 노동과 빈곤
- 2절. 청년여성노동

2장 선행연구

1절. 불안정 노동과 빈곤

1.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 1960,70년대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들로 충원되었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과정에서 남성의 일자리로 여겨지던 부분에 여성이 흡수되는 노동의 여성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신광영·이병훈 외, 2008).
- 세계시장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제조업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임금의 서비스노동자로 여성이 대거 진입하게 되었다(Sassen, 1998). 고등교육참여가 높아졌지만,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여성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 고용되었다.
-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의 여성화(Feminization of labour)는 노동규제가 적고 여성을 보조노동자로 보는 가부장적 노동시장의 협력 속에서 급격히 진행되었다. 남성부양자/여성전업주부라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주를 이루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장지연 외, 2014).
-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는 주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임과 파견노동 분야에 집중되었고, 여성들의 빈곤화와 무권력화가 확대되고 있다(장미경, 2005).
- 여성주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자본, 국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사회적 약자집단 특히 여성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해

왔다(커스터스, 피터, 2015).

-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젠더화된 사회에서 노동의 여성화는 성별분업의 확대재생산 혹은 강화로 볼 수 있고(김현미·손승영, 2003),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고용 조건을 강요받는 여성의 프롤레타리아화, 여성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김현미·손승영, 2003).
- 2014년 시장소득 기준 여성가구주의 절대빈곤율은 17.3%다. 여기에 여성 1인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65세 이상 여성 노인빈곤율을 합하면 여성 빈곤율을 더 높아질 수 있다(정은희·이주미, 2015).

2.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세계 전역에서 노동은 더 불안정하게 변화했는데, 고용과 관련하여 칼레버그(Kalleberg, 2009)는 일반적으로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불예측적이며, 위험한’ 것으로 규정한다.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불안정노동은 노동의 본질, 노동장소, 노동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비노동과 관련된 교육과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인 것들, 가족과 커뮤니티 등의 사회적 것과 정치적인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개인 및 개인이 맺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성격도 영향을 받게 된다.
- 특히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복지정책이 근로복지프로그램으로 대체되면서 모든 개인들이 임금노동, 특히 저임금 노동에 참여하도록 정치정책이 변하게 되면서 일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따라서 “우리 모두 다같이we’ re all in this together”라는 슬로건은 “너 스스로해라 you’ re on your own”으로 대체되었다(Kalleberg, 2009:3).

- 고용과 실업이 모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한 것이라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개인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 김태완(2007: 56)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불안정노동으로 파악한다. “대학졸업까지 했는데 낮은 연봉에,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사회적 대우도 지극히 낮은 일자리” 으로 묘사되는 불안정노동은 청년의 빈곤화로 이어진다. 결국 실업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존재 기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 브르디외(1998)는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을 ‘21세기의 사회문제의 뿌리 *the root of problematic social issu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로 보았고, 올리히 벡(2000)은 “위험사회 *risk society*” 의 시작이자 “새로운 정치경제의 불안 *new political economy of insecurity*” 으로 묘사하고 있다(Kalleberg, 2009²⁰).
- 이와 같은 변화는 시장과 시장중심의 해결, 민영화와 정부보호의 제거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확산된 노동유연성은 노동자가 생활세계를 유연하게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이 장기적 삶을 계획할 수 없게 만든다. 비정규노동, 불안정노동의 증가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리처드 세넷, 2002), 사회적 독립을 유예하고 있다(박건, 2016).

3. 여성노동자

- 여성의 고학력화는 남성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실제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8년 여성 83.5%로 남성 82.0%를 추월한 이래로 그 격차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최희선, 2017; 정성미, 2015).

20) Arne L. Kalleberg(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4.1-22.

- 기술진보와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성별임금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돌봄노동 및 서비스노동의 여성집중도 계속되어 성별직종분리현상은 강화되고 있다(최희선, 2017²¹⁾).
- 2008년 금융위기 전 후의 여성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정성미(2015)는 금융위기 이후, 여성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었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여성고용이 감소하고 대신에 사회 및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 분야에서 여성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사회 및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 분야의 직업은 “간호사, 보건의료관련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등 보건·사회복지 전문가와 유치원 교사 등의 교육 전문가, 의료복지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 서비스 종사자, 가사육아도우미 등 노무직 등이 포함”되며, 넓은 의미의 돌봄경제 노동자로 볼 수 있다(최희선, 2017:21,22).
- 한편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경제참여의 증대는 육아와 간병, 노인요양 등 ‘돌봄의 공백’을 야기하며 여성일자리의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돌봄경제의 확대는 여성일자리 증가로 인한 여성고용률을 확대하지만, 돌봄노동의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여성의 불안정노동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즉 돌봄경제의 확대는 젠더화된 노동시장을 강화하고 성별분업을 재생산하며 계급불평등을 확대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최희선, 2017).
- 특히, 최희선(2017)은 여성 노동이 집중된 돌봄경제 영역의 전문직 급여가 낮은 편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5년 월급여를 들여다보면, 여성이 집중 고용된 전문직의 급여가 1백만 원 중반에서 2백만 원 중반에 머무른 반면, 남성이 집중 고용된 전문직의 급여는 4백만 원 초반에서 6백만 원 중반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의 임금은

21)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산업연구원; 정성미(2015), 금융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통권 제122호, 35-51.

여성 집중 전문직에서는 최대 61만원, 남성 집중 전문직에서는 최대 2백만 원에서 최소 74만원이 상승했다. 여성 집중 전문직의 최대 인상액이 남성 집중 전문직 최소 인상액에 미치지 못한다.

[표 2-1] 전문직 내 여성 집중 직업의 여성비율과 급여

(단위 : %,만원)

직업명	2015		2008	
	여성비율	월임금	여성비율	월임금
영양사	99.9	214	98.1	178
유치원교사	98.2	192	97.9	135
간호사	96.0	261	98.9	200
사회복지관련종사자	87.8	159	84.1	124
보건의료관련종사자	86.7	160	87.2	129
큐레이터/사서	80.9	192		168

자료: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39쪽 <표3-5>전문직 내 여성집중 직업 재구성

[표 2-2] 전문직 내 남성 집중 직업의 남성비율과 급여

(단위 : %,만원)

직업명	2015		2008	
	남성비율	월임금	남성비율	월임금
항공기선박기관사/관제사	100.0	510	100.0	488
금속/재료공학 기술자/시험원	99.3	434	97.5	298
컴퓨터HW통신공학전문가	94.7	413	92.6	339
금융보험전문가	83.6	524	84.5	453
인사경영전문가	82.7	488	86.6	389
법률전문가	73.7	687	90.7	486
의료진료전문가	76.1	661	83.7	535

자료: 최희선(2017), 최근의 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40쪽 <표3-6>전문직 내 남성집중 직업 재구성

- 2015년 법률전문가와 의료진료전문가에서 남성비율이 상당히 감소했다. 이것은 고임금 전문직에 여성의 진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문직 분야에서 여성 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청년여성 고용현황

- 최희선(2017)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5년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53.8%에서 56.3%로 2.5%가 상승했고,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여성의 전체고용률도 60.3%에서 63.9%로 상승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졸업과 대학졸업 이상이다.

[표 2-3] 2008~2015년 학력별 여성 고용률

여성		전연령층(15-64세)			청년층(25-34세)		
		전체 인구	취업 인구	고용률	전체 인구	취업 인구	고용률
2015	대졸이상	25.8	29.6	64.6	50.4	54.5	69.1
	(대학원졸)	3.0	3.8	71.4	5	5.8	74.1
	전문대졸	17.9	17.3	54.5	26	26.2	64.4
	고졸이하	56.2	53.1	53.2	23.6	19.3	52.3
	전체	100.0	100.0	56.3	100.0	100.0	63.9
2008	대졸이상	19.4	22.4	62.1	37.9	42.9	68.3
	(대학원졸)	1.8	2.4	71.8	3.2	3.8	71.7
	전문대졸	15.9	14.7	49.8	26.8	28	63.0
	고졸이하	64.7	62.9	52.3	35.3	29.1	49.7
	전체	100.0	100.0	53.8	100.0	100.0	60.3

자료: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14쪽 <표2-1>학력별 인구 및 근로자 구성비 인용

- 남성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5년 전체고용률은 1.4%증가한 76.0%이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5.6%가 상승했다. 청년남성 가운데는 전문대졸업의 고용률이 10%이상으로 가장 높게, 다음이 대졸이상이 3.6%로 상승했다. 대학원졸업 이상에서는 오히려 1.4%가 하락했다.

[표 2-4] 2008~2015년 학력별 남성 고용률

남성		전연령층(15-64세)			청년층(25-34세)		
		전체 인구	취업 인구	고용률	전체 인구	취업 인구	고용률
2015	대졸이상	31.4	36.9	89.4	46.1	47.5	83.3
	(대학원졸)	4.7	5.7	92.2	3.9	4.2	87.1
	전문대졸	19.0	16.8	67.2	29.5	27.1	74.3
	고졸이하	49.6	46.4	71.1	24.4	25.5	84.5
	전체	100.0	100.0	76	100.0	100.0	80.8
2008	대졸이상	27.2	32.3	88.6	37.4	39.6	79.7
	(대학원졸)	4.0	5.0	93.3	3.4	4	88.5
	전문대졸	17.3	14.0	60.4	30.8	26.3	64.2
	고졸이하	55.5	53.7	72.2	31.8	34.1	80.7
	전체	100.0	100.0	74.6	100.0	100.0	75.2

자료: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14쪽 <표2-1>학력별 인구 및 근로자 구성비 인용

- 2008년 청년남성 고용률이 75.2%인 반면에 여성은 60.2%로 15%가 낮았다. 2015년에 청년남성은 80.8%가 청년여성은 63.9%가 고용되어 청년층의 남녀 고용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 연령층의 고용률에서 성별 격차가 20% 가량, 이것은 청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특히, 학력별 남녀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학졸업, 대학교졸업이상 모든 학력에서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2008년에 비해 2015년 더 벌어졌다. 특히 전문대학졸업에서는 2008년 성별고용률격차가 1.2%에서 9.9%로 증가해 약 9배의 틈이 벌어진 셈이다. 다만 대학교졸업이상 가운데 대학원졸업자의 성별고용률격차가 16.8%에서 13%로 감소했다.

2절. 청년여성노동

1. 청년의 다양성

- 최근 우리사회의 청년담론은 우울하다. 빈곤과 좌절의 기표들이 청년 정체성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젊음과 새로움, 혹은 이해할 수 없음으로 언어화되던 90년대의 엑스세대(X세대)가 문화적 아이콘이었다면, 2000년대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넘어 5포(삼포+집, 경력), 7포(오포+희망, 인간관계), N포 세대(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절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청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년(靑年)은 1)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2) 성년 남자. 로 정의 된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정 연령에 달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은 이들은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리고 성년 여성은 어떠한가? 사전적으로 청년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성을 의미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의하는 청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 서울시의 경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청년범주를 같이 한다. 반면에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이라 부른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은 단순히 나이로 범주화됨으로써 객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써 ‘청년’은 젊은 남성을 의미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은 젊은 남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마치 젊은 남성의 취업과 실업문제에 대한 법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청년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청년²²⁾범주의 청년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인가? 라는 질문이다.
-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이라는 모호한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특히 대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취업담론은 이외의 청년범주의 소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학력인플레이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하향취업이 이뤄지는 한국고용시장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고졸이하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의 TRACE(Access Route to Employment)프로그램이나 영국의 뉴딜프로그램(New Deal for Young People) 등처럼 고졸청년의 고용과 실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주의와 지역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하다 (박권일, 2004²³⁾).
- 김성희(2007²⁴⁾)는 학력별 실업률 분석에서 전문대졸업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이 높다고 본다. 이런 실

22) 허병식(2015)은 청년개념이 특정시기에 출현한 근대적 관념으로 특수한 계급과 문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기훈(2015)은 청년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비어있다고 본다. 이 빈 공간은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의 역할에 맞게 채워져 왔기에 오히려 청년의 이미지라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제연(2015)은 이기훈의 청년연구에 나타난 청년을 백색과 청색으로 분류하는데, 백색은 무지/미완성과 순수의 개념으로, 청색은 지도자/선각자와 일꾼으로 나뉜다.

23) 박권일(2004), 그 많던 ‘고졸’은 어디로 갔을까?, 통권222호, 56-61.

24) 김성희(2007), 청년실업 바로 알기와 3가지 해결방안, 진보평론, 제33호, 10-36.

업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기업이 청년에게 내어주는 일자리와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 수준의 불일치에 머물러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직업불일치를 발견했다면 왜 이것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신자유주의 유연노동 속에서 확산되는 직업불일치에 대해 김성희(2007)는 청년실업에 대한 3가지 대안을 주장한다. 첫째 청년실업 의무고용제를 100인 이상 기업에 5%적용, 둘째 사회연대형 고용창출형 노동시간단축방안, 셋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전환이다.

- 임유진과 정영순(2015)은 대학교졸업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이행이 더 어렵다고 본다. 이들은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기개발이 덜 된 것으로 평가되어 불안정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구조화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서도 남성과 여성의 이행경로는 다름을 주장한다. 남성에게는 군복무가, 여성에게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해 좋은 일자리로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다른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프랑스에서는 이런 저학력 및 저숙련 청년들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고용률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제도에서 이탈을 막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년고용을 명분으로 고용 유연화와 인건비절감을 위한 노동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그러나 청년고용을 위한다는 노동유연화 대책이 70,80년대에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유연화 개혁들이 청년들의 고용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안 에두(Eydoux, Anne)는 “유연화 개혁은 청년 세대들을 실업으로부터 구제해 주기는커녕, 청년들의 고용을 별도의 잔여범주로 만들었으며 불안정성만 가중화시키고 말았다” 고 지적하며, “노동시간의 단축과 교육, 연구, 노령화 또는 에너지 이행을 비롯한 현재의 사회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확대(박제성, 2016:32,

재인용²⁵⁾)”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청년고용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공격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와 환경 등 현재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활성화를 환경 및 에너지 이행과 관련하여 고안된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신규분야들과 접목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 분야들에 저숙련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유보’”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특히 청년창업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완전고용에 근접한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자영업의 상당부분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스스로 ‘작업 사업체’를 창업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제성, 2016;34, 재인용)” 즉 창업은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지 정부의 주도로 창업이 권장되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근근이 생계를 이어갈지언정 자신의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된 일로 승화시켜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업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열망이 자기 스스로의 발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이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발견되는 기능장애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비관적으로 만든다(Ferrand, Denis, 박제성, 2016, 재인용, 34)”

25) 박제성(2016), 청년고용을 위한 프랑스의 논의들,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 27-36

2. 해외의 청년 일자리 제도 사례

○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²⁶⁾

프랑스가 시행한 청년보장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10개 구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9월까지 총 61개 구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확대 시작되었다. 고용상태, 직업훈련 과정 및 학교교육 과정에 속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소득이 월 524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 있는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상 청년들을 고용 혹은 직업훈련 과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 면담, 직업과 관련된 단체 아틀리에, 일자리나 실습 및 수련 제안에 대한 의무적 이행조건으로 1년 동안 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을 맺은 형태이다.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교통비, 주거비, 전화비 등)과 미래의 진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별 수당으로 461.26유로가 지급되고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중간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청년보장제도에 해당되어 관리 및 지원을 받는 청년 2명 가운데 1명이 1년 후에 취업상태이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도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 10개 시범사업 구역의 결과로 8,400명의 청년층이 계약을 맺었고 2017년까지 10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민애, 2016;78).

○ 미국에서도 대학졸업자들이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교육시스템과 산업계 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체계를 정교화하는 교육생태계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분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대안터널을 제공에 대한 논

26) 오민애(2016), 프랑스의 청년실업과 청년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2월호, 72-82. 요약 정리

의가 진전되고 있다. 갭이어(gap year)를 갖는 고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으로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다. 이 기간에는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갭이어제도는 영미권에서는 중등교육을 끝내고 고등교육을 받을 예정인 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bridgeEdU 프로그램: 성공적인 대학교육을 위해 개인에게 제공되는 최적화된 1학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핵심 학점관리, 인턴사원, 진로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Northeastern university와 Drexel university 등이 재학생들이 학업과 현장실습 경험을 병행하도록하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유급노동을 경험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2016²⁷⁾).

3. 청년노동의 질

- 김복순(2015)²⁸⁾은 청년노동의 특징을 일자리탐색과 서비스업의 청년화로 보고 있다. 즉 고용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남아 끊임없이 일자리를 탐색하고 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며, 청년층의 상용직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업과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의 8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인서비스²⁹⁾ 직종의 증가세를 2010년부터 지속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보인 2014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복순(2015)은 청년층 신규채용 규모가 국제금융위기와 비교해 더 축소되었으며,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27) 한국금융연구원(2016), 25권 24호, 18-19, 미국의 청년실업 완화방향

28) 김복순(2015), 청년층 노동력과 일자리 변화, 노동리뷰, 통권 제127호, 69-85.

29) 여기서 대인서비스직종은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신체적 업무 특성을 가지는 직종으로 타인을 돌보거나 지원하는 직업군들로 구성된다.(김복순, 2015:72)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청년층의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승렬(2016)³⁰)도 김복순과 유사하게 최근 청년일자리의 특징을 서비스업의 증가와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분석한다. 이는 불안정노동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낮은 질의 고용시장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취업 및 생애전략도 바뀌게 된다. 청년들은 독립의 시기를 늦추며 학교와 부모의 영역에서 시험준비와 스펙 쌓기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김현미(2015³¹)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 등 외연화된 능력을 요구받는 청년여성들이 직면한 고비용 취업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취업구조에서 청년여성들은 자기착취를 내면화함으로써 노동과 삶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생명프로레타리아화(bioproletariat)되는 과정에서 있다고 주장한다.

4. 청년여성의 사회경제적 독립 유보

- 불안정노동시장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청년여성들은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재생산구조에 편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다(김복순, 2015; 이승렬, 2016). 취업과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라는 말은 개인들의 생애속도와 기획이 달라지면서 생애과정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특정시기에 무엇을 해야한다라는 사회적 통념과 통과의례가 개인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30) 이승렬(2016), 2016년 청년 고용의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월호, 41-46

31) 김현미(2015), 청년 여성의 일과 이동의 좌충우돌 생애사: 해법의 모색, 정책토론회 청년노동, 말하는 대로-20'30대 여성들의 일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2015년 10월 29일)

- 박건과 국미애(2016)³²⁾는 청년고용과 여성고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청년여성일자리를 문제를 봐야할 것을 주장한다. 일자리의 질과 양에 있어서 청년남성에 비해 청년여성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청년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취업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청년여성은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이어진다는 두려움으로 좋은 첫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취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강순희(2014)³³⁾는 노동시장 이행 초기부터 여성의 진입시기가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여성의 관점을 고려한 진로 및 취업지도와 교육프로그램이 재편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이러한 청년여성들의 노동경험을 분석한 김영과 황정미(2013)³⁴⁾는 생애과정에서 정규교육->안정적 취업->결혼과 출산이라는 ‘표준적 성인기로의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나쁜 일자리 취업현실과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역거주 청년들의 취업가능성의 낮음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좋은 일자리

-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한지 오래되었지만, 성별임금격차 지속,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특정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는 등 여성들의 일자리와 고용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장지연 외, 2014³⁵⁾). 일자리의 질은

32) 박건·국미애(2016),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서울여성가족재단

33) 강순희(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Vol.87 No.2.317-347.

34) 김영·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권 1호, 215-260.

35) 장지연·신동균·박선영(2014),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과 관련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여성들이 공무원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일자리는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말해준다(이병희, 2011³⁶).

- 좋은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있고, 보상수준이 높은 일자리”로 정의 되는데, “고용안정성은 미래 고용의 지속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고 “보상수준이 높은 일자리는 빈곤선 200%이상 또는 평균 소득의 100% 또는 60%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임유진 · 정영순, 2015:206).
- 이런 상황에 은수미(2009)³⁷)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을 5개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정규직 일자리이고, 이 일자리는 출산과 육아 등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의 임금은 최소 중위임금의 2/3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준수되는 일과 삶이 유지가능해야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자기실현이 가능하나 일자리이다.
- 유럽연합(EU)은 임금(중위값의 75%)과 직무특성(고용안정성, 직업훈련 및 진로전망)을 바탕으로 일자리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job of good quality)는 적정임금과 직무특성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고, 적당한 일자리(job of reasonable quality)는 적정임금과 직무특성 중 한 가지를 제공하는 곳,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low-pay/productive job)은 적정임금 이하, 직무특성 중 한 가지 이상 제공하는 곳, 장래성이 없는 일자리(dead-end job)은 임금과는 상관없이 직무특성 제공 안되는 곳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안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비중은 감소하는데 반해, 여성은 좋은 일자리와 안좋은 일자리 양쪽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녀 간의

36) 이병희(2011), 청년고용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71-94.

37) 은수미(2009), 보고, 듣고, 말하라-새로운 여성 일자리 모델,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여성 일자리 대한 모색, 토론회자료집, 이수정(2010),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페미니즘 연구 제10권제1호, 335-349, 재인용

비중격차도 증가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 한편 임유진과 정영순(2015)은 남성의 경우 개인적 성격과 직업훈련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여성의 경우 직업체험과 결혼, 전일제 일 경험이 주요하게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성별에 따라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시점을 달리하여 전략을 실행해야한다는 점이다.

6. 청년실업과 우울

- 임선영과 김태현(2005)³⁸⁾은 독립된 직업과 고용상태가 성인 정체성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실업상태의 청년은 좌절감에 빠지고, 실업이 장기적 현상이 될 경우 저소득계층의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본다. 또 실업은 분노와 좌절, 불안과 적대감 등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키우고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정세정(2016)³⁹⁾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인 청년층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정규직에 비해 나쁘고, 우울과 불안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한다.
- 최미숙(2010)⁴⁰⁾은 생애발달주기의 단계에서 중요한 전환과정의 청년들이 실직이나 연속되는 취업실패로 인해 자기 삶의 통제성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자살상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38) 임선영·김태현(2005), 청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1호, 51-73.

39) 정세정(2016),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관적 건강과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1, 197-224.

40) 최미숙(2010), 청년실업여성의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7. 창업

- 일반적으로 창업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분석되고 있다. 매년 기업가에 대해 국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세계기업가모니터(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는 창업의 동기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 GEM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들의 97%가 기회(opportunity)와 필요(necessity)라는 두 요인에 의해 창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창업자의 65%가 사업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35%는 다른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없거나 혹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창업에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In the GEM framework, individuals participate in entrepreneurial activities for two main reasons: they start a new business to exploit a perceived business opportunity, They are pushed into entrepreneurship because all other options for work are either absent or unsatisfactory.(GEM, 2004:18)”.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두 배 가량 높고, 이런 차이는 대부분 나라 모든 연령대에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창업가가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지만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프랑스와 그리스, 홍콩, 스페인에서 기업가활동에서 큰 젠더차이가 나타나는데, 에과도르, 핀란드, 헝가리, 일본, 페루, 사우스 아프리카,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참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맥락 때문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첫째, 저임금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기업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핀란드와 미국과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 남녀차이가 적은 이유는 targeted programs의 결과, 문화적 변화와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기업가교육에 대한 강조로 보여지며, 또한 이런 나라들의 샘플수가 적은 이유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GEM,2004:27-2841).

41) GEM(2004), 2004 Global Report

- GEM의 2005년 보고서⁴²⁾는 창업에서 젠더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별 젠더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중간임금나라보다 고임금국가에서 창업에서 젠더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노동시장에 참여가 어려운 여성들이 중간임금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창업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한국가에서 큰 회사와 공공고용이 건강보험과 일하는 엄마를 위한 상당한 지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에서도 창업을 하게 되는 계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맥락을 갖는다. 남성이 여러 대안 가운데 기회와 가능성을 배경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 직업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안들이 불만족스러울 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정섭외, 2016).

8. 청년취업 관련 신조어

[표 2-5] 청년취업 관련 신조어

신조어	의미
자소설	자기소개서와 소설의 합성어로 실제로 없던 일을 꾸며 쓰는 자기소개서를 가리킴
문송합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인문계 졸업생들이 특히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함
금턴	‘금(金)턴’이라는 금처럼 소중한 인턴이라는 의미 정규직 전환이 약속돼 있거나 전환율이 높은 인턴 자리
흙턴	인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양질의 인턴자리를 뜻하는 ‘금턴’과 반대되는 말로 허드렛일이나 단순 노동만 반복하는 것

42) GEM(2005), 2005 Global Report

신조어	의미
귀족인턴, 리베이트형 인턴	백그라운드가 있는 부모, 지인등을 통해 손쉽게 인턴자리를 얻은 이들
취준내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새내기를 일컫는 말
호모인턴스	취업시장 신조어로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이르는 말 (사람 속(屬)을 뜻하는 ‘호모(homo)’와 ‘인턴(intern)’의 합성어)
공시오패스	수년에 걸쳐 고시를 준비하며 성격이 예민해진 것을 어두운 언어로 빗댄 표현(공시생 + 소시오패스의 합성어)
달관세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희망도 의요곤 없이 무기력해진 청년세대
재포자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
청년실신	‘청년’에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앞 글자를 합성해 만든 조어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 대출을 받았으나 취업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를 비유한 용어
사망년	취업대비로 힘든 대학교 3학년생
이케아세대	교육 수준과 스펙은 뛰어나지만 고용이 불안정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20·30대를 빗댄 표현. 스웨덴 가구 회사인 이케아의 제품은 값에 비해 그럭저럭 쓸만해 단기간에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케아 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을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으로 낮은 임금을 주면서 단기간 채용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 1000유로 세대와 함께 주로 서유럽권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이다.
취업깡패	다른 과보다 취업이 잘되는 과
문송합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취업이 힘든 인문계 졸업생들의 현실을 반영함

신조어	의미
취시오패스	(취업+소시오패스) 다른 지원자들 글에 악성댓글을 달아 취업 준비를 방해하거나 잘못된 취업 관련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 혹은 과도한 잘난체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줌
헬조선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 지옥같은 한국 사회
올로(YOLO)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올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충동구매와 구별된다. 예컨대 모아둔 목돈으로 전셋집을 얻는 대신 세계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생활에 한 달 월급 만큼을 소비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지역인	지방대, 여성, 인문계 출신으로 취업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치평가를 받음

3장 대전시 청년 일자리 정책 및 현황

1절. 추진 기반

2절. 2016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결과

3절. 2017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목표

3장 대전시 청년 일자리 정책 및 현황

1절. 추진 기반

1. 청년일자리 및 청년관련 지원조례

1)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및 청년관련 지원조례 제정 현황

-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및 청년관련 지원조례는 [표 3-1]과 같이 2013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제정했다.
- 기초자치구 중 서구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청년관련 지원조례를 총 3건 제정함으로써 타 자치구보다 청년관련 정책의 법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표 3-1]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및 청년관련 지원조례 현황

(기준 : 2017년 5월 현재)

구분	조례명	제정	소관부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조례	2013-12-3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2016-10-2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2016-08-01	일자리경제 정책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2016-04-11	기획공보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5-02-02	일자리경제 정책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2016-04-08	일자리추진단

자료: 자치법규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대전광역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2013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조례와 2016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대전지역 청년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취업지원, 관련 교육기관 활용, 청년의 참여 확대·능력개발·고용확대·주거안정·생활안정·건강권 보장·권리보호,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의 지원이다([표 3-2]참조).

[표 3-2]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기본조례 주요내용

(기준 : 2017년 5월 현재)

조례명	주요 사항
대전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산업동향 분석 및 청년 인력 수급 전망 ② 청년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④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 수당 (제 5,6,7,8조) - 취업지원 등(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 - 교육기관 활용(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청년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시 공보에 게재하여 청년과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 - 산하기관의 청년고용제(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설치(제12조) -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제13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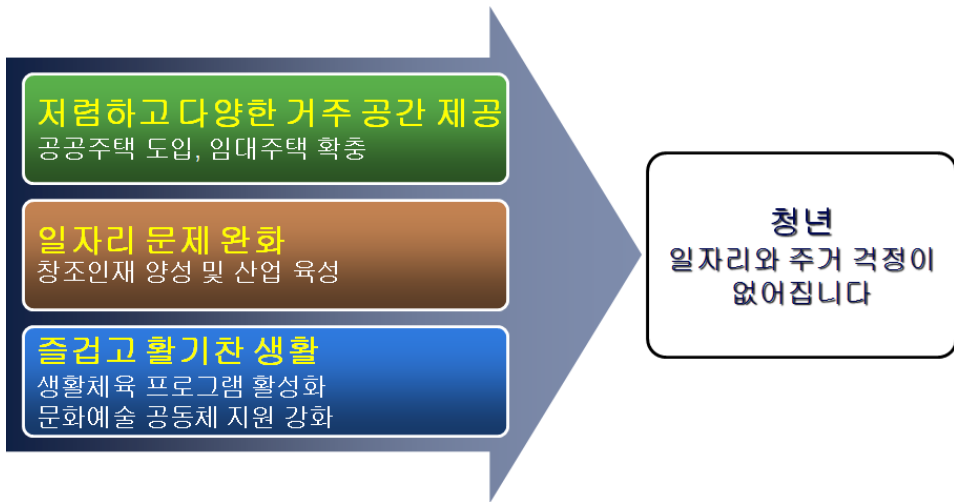
조례명	주요 사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책무(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전광역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청년 관련 실태조사(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제8,9,10조) - 분과위원회 운영(제12조) 청년정책네트워크 마련(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음. - 청년의 참여 확대(제15조), 능력개발(제16조), 고용확대(제17조), 주거안정(제18조), 생활안정(제19조), 건강권 보장(제20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제21조), 권리보호(제22조) 등의 지원과 강구 - 청년시설(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시설 설치 및 지정하여 운영 및 공간의 확보 및 개방 등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제24조) -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료: 자치법규시스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2. 정책 계획

1) 2030 대전 그랜드 플랜 수립

- 대전광역시(2016)는 2016년 4월 「2030 대전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대전지역 청년의 미래상을 기획했다([그림 3-1]참조). 「2030 대전 그랜드 플랜」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대전지역 청년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며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게 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3-1] 대전지역 청년 미래상

자료: 대전광역시(2016), 2030 대전 그랜드 플랜, p222

- 또한 「2030 대전 그랜드 플랜」에서는 여대생 등 첫 직장을 찾는 여성을 위한 진로개발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2016년 1개소에서 2018년까지 2개소로 확대하고,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대전광역시시는 2016년부터 대전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2016년, 2017년 청년 일자리 수 목표, 실업률 목표, 책정예산액, 주요사업은 [표3-3]과 같다.

[표 3-3]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개요

연도	일자리 수	실업률 목표	책정예산액	분야 및 시책 수
2016년	5,802개	7.5%	535억원	6개 분야 64개 시책
2017년	6,065개	7.8%	742억원	6개 분야 60개 시책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2016), 대전발전포럼「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김기희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대전지역 청년문제의 가장 큰 우선과제로 여겨지던 청년고용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으로 2017년에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의 소통, 주거 등의 권리까지 해결하기 위한 계획인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추진과제에 넣어졌다.

3)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

- 대전광역시시는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집중했다면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예술 향유 기획 확대 등 대전지역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인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계획은 3대 분야(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정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일자리 분야만을 집중하여 살펴보면 4가지 추진과제가 있다.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 창업 플라자 등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가속화, 공공부문 채용 확대다.

[표 3-4]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분야별 추진 과제

분야	추진과제
일자리	1. 청년 희망카드, 구직활동비지원
	2.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
	3. 희망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가속화
	4. 공공부문 채용확대 및 지역기업 채용지원
설자리	1. 청년의 전당 등 청년 활동공간 확충
	2. 청년동지 등 청년 거주공간 지원
	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학업 지원
	4. 건강한 청년의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놀자리	1. 청년거버넌스 구축강화(대청넷, 정책위원회)
	2. 대전 청년 축제문화 조성
	3. 소규모 커뮤니티지원 및 청년정책 공모
	4. 문화예술가 육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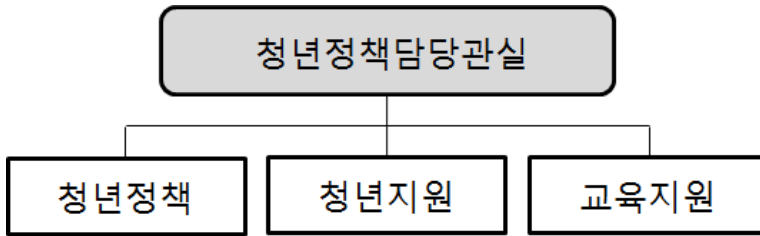
자료 : 대전광역시(2017),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3. 거버넌스

1) 정책부서 「청년정책담당관실」

- 대전광역시는 2017년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의 목표가 청년대전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예산 155억 원을 확보하고, 기존 담당급에서 추진하던 청년업무를 과 단위로 승격하여 2017년 5

월 1일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대전시는 [그림 3-2]와 같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청년정책담당, 청년지원담당, 교육지원 담당으로 구성했다.



[그림 3-2] 청년정책담당관실 조직 구성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 「청년정책담당관실」은 대전지역 청년정책을 전담하여 시책 발굴,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년정책담당관실 조직별 담당 업무는, 청년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예술 향유 기획 확대 등 대전지역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등이다.

[표 3-5] 청년정책담당관실 조직별 담당 업무

(기준 : 2017년 6월 현재)

구분	업무내용
청년정책담당	청년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청년공간 조성(청인지역, 청년의 전당), 희망카드 보급,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청년정책 위원회 및 거버넌스관리, 청년희망카드 운영, 청인지역 조성 운영, 각종 청년정책관련 행사지원 등
청년활동지원담당	대청넷(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커뮤니티 지원 및 관리, 청년 행사 추진, 청년주택임대보증금 지원, 누리관 운영,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구분	업무내용
교육지원담당	<p>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사항, 교육청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생존수영 시행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대전평생교육진흥원운영에 관한 사항,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예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자유학기제 지원업무, 스승존경운동 추진에 관한 업무, 대전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업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 운영,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협력사업 추진(공학교육혁신센터, 연합교양대학 등),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지원,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운영 등</p>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2)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광역시는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조례」 제12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제정하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인력관리센터」로 이전통합 개소했다(대발전연구원, 2016).
- 대전광역시가 지원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는 대전광역시에서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함께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여성·노인들의 맞춤형 교육훈련과 고용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센터의 주요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 정보 제공과 상담서비스’로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 둘째 ‘맞춤형 청년일자리 매칭’으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인재를 육성해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 셋째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로 다중집합장소를 찾아 구인·구직자와의 신청, 상담, 알선,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3) 대전청년네트워크

- 대전광역시는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22일 대전청년네트워크(이하 대청넷)라는 청년협의체를 구성했다. 대청넷은 공개모집으로 만 19세~39세의 대전 거주 청년 102명을 선발하여, 2년 동안 대전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하였다.
- 제1기 대청넷 위원들은 일, 활동공간, 주거, 문화예술, 진로, 소통 등 9개 분과로 나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실천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며, 청년이 필요로 하는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대청넷에 대해 분과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관의 행사 지원, 타 시도 청년과의 교류 및 우수 활동자 표창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절. 2016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결과

1. 2016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사업과 성과

1)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사업과 성과

- 대전광역시는 2016년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 6개 시책 6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6,088개 청년일 자리를 창출했다. 6개 시책 분야는 [표 3-6]와 같이 인력양성, 기업지원, 창업지원, 공공부문, 인적자원, 미스매치 등이다.
- 분야별 청년일자리 추진목표 달성여부를 살펴보면 2016년 청년일자리

추진목표 중 창업지원, 인적자원, 미스매치 분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인력양성, 기업지원, 공공부문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2016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추진목표 및 추진성과

(단위 : 명, %)

분야별 연도별	계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창업 지원	공공 부문	인적 자원	미스 매치
추진목표	5,802	1,040	1,709	270	1,504	129	1,150
	(100.0)	(17.9)	(29.5)	(4.7)	(25.9)	(2.2)	(19.8)
추진성과	6,088	829	1,331	318	1,483	262	1,865
	(100.0)	(13.6)	(21.9)	(5.2)	(24.4)	(4.3)	(30.6)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2) 사업 우수사례

- 2016년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사업 중 우수사례는 [표 3-7]와 같이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맞춤형 청년(대학) 창업 생태계 조성, 대덕특구와 함께하는 청년인턴쉽 대전드림(Dream) 과학인재양성사업 추진,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 손을 JOB아!’ 채용 지원,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년과의 소통·경청 토론회, 청년정책 홍보 및 고용질병해소를 위한 방송 토론회 등이 있다.

[표 3-7] 2016년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우수사례

사업명	내용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 (내용) 일자리 상담 및 수요조사 분석, 취업알선 등 - (추진성과) 알선·상담 5,624건, 취업 1,626건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	- (내용) 현장방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성과) 250회 운영, 취업상담 973건, 취업 118건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	- (내용) 창업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지원 등 - (현황) 20개소 (태평시장 10개, 유천시장 10개 점포) - (창업업종) 통닭, 쇠고기, 문어, 참치, 막창, 짬뽕 등 먹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 (내용)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운영인력) 13개기관 130명(고용, 일자리, 중장년, 새일센터,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등)
맞춤형 청년(대학) 창업 생태계 조성	- (내용) 교육·창업공간·경영·관로개척, 창업자금(1억원 이내) - (추진성과) 사업신청 1,717, 선정 822, 사업등록 577건 지원
대덕특구와 함께하는 청년인턴십 대전드림(Dream) 과학인재양성사업 추진	- (내용) 대전시 소재 대학 이공계열 재학생(학사)위한 인턴 및 채용 연계형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 제고 - (추진성과) 17개 기관(기업), 9개 대학, 청년 191명 참여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 손을 JOB아!' 채용 지원	- (내용) 프렌즈 위촉, 기업현장 방문, 수시채용 프로그램 지원, 공동채용워크숍 - (추진성과) 58명 채용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내용 및 추진성과) ① 청년우수기업채용박람회 :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 566명 채용 ② 일자리종합박람회 : 면접컨설팅, 채용관, 홍보관 등 / 510명 채용
청년과의 소통·경청 토론회	- (내용) 시장, 대학생, 기업 CEO, 학교 관계자 등 토론의 장 마련 - (추진성과) 배재대, 한밭대, 충남대, 대전과기대, 대덕대 총 5개 대학에서 실시하여 청년 채용활성화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청년정책 홍보 및 고용절벽해소를 위한 방송 토론회	- (내용) 청년고용절벽 해소 및 고용확대를 위한 홍보 - (추진성과) 언론 홍보 및 인터뷰 등 : 30회 실시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3절. 2017년 대전시 청년일자리 정책 목표

1.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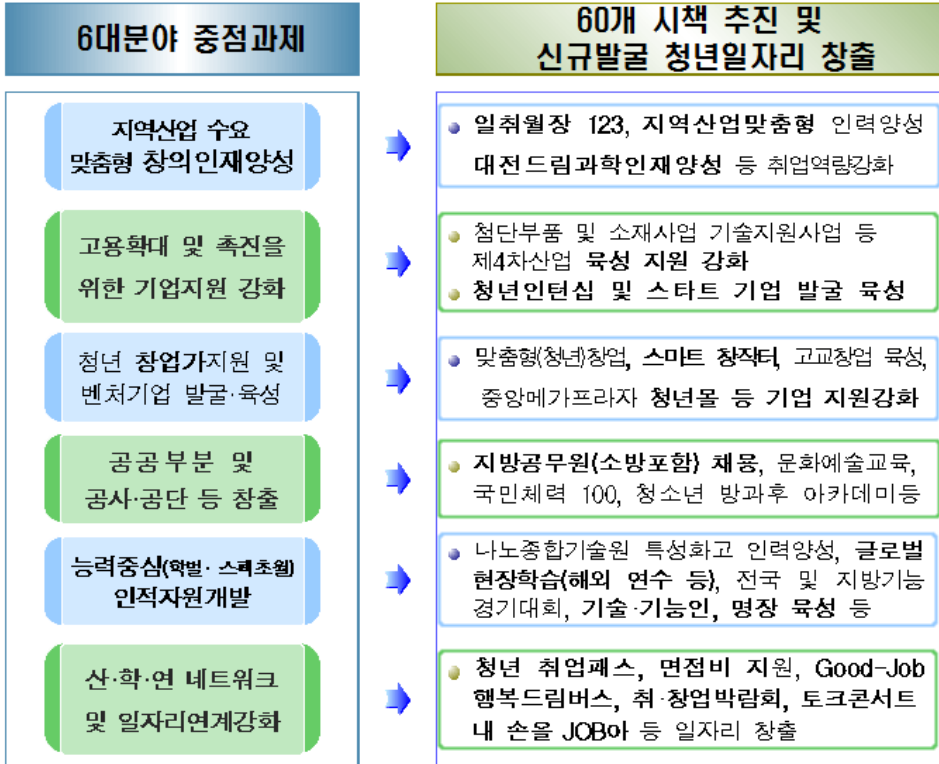
1) 「2017년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1) 비전과 목표, 중점과제

- 대전광역시는 2017년 청년 고용대책 추진 및 청년일자리 지속발굴을 위해 「2017년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은 6,065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6개 분야 60개 시책 중점 추진을 목표로 했다.
- 「2017년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비전은 ‘청년 활동도시, 일자리가 많아 행복한 도시건설’이며, 2017년 정책 목표는 「6,065개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률 7.8%, 고용률 45.0%」로 설정했다.
- 6대 분야 중점과제는 지역 산업 수요 맞춤 창의인재양성, 고용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이다.

비전 청년 활동도시, 일자리가 많아 행복한 도시 건설

목표 6,065개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률 7.8%. 고용률 45.0%



[그림 3-3]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비전과 목표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비전과 목표에 따른 6대 분야 60개 시책의 분포를 살펴보면, 공공부분 및 공사·공단 등 창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 강화,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청년 창업가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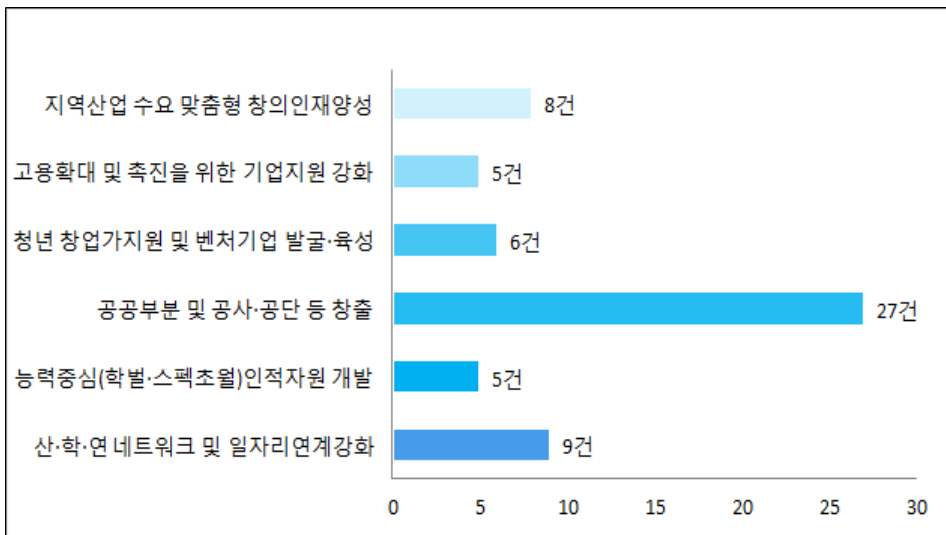
고용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순으로 공공부분 및 공사·공단 등 창출 시책이 가장 많다([그림 3-4]참조).

[표 3-8]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분야별 시책 수

(단위 : 건, %)

분 야 별	합계	비율
합 계	60	100.0
① 지역 산업 수요 맞춤 창의인재양성	8	13.3
② 고용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5	8.3
③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6	10.0
④ 공공부분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27	45.0
⑤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5	8.3
⑥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9	15.0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그림 3-4] 2017년 대전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분야별 시책 수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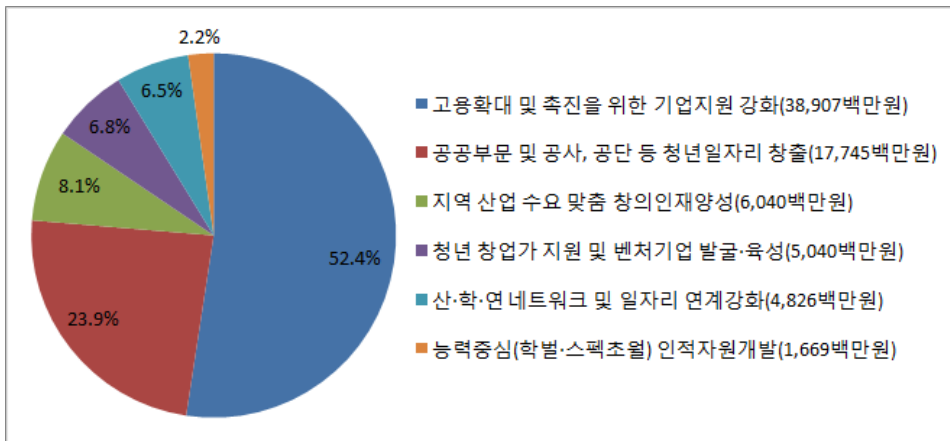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계획을 위한 예상되는 소요예산액은 총 74,227백만원이다 ([표 3-9] 참조).

[표 3-9]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계획 예상소요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74,227 (100.0)	32,979 (100.0)	35,372 (100.0)	275 (100.0)	5,601 (100.0)
① 지역 산업 수요 맞춤 창의인재양성	6,040 (8.1)	3,566 (4.8)	2,474 (3.3)	0 (0.0)	0 (0.0)
② 고용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38,907 (52.4)	26,517 (35.7)	12,390 (16.7)	0 (0.0)	0 (0.0)
③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5,040 (6.8)	1,610 (2.2)	3,180 (4.3)	100 (0.1)	150 (0.2)
④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17,745 (23.9)	803 (1.1)	11,691 (15.8)	175 (0.2)	5,076 (6.8)
⑤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1,669 (2.2)	423 (0.6)	871 (1.2)	0 (0.0)	375 (0.5)
⑥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4,826 (6.5)	60 (0.1)	4,766 (6.4)	0 (0.0)	0 (0.0)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그림 3-5]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계획 예상소요액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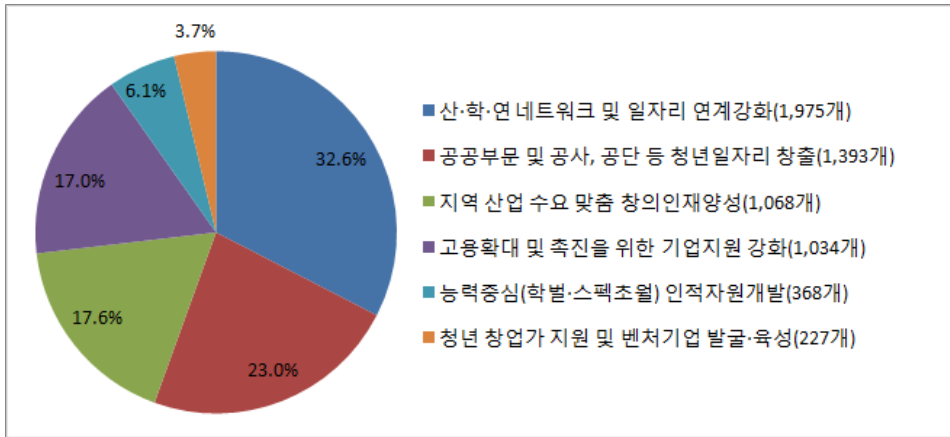
- 예상되는 소요예산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가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등이다([그림 3-5]참조).

[표 3-10]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수 창출 목표

(단위 : 개)

분 야 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합 계	6,065 (100.0)	4,844 (100.0)	981 (100.0)	240 (100.0)
①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1,068 (17.6)	818 (16.9)	250 (25.5)	0 (0.0)
② 고용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1,034 (17.0)	1,034 (21.3)	0 (0.0)	0 (0.0)
③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227 (3.7)	127 (2.6)	100 (10.2)	0 (0.0)
④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1,393 (23.0)	622 (12.8)	531 (54.1)	240 (100.0)
⑤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368 (6.1)	368 (7.6)	0 (0.0)	0 (0.0)
⑥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1,975 (32.6)	1,875 (38.7)	100 (10.2)	0 (0.0)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그림 3-6]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수 창출 목표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 2017년 대전지역 일자리 수 창출 목표는 총 6,065개임. 일자리 수 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분야가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고용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순이다([그림 3-6]참조).
- 대전광역시는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실업률을 전년도 대비 0.2%(8.0% → 7.8%) 낮추고 취업자는 1,000명(139천명 → 140천명) 늘리며, 실업자는 1,000명(12천명 → 11천명) 줄이려고 하고 있다([그림 3-7]참조).

목 표	2016년도 실업률(연평균)		2017 실업률 (목표)		
	청년실업률	8.0%	➔	청년실업률	7.8% 달성
	청년취업자	139천명		청년취업자	140천명
	청년실업자	12천명		청년실업자	11천명

[그림 3-7] 2017년 대전지역 청년 실업률,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목표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2) 6대 분야 추진계획

- ①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 첫 번째 분야는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으로 8개 시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개요는 [표 3-11]와 같다.
 - 추진방향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으로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기업 취업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도모이다.
 - 일자리 수 목표는 총 1,060개로 예상 소요액은 총 5,640백만원이다.

[표 3-11]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월, 개)

연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상 소요액	사업 기간 ('17년)	일자리 수 목표
계	-	-	-	5,640	-	1,060
1	일취월장 123청년 인력양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제공	훈련비 및 훈련수당,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수당지원 등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1,000	1 ~ 18년 2월	150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2	대전드림 과학인력 양성사업	지역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과 연계한 직무체험 인턴근무 기회제공	기업 수요조사 및 대학별 신청서 접수하여 매칭 일자리 창출	1,200	2 ~ 12	200
3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	상담사 전문인력양성으 로 컨택센터 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컨택센터 인력수급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담사 교육 및 취업 알선	150	2 ~ 10	200
4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	기업수요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대학 인프라 활용, 미취업자 채용 연계형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400	1 ~ 12	60
5	대전 MICE 아카데미	국제회의 등 개최도시역량강 화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발굴	지역 MICE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후 취업연계로 일자리창출	13	4 ~ 11	50
6	지역맞춤 형일자리 창출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추진	지역특화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 유망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혁신프로젝 트 등	2,707	1 ~ 12	100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상 소요액	사업 기간 ('17년)	일자리 수 목표
7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산업 수요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등 직업능력개발	폴리텍 대학, 대전대학교, 대덕대학교, 성광직업전문학 교, 한밭대학교 등 기관에서 72개 과정 2,635명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70	1 ~ 12	300
8	전략산업 인력양성	지역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인력 재교육 및 역량강화	지역4대전략산 업분야(정보통신 · 바이오 · 메카 트로닉스 · 첨단 부품 및 소재) 기업역량강화 및 수출역량강화 교육, 기업 우수인력 지역정착지원	400	1 ~ 12	8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②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 두 번째 분야는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로 5개 시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개요는 [표 3-12]와 같다.
- 추진방향은 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인식개선을 통한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제4차 산업 인재 육성 및 기업 발굴 등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이다.
- 일자리 수 목표는 총 1,034개로 예상 소요액은 총 38,907백만 원이다.

[표 3-12]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월, 개)

연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상 소요액	사업 기간 ('17년)	일자리 수 목표
계	-	-	-	38,907	-	1,034
1	Goob-Job 청년 인턴십 운영	청년 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기업지원	인턴근무 및 정규직 전환시 각각 3개월간 1인당 월 1백만원씩 지원	400	2 ~ 12	80
2	주력· 협력산업 육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사업 발굴·육성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메디바이오, 금속가공, 지식재산 서비스, 광전자융합 등 고부가 가치 핵심 중추사업 발굴·육성	772	1 ~ 12	771
3	바이오 GMP기술 인력양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대덕특구의 기술력 활용 기업지원	바이오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GMP 교육	181	1 ~ 12	17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상 소요액	사업 기간 ('17년)	일자리 수 목표
4	지능형 로봇 및 3D프린팅 사업	로봇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성공 모델 육성	지역 특화 로봇 관련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등 실질적인 기업의 지원	17	1 ~ 12	16
5	고용우수 기업 인증제	고용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 고용촉진 유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환경개선자금(기 업당 1,000만원) 지원 등	161	1 ~ 12	150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③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 세 번째 분야는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으로 6개 시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개요는 [표 3-13]과 같다.
- 추진방향은 청년창업과 창직(創職)을 원하는 청년(대학생)에게 맞춤형 창업 생태계 구축, 미래산업 발굴·육성 지원으로 고용 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 등 선제적 대응이다.
- 일자리 수 목표는 총 227개로 예상 소요액은 총 5,040백만 원이다.

[표 3-13]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월, 개)

연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산 소요액	사업 기간 ('17년)	일자리 수 목표
계	-	-	-	5,040	-	227
1	맞춤형 청년(대학) 창업생태 계구축	創職(창직)을 원하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창업자금, 창업 공간, 교육, 사업화 컨설팅, 마케팅 지원	2,000	1 ~ 7	70
2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 업	지역 특화산업 분야와 연계한 고교생(일반, 특목, 특성화)예비 창업인재 육성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맞춤형 실무교육, 창업아이템 발굴 등	200	1 ~ 12	100
3	스마트창 작터	지식서비스분 야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취·창업 분야 市 정책 추진	사물인터넷, 앱/웹, 콘텐츠, ICT융복합 등 지식서비스분야 청년 지원	750	3 ~ 18년 2월	12
4	중앙메가 프라자 청년몰 구성	전통시장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갖춘 청년상인 육성	창업교육, 공용 편의시설 조성, 점포 리모델링, 레시피 개발 등 지원	1,500	1 ~ 12	20
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청년층 실업대책 기여 및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시설 인프라 및 창업 교육, 전문가 자문 서비스, 마케팅지원	510	1 ~ 12	20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6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경진 대회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업 및 시장성 검증을 통한 예비창업 지원	상금지급(1백만 원 내외), IR피칭,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	80	1 ~ 12	5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④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 네 번째 분야는 「공공부문 및 공사·공단 청년일자리 창출」으로 27개 시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개요는 [표 3-14]와 같다.
- 추진방향은 공공기관부터 공무원 채용 등 안정적인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 출자·출연기관 등 청년 의무고용 선도하고 청년채용활성화 방안 마련이다.
- 일자리 수 목표는 총 1,393개로 예상 소요액은 총 17,745백만 원이다.

[표 3-14] 공공부문 및 공사·공단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월, 개)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계	-	-	-	17,745	-	1,393
1	지방공무원 공개채용(교육청 50명 포함)	공개 및 경력경쟁 임영시험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기술분야 고졸자 채용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계약직 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	641	2 ~ 12	324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2	대전120콜 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민원 상담채널 일원화로 민원인 편의증대	콜센터 상담인력 증원 등채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1,132	1 ~ 12	28
3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기록물의생산 · 보존· 활용 · 폐기의 전자적 관리로 기록물 활용제고	기록관리 시스템 전산DB구축 및 DVD-ROM에 수록	207	1 ~ 9	1
4	전자기록물 이관 추진	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시스 템 이관작업 추진	전자기록물 재분류·추출 및 변환하여 기록관리시스 템으로 이관·검증	318	1 ~ 9	2
5	CCTV통합 관제센터 관제용역	시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제센터의 인력채용	지속적으로 증설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관제용역 및 인력채용	1,771	1 ~ 12	53
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으 로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올 가진 단체· 기관· 시 설 지원	458	3 ~ 12	28
7	대전시티즌 프로선수단 운영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건전한 시민 여가문화 조성	경기력 및 체력향상을 위한 동계훈련실시와 경기출전	5,000	1 ~ 12	43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8	유소년 선수단 육성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건전한 시민 여가문화 조성	경기력 및 체력향상을 위한 동계훈련실시와 경기출전	500	1 ~ 12	6
9	국민체력 100사업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체력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	165	3 ~ 12	6
10	프로젝트 대전 2017 : 코스모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융복합한 대전 대표 전시회	특별전시회 관리요원 및 안내원 배치로 수준 높은 전시회 운영	123	3 ~ 19년 12월	16
11	예술의 전당 공연 안내요원운 영	준비된 안내요원 고용으로 고품격 관람 서비스 제공	공연장 내·외 안내, 놀이방 운영, 공연장내 질서유지 등	248	1 ~ 12	40
12	연정국악원 공연 안내요원 운영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나은 고품격 관람서비스를 제공	소란행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람여건 조성	42	1 ~ 12	5
13	연정국악원 무대 보조인력 운영	공연장 무대운영을 위해 각종 공연에 필요한 무대보조인력	기계, 장치, 조명, 음향 등 무대기술 분야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40	1 ~ 12	8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맞벌이·한 부모·장애·취약 계층 가정의 청소년 지원	전문체험활동및 학습지원과정, 재량활동 및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등	801	1 ~ 12	86
15	교통데이터 웨어 하우스 운영관리	ITS 수집자료를 재가공 및 분석, 교통지표제시, 효과분석, 정책수립	교통DB갱신 및 현행화, 정책분석·기술 지원, 교통조사·분석 등	218	2 ~ 12	230
16	교통신호체 계 최적화 및 기술운영	도로 기능별 명확한 신호운영 전략 및 교통소통을 위한 연동 체계 구축	주요 가로축 41개 교차로 신호체계 최적화, 1,252개 교차로 신호운영관리	348	1 ~ 12	14
17	교통신호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교통안전시설(제어기, 신호등, 검지기 등) 상시 온라인 체계유지 및 보수	364	2 ~ 12	5
18	시내버스 회계·감사· 원가 산정 용역	시내버스 업체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 원가 산정	재무제표 작성, 원가절감, 경영평가 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 등	135	2 ~ 12	9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19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소방관련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 채용	지방소방 공무원 채용(시 주관 54명, 중앙소방학교 14명)	9	1 ~ 12	68
20	여성소방공 무원 대체인력운 영	여성 소방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시 대체인력 운영	대체인력풀 구성, 대체인력 채용, 대체인력 운영	131	1 ~ 12	10
21	119구급상 황관리센터 보조인력 운영	소방관련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 채용	119구급상황관 리센터 업무보조원 채용	18	1 ~ 12	10
22	시설관리공 단 정규직 직원 채용	정년퇴직, 중도퇴사에 따라 발생된 결원인력의 적기 채용	일반직 2명, 업무직 7명 등 채용	240	1 ~ 12	9
23	시설관리공 단 비정규직 직원채용	정년퇴직, 중도퇴사에 따라 발생된 결원인력의 적기 채용	임시직 근로자,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 근로자, 일반직 무기 계약직 등 채용	718	1 ~ 12	156
24	도시공사 일반직 직원채용	정년퇴직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력 충원	전문, 행정, 기술 등	624	1 ~ 12	6
25	도시공사 상용직 직원채용	대전오월드 화조원 개장에 따른 인력 등 무기계약직 충원	환경관리요원 채용	44	4 ~ 12	20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26	대전오월드 기간제근로 자 채용	각종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채용	매수표, 놀이시설 운전, 식음매장 관리원, 사육보조 등	3,230	1 ~ 12	199
27	도시철도공 사 정규직 직원 채용	정년퇴직, 중도퇴사에 따라 발생한 결원인력의 적기 채용	일반직(사무 4, 승무 4, 전기 1, 신호 1, 전산 1)	220	1 ~ 3	11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⑤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 다섯 번째 분야는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로 5개 시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개요는 [표 3-15]와 같다.
- 추진방향은 산학 일체형 직업교육 강화로 학벌·스펙초월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 정부의 일·학습 분위기 확산 및 직업훈련 강화로 직무능력 향상 지원이다.
- 일자리 수 목표는 총 368개로 예상 소요액은 총 2,880백만 원이다.

[표 3-15]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월, 개)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계	-	-	-	2,880	-	368
1	나노종합 기술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	나노장비활용 전문인력 양성·배출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나노기술·공정 이론교육 나노 R&D 산업화 등 교육 및 취업지원	398	2 ~ 12	43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2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청 연계)	해외체험 기회제공 및 해외취업 동기부여로 청년층의 해외진출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능·기술 인재양성	국내 5개월, 해외 3개월 연수(교육2개월, 인턴 1개월)	700	2 ~ 12	20
3	지방기능 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	숙련기술자 양성 저변확대 및 숙련기술의 향상 도모, 숙련기술자 육성 풍토 조성 및 우수 기능인 배출 지원	지방기능경기대 회(4월) 개최, 우수선수 선발하여 전국기능경기대 회 (10월)	571	2 ~ 12	100
4	특성화고 채용박람 회	특성화고 학생들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취업률 제고	구인기업을 모집, 현장면접과 기업 탐방하여 고졸취업 지원	통합예 산	4 ~ 10	200
5	특성화고 졸업자 지방공무 원 경력경쟁 임용	학교장 추천으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으로 취업추진	학업성적우수자(상위 50%이내) 경력경쟁 임용(고졸)	통합예 산	6 ~ 12	5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⑥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 여섯 번째 분야는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으로 9개 시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개요는 [표 3-16]과 같다.

- 추진방향은 소통·경청을 통한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사전매칭 상담 및 알선, 청년 취업패스·면접비 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 취업 인프라 확충이다.
- 일자리 수 목표는 총 1,975개로 예상 소요액은 총 4,826백만 원이다.

[표 3-16]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월, 개)

연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상 소요액	사업 기간 ('17년)	일자리 수 목표
계	-	-	-	4,826	-	1,975
1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청년의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상담·알선 및 청년일자리 복지 실현	인력양성, 고용수요·연구조사, 청년·여성·노인 등의 고용정보망 및 협업체계 구축, 취업알선, 맞춤형일자리 창출의 종합컨트롤 타워 기관	700	1 ~ 12	600
2	「찾아가는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	구인·구직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특성화고, 대학, 아파트단지 등의 방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창업지원, 진로 상담 및 정보제공 창업관련 상담 등	통합예산	1 ~ 12	125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3	대학취 업 역 량 강 화 및 지 원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학·관이 연계하여 대학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우수인재 취업활성화	대학별 취업박람회, 면접체험, 이력서컨설팅 등 취업역량강화	통합예 산	1 ~ 12	80
4	대학창 조일자 리지원 센터 운영	대학생들의 진로설계, 적성검사, 심리검사, 현장실습, 교육훈련, 해외취업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취업특강, 진로적성 및 심리검사, 취업캠프 등 취·창업교육 등	236	1 ~ 12	275
5	일자리 종합박 람회 및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구직자에게 다양한 고용정보와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	160여개 부스를 설치하여 채용면접관, 직업체험관, 이벤트관 및 취업특강(세미나실) 등 운영 취업연계	85	10	350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6	청년혁 신 스카우 트 '내손 을 잡(JOB 아 '	대전지역 우수·강소 기업들이 청년일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학력·학점 등의 스펙을 초월한 혁신적 방법의 채용시스템 도입	토크콘서트, 채용설명회, 워크숍 채용의 3단계 혁신적 채용스카우트	50	1 ~ 12	100
7	여성 취·창 업 박람회 등 취·창 업지원 기능 강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들에게 취업기회마련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박람회를 개최	채용면접관, 직업체험관, 이벤트관 등 100여개 부스 설치	140	1 ~ 12	200
8	대학졸 업 예정 미취업 자 면접활 동비 지원	취업 준비생에 대한 면접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 활성화 도모	' 17년 2월 대학 졸업 미취업자 및 취업 준비생에 대한 면접비 지원	15	1 ~ 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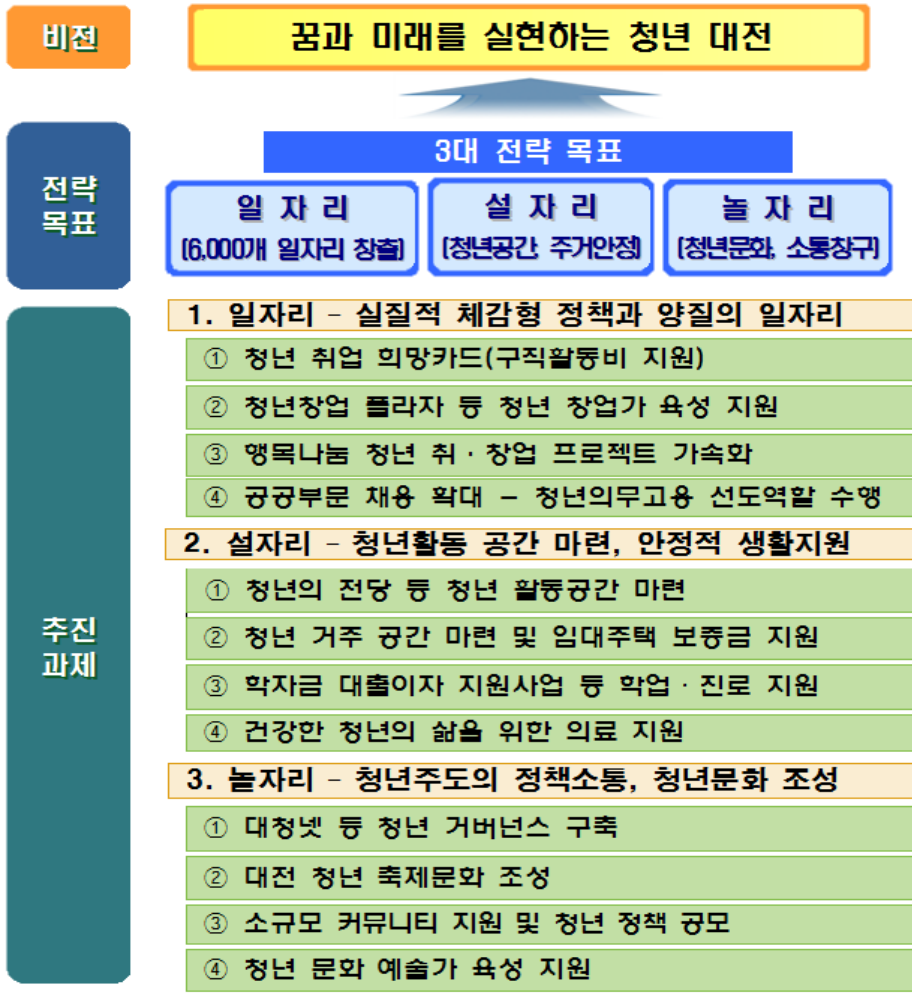
연 번	사업명	목적	추진내용	예 상 소 요 액	사 업 기 간 ('17년)	일 자 리 수 목 표
9	행복나눔 청년 취업패스	취업을 장려하고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피부에 와 단는 정책 추진 및 취업 활성화 도모	자격증 취득 접수비, 교통비,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등	3600	1 ~ 12	220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2)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1)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 대전광역시는 「2017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외에 2017년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예술 향유 기획 확대 등 대전지역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인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림 3-8]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자료: 대전광역시(2017),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

-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비전은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청년 대전’이며 전략목표는 일자리, 실자리, 놀자리 마련임. 추진과제는 12개 과제이며, 일자리 추진과제 4개가 청년일자리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7년 대전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 본 보고서에서 집중하고자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직접 관련 있는 일자리 부문 추진 추진과제 4개만을 살펴보았다.

- 일자리 추진과제의 목표는 실질적 체감형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 추진방향은 고착화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교육, 구직활동, 일자리 매칭 등에 따른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하고,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구직, 창업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의 자립감 제고이다.
- 주요사업은 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총 4개 과제다.

(2) 일자리 부문 추진과제 계획

① 청년 취업희망카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년실업자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자
- 지원연령 : 만 18세~34세 청년 미취업자(300천원×6개월×6,000명)
-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소득, 가구원수,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등
- 지원항목 :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접수비 등
- 지원방식 : 청년 취업 희망카드발급(포인트 차감방식)
- 소요예산 : 108억원 / (구직활동지원비,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

□ 추진상황

- 사업대행기관 업무협약 : 4월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수수료4%
- 시스템 구축 대상자선정 : 이지웰페어(주) / 공무원복지후생관 운영자

- 복지부보완 요구사항 : 중복급여방지, 사업 결과보고(중간보고)

□ 향후 추진계획

- 복지부 협의 요청서 보완 제출 : 5월중 / 구두협의 완료후
- 시스템 구축 계약 / 과업지시서 검토 및 절차 이행
- 사업비 교부(대전경제통상진흥원 신청)
- 대상자 선발 공고 등 준비 행정절차 이행(복지부 협의 완료 후)
- 조례안 제출 : 제1차정례회(6월) /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후관리 등

②-1. 청년 창업가 육성 -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 추진 방향

-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최근 전통시장의 상인의 노령화 등에 의한 혁신동력 부족으로 생긴 사회적·산업적 변화에 적기 대응 노력

□ 사업개요

- 기간 : 2016. 8. ~ 2017. 12.
- 사업부지 : 중앙메가프라자(동구 중앙로 200번길 99) 3층 일부
- 예산 : 15억원(국비 7.5, 시비 5, 구비 1, 자부담 1.5)
- 수행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별도의 ‘사업단’ 구성
- 지원규모 : 청년상인 창업점포 20개 창업(업종 : 한식, 일식, 중식, 분식, 스낵, 패스트푸드, 소공예품 판매 등)
- 지원대상 : 청년상인(19세~39세)으로서 사업자등록 미등록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공용시설 조성, 리모델링, 레시피 개발 등

□ 추진 계획

- 한화이글스(야구) 홍보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2. 21
- 지속적인 마케팅 지원 및 콘텐츠 홍보, 개관 / 5월말

②-2. 청년 창업가 육성 - 청년창업 플라자 ‘청년 야(夜)시장’

□ 추진 방향

- 엑스포 시민광장 내에 문화행사와 청년 창업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
- 2017년은 ‘청년 창업플라자’ 를 추진하는 첫 해로서, 장소 및 규모 등의 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 주요 내용

- 사업명/기간 : (가칭)대전 ‘청년 야(夜)시장’ / 6월 ~ 8월 중 일부
- 사업비 : 7천만 원(판매공간 조성, 홍보비 등) / 1회 추경 확보
- 사업 장소 : 엑스포 시민광장 또는 분수광장
- 운영규모 : 총 20부스(먹거리 10부스, 볼거리 10부스)

□ 추진 계획

- 공기관 대행사업비 7천만 원 확보 / 3월(* 17년도 1회 추경)
- 세부 운영방안 및 시설 조성 관련 협의(주관 기관, 기획사) / 3월~4월
- (가칭) ‘청년 야시장’ 참여자 공모 / 5월
- (가칭) ‘청년 야시장’ 개최 / 6월~8월

②-3. 청년 창업가 육성 - 고교창업 인재육성

□ 추진 방향

- 관내 고교생들의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창출 및 창업문화 확산
- 고교생들의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미래 자원인 대전형 인재 육성

□ 주요 내용

- 기간 : 2017. 3월 ~ 2018. 12월 / 2년
 - 1차 년도(역량강화), 2차 년도(우수아이템 창업지원)
- 대상 : 대전지역 62개교(일반·특목·특성화) 고교생
- 사업규모 : 2억원
- 운영기관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추진 계획

- 전문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3월), 평가 및 선정(4월)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관내 62개 고교, 3~4월)
- 창업캠프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7월 ~ 8월)
 - 대상 : 창업기초교육 참여학교 재학생
 - 내용 : 전문가 심화교육 및 창업캠프를 통한 성장역량대회 마련
- 우수아이템 후속 연계·성장 지원('18. 1월 ~ 12월)
 - 내용 : 예비창업자의 초기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 활동비 지원

②-4. 청년 창업가 육성 -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추진 방향

- 청년대상 창업 붐 조성 및 예비창업자 발굴을 통해 창업생태계 구축

- 단순 1회성 지원이 아닌 판로개척 등 후속성장까지 지원

□ 주요 내용

- 기간 및 인원 : 2017. 3월 ~ 2018. 12월 / 100명
- 대상 : 창업 관심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청년(39세 이하)
- 사업규모 : 20억원
- 운영기관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추진 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 강화
 - 시기 : 3월(모집공고 및 접수), 4월(평가 및 선정)
 - 대상 : 창업관심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및 청년(만39세이하)
- 창업캠프 운영 및 아이템 고도화
 - 시기 및 인원 : 5월, 사업참여 신청자 전원
 - 내용 : 창업 소과정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아이디어 경진대회추진
 - 시기 및 인원 : 8월, 창업캠프 수료자
 - 내용 : 창업자 역량대회를 통해 우수아이템 40명 선정
- 우수창업자 지원
 - 시기 및 방향 : 1월~, 창업자금 및 투자자와 네트워크 추진
 - 내용 : 창업아이템 우수평가에 따라 창업자금 지원(최대 50백만원)
- 창업스타기업 육성
 - 시기 및 인원 : ' 18. 3월, 최종 우수창업자 20명 선정
 - 내용 : 창업기업이 지속적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③ 행복나눔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가속화

□ 개요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양성 8개 사업 1,068개 일자리 제공
-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5개 사업 1,034개 일자리 제공
- 청년창업가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6개 사업 227개 일자리 제공
-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 5개 사업 227개 일자리 제공
- 산·학·연 네트워크 연계 일자리창출 9개 사업 1,975개 일자리 제공

④ 공공부문 채용 확대 - 청년 의무고용 선도역할

□ 추진방향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 선도, 채용활성화
- 공공기관부터 공무원 채용 등 안정적이고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

□ 주요 사업내용 : 1,362명 채용

-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324명 / 일반직 및 계약직
- 대전120 콜센터 운영 : 28명 / 상담인력 증원 채용
- 전자기록물 이관 등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채용 : 31명
-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 : 53명 /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제용역
- 대전 시티즌 프로선수단 운영 등 : 55명
- 과학문화 예술분야 : 69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86명 / 맞벌이 등 취약계층 청소년지원
- 시내버스 등 교통 분야 : 258명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 68명 / 시 주관 54, 소방학교 14
- 여성소방공무원 대체인력 : 10명 / 출산, 휴직 등 결원발생 대체인력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보조 : 10명 / 사무업무보조
-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 165명 / 정규직(9), 비정규직(156)
- 도시공사 인력채용 : 26명 / 일반직 제한경쟁(6), 환경관리요원(20)
- 대전 오월드 인력채용 : 199명 / 매수표, 놀이시설운전, 사육보조 등
- 도시철도 공산 인력채용 : 11명 / 결원발생 인력채용

4장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제 참여 현황

1절. 국내 청년 현황

4장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제 참여 현황

1절. 국내 청년 현황

1. 청년여성 고용동향

1) 전국 청년여성 고용동향

(1) 전국 청년여성 고용동향

① 전국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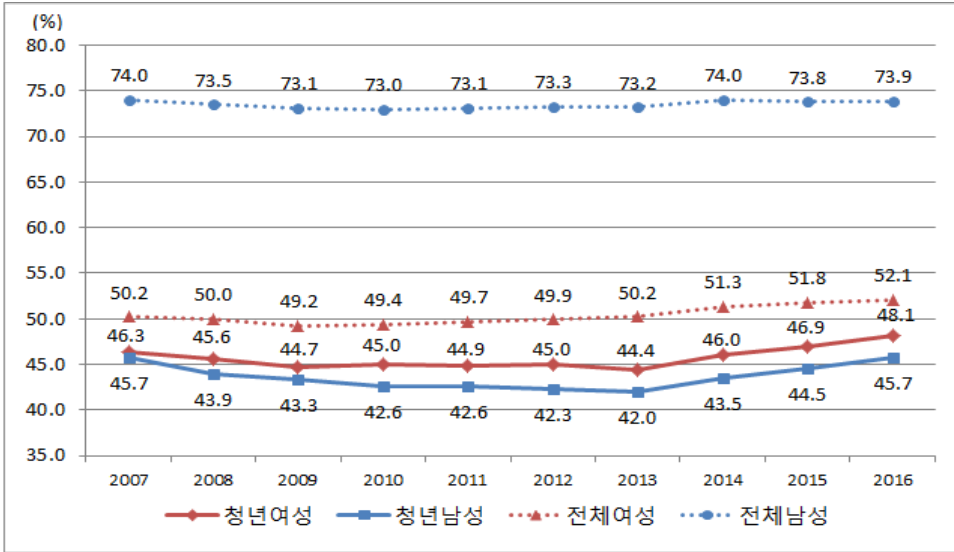
- 전국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48.1%로 청년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45.7%)보다 2.4%p 높고 전체여성(52.1%)보다 4.0%p 낮고 전체남성(73.9%)보다 25.8%p 낮다([표 4-1]참조). 청년여성과 청년남성, 전체여성, 전체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이러한 격차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다([그림 4-1]참조).
- 2016년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15년의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하면 1.2%p 소폭 상승했다([표 4-1]참조). 2010년 이후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최저치(44.4%)을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16년 최고치(48.1%)을 기록했다([그림 4-1]참조).

[표 4-1] 전국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여성	46.3	45.6	44.7	45.0	44.9	45.0	44.4	46.0	46.9	48.1
청년남성	45.7	43.9	43.3	42.6	42.6	42.3	42.0	43.5	44.5	45.7
전체여성	50.2	50.0	49.2	49.4	49.7	49.9	50.2	51.3	51.8	52.1
전체남성	74.0	73.5	73.1	73.0	73.1	73.3	73.2	74.0	73.8	73.9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그림 4-1] 전국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전국 청년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5~19세 9.6%, 20~24세 56.6%, 25~29세 75.0%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4-2]참조). 특히 25~29세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추세가 다른 연령보다 두드러진다.
- 청년여성과 청년남성과 비교하면, 청년남성이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함에 따라 15~19세, 20~24세 연령의 청년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연령의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으나,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연령대에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3.2%p차로 추월했다.

[표 4-2] 전국 연령별*성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 여성	15~19세	8.1	7.5	7.5	8.5	9.0	9.1	8.7	9.4	9.9	9.6
	20~24세	56.4	54.6	53.0	53.5	52.3	53.5	52.2	54.6	56.3	56.6
	25~29세	68.2	69.3	69.0	69.8	71.4	71.6	71.8	73.4	72.9	75.0
청년 남성	15~19세	6.5	5.6	4.9	5.5	6.3	6.3	6.6	7.6	7.7	8.1
	20~24세	47.3	43.9	44.1	42.7	42.3	43.3	42.2	44.4	46.0	45.8
	25~29세	77.7	76.4	76.3	76.6	77.6	76.5	76.3	77.2	77.1	78.2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② 전국 청년여성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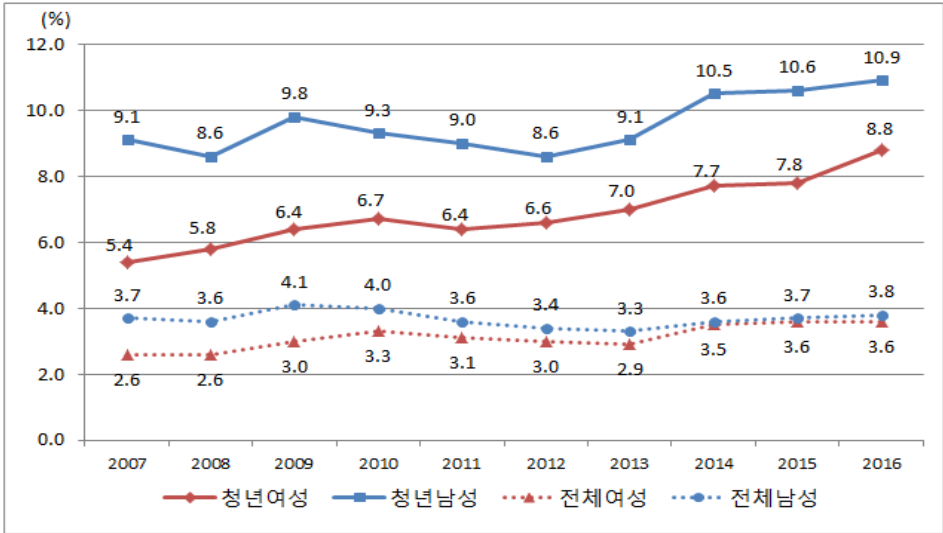
- 전국 청년여성의 실업률은 2016년 기준 8.8%로 청년남성의 실업률(10.9%)보다 2.1%p 낮고, 전체여성(3.6%)보다 5.2%p 높고, 전체남성(3.8%)보다 5.0%p 높다([표 4-3]참조). 청년남녀의 실업률은 전체남녀 실업률의 2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해소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6년 청년여성의 실업률을 2015년의 청년여성의 실업률과 비교하면 1.0%p 상승했다. 2016년 청년여성의 실업률(8.8%)은 세계고용위기로 고용한파를 맞은 2010년보다도 높은 수치로, 지난 10년과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치로 2016년 청년여성이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2)참조).

[표 4-3] 전국 남녀 실업률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여성	5.4	5.8	6.4	6.7	6.4	6.6	7.0	7.7	7.8	8.8
청년남성	9.1	8.6	9.8	9.3	9.0	8.6	9.1	10.5	10.6	10.9
전체여성	2.6	2.6	3.0	3.3	3.1	3.0	2.9	3.5	3.6	3.6
전체남성	3.7	3.6	4.1	4.0	3.6	3.4	3.3	3.6	3.7	3.8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그림 4-2] 전국 남녀 실업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전국 청년여성의 연령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5~19세 9.2%, 20~24세 10.7%, 25~29세 7.3%로 20~24세 실업률이 다른 연령보다 높은 편이며 20~24세 실업률은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지난 10년간 비교적 가파른 실업률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을 비교하면, 청년여성의 실업률은 각 연령에서 청년남성의 실업률 보다 낮다.

[표 4-4] 전국 연령별*성별 청년 실업률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 여성	15~19세	9.2	8.6	10.3	9.6	9.7	8.3	9.5	8.4	10.7	9.2
	20~24세	6.9	7.9	8.3	8.9	7.8	8.5	9.0	9.3	9.8	10.7
	25~29세	4.1	4.3	4.9	5.1	5.0	5.0	5.2	6.3	5.8	7.3
청년 남성	15~19세	9.5	12.2	15.1	15.1	12.2	9.5	11.3	10.2	10.4	11.0
	20~24세	11.7	11.4	11.4	10.4	12.1	9.8	9.5	11.4	11.5	11.0
	25~29세	8.2	7.5	9.0	8.6	7.7	8.0	8.8	10.1	10.1	10.9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③ 전국 청년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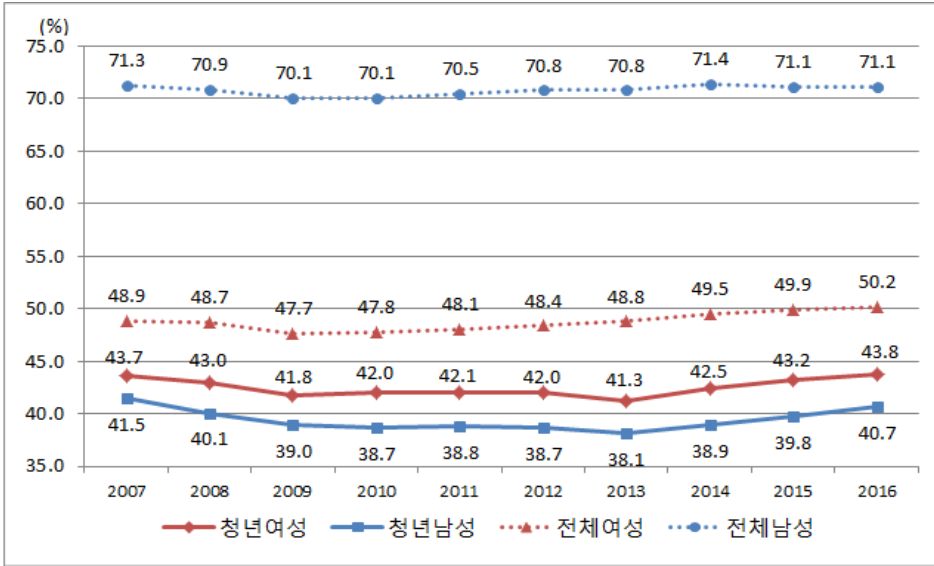
- 전국 청년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기준 43.8%로 청년남성의 고용률(40.7%)보다 3.1%p 높고 전체여성(50.2%)보다 6.4%p 낮고 전체남성(71.1%)보다 27.3%p 낮다([표 4-5]참조). 청년여성과 청년남성, 전체여성, 전체남성의 고용률의 이러한 격차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다([그림 4-3]참조). 2016년 청년여성의 고용률을 2015년의 청년여성의 고용률과 비교하면 0.6%p 소폭 상승했다.

[표 4-5] 전국 남녀 고용률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여성	43.7	43.0	41.8	42.0	42.1	42.0	41.3	42.5	43.2	43.8
청년남성	41.5	40.1	39.0	38.7	38.8	38.7	38.1	38.9	39.8	40.7
전체여성	48.9	48.7	47.7	47.8	48.1	48.4	48.8	49.5	49.9	50.2
전체남성	71.3	70.9	70.1	70.1	70.5	70.8	70.8	71.4	71.1	71.1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그림 4-3] 전국 남녀 고용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청년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5~19세 8.7%, 20~24세 50.6%, 25~29세 69.5%로 청년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청년여성과 청년남성과 비교하면 15~19세와 20~24세 청년여성의 고용률은 청년남성의 고용률보다 높지만, 25~29세의 경우는 청년남성의 고용률이 청년여성의 고용률을 0.2%p차로 추월했다.

[표 4-6] 전국 연령별*성별 청년 고용률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 여성	15~19세	7.4	6.9	6.7	7.7	8.1	8.3	7.9	8.6	8.8	8.7
	20~24세	52.6	50.3	48.6	48.7	48.2	48.9	47.5	49.5	50.8	50.6
	25~29세	65.4	66.3	65.6	66.2	67.8	68.0	68.0	68.8	68.6	69.5
청년 남성	15~19세	5.9	4.9	4.2	4.7	5.5	5.7	5.9	6.8	6.9	7.2
	20~24세	41.7	38.9	39.1	38.3	37.2	39.1	38.1	39.3	40.8	40.8
	25~29세	71.3	70.7	69.4	70.0	71.6	70.4	69.6	69.4	69.3	69.7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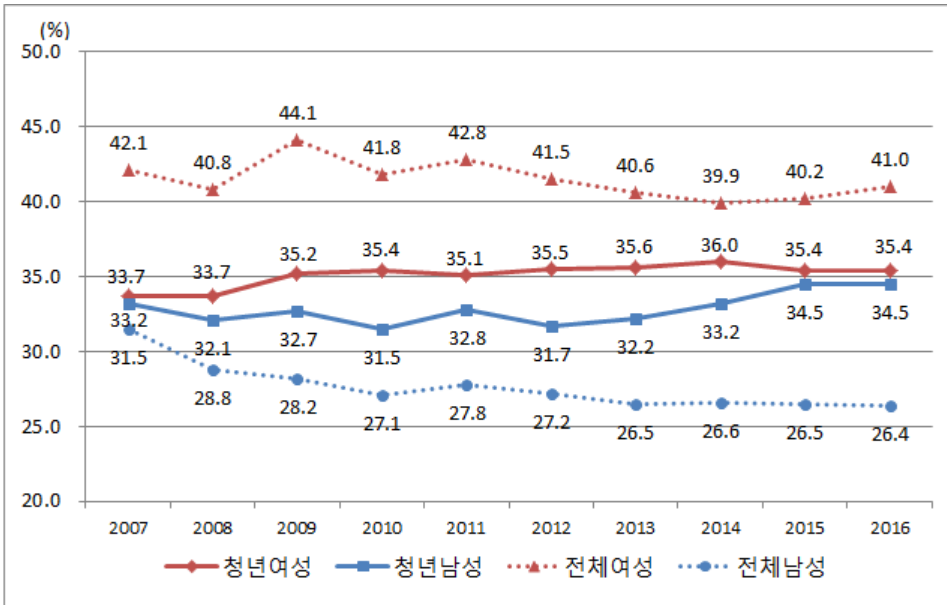
-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청년남성보다 높지만, 고용의 질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성 있다.
- 청년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8월 33.7%에서 시작하여 2016년 8월 현재 35.4%로 증가하였고, 청년남성보다 매년 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 청년남성과 비정규직 격차가 2015년을 기점으로 1% 미만으로 좁혀지고 있다([그림 4-4]참조).

[표 4-7] 전국 남녀 비정규직 비율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여성	33.7	33.7	35.2	35.4	35.1	35.5	35.6	36.0	35.4	35.4
청년남성	33.2	32.1	32.7	31.5	32.8	31.7	32.2	33.2	34.5	34.5
전체여성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40.2	41.0
전체남성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26.5	26.4

자료: 국가통계포털, 성/연령별/근로형태/비정규직/별/취업자. 각 년도 8월 기준



[그림 4-4] 전국 남녀 비정규직 비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성/연령별/근로형태/비정규직/별/취업자. 각 년도 8월 기준

④ 전국 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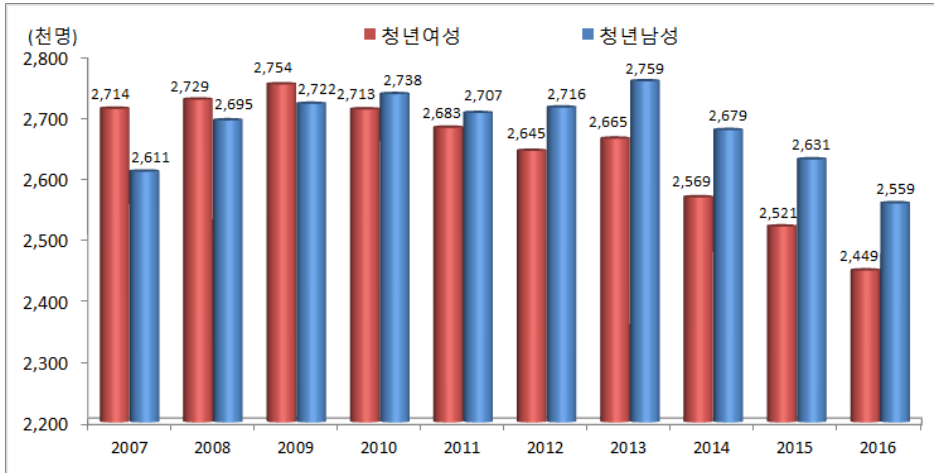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준비, 가사, 통학, 육아, 쉬었음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청년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기준 2,449천명으로 2015년(2,521천명)보다 72천명 감소했다. 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감소로 전환한 후, 2013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최저치(2,449천명)를 기록했다([그림 4-5]참조).
- 2016년 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청년남성과 비교하면 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청년남성 비경제활동인구보다 110천명이 많으며,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청년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추월했다.

[표 4-8] 전국 남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천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여성	2,714	2,729	2,754	2,713	2,683	2,645	2,665	2,569	2,521	2,449
청년남성	2,611	2,695	2,722	2,738	2,707	2,716	2,759	2,679	2,631	2,559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그림 4-5] 전국 남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 대전 청년여성 현황

1) 대전 청년 사회 인구학적 현황

(1) 전국 청년 인구 현황

- 대전시의 청년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310,830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번째 높다. 대전 청년여성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147,010명이며, 청년남성인구는 163,820명으로 청년여성인구가 청년남성인구보다 적다.

- 청년여성인구가 청년남성인구보다 적은 현상은 17개 시도에서도 동일하다. 대전 청년의 성비격차는 전국평균 110.6명보다 높은 11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전국 청년인구 현황(15~29세)

(기준 : 2017년 07월 현재 / 단위 : 명)

행정구역명	전체 청년인구	청년여성 인구	청년남성 인구	성비*
전국	9,826,519	4,665,767	5,160,752	110.6
서울특별시	1,973,775	981,247	992,528	101.1
부산광역시	637,415	301,921	335,494	111.1
대구광역시	485,996	223,168	262,828	117.8
인천광역시	580,146	278,074	302,072	108.6
광주광역시	307,630	147,186	160,444	109.0
대전광역시	310,830	147,010	163,820	111.4
울산광역시	231,638	103,810	127,828	123.1
세종특별자치시	41,947	20,640	21,307	103.2
경기도	2,491,231	1,191,350	1,299,881	109.1
강원도	275,941	123,918	152,023	122.7
충청북도	294,400	135,698	158,702	117.0
충청남도	368,924	171,159	197,765	115.5
전라북도	335,673	157,882	177,791	112.6
전라남도	318,395	147,898	170,497	115.3
경상북도	453,895	204,549	249,346	121.9
경상남도	599,779	273,972	325,807	118.9
제주특별자치도	118,904	56,285	62,619	111.3

주 :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자료: 국가정보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주민등록인구/2017.07.05.

(2) 2008~2017 대전 청년 인구 추이

- 지난 10년간 대전의 청년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336,415명에서 2017년 7월 현재 310,83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청년남성과 청년

여성 두 집단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그림 4-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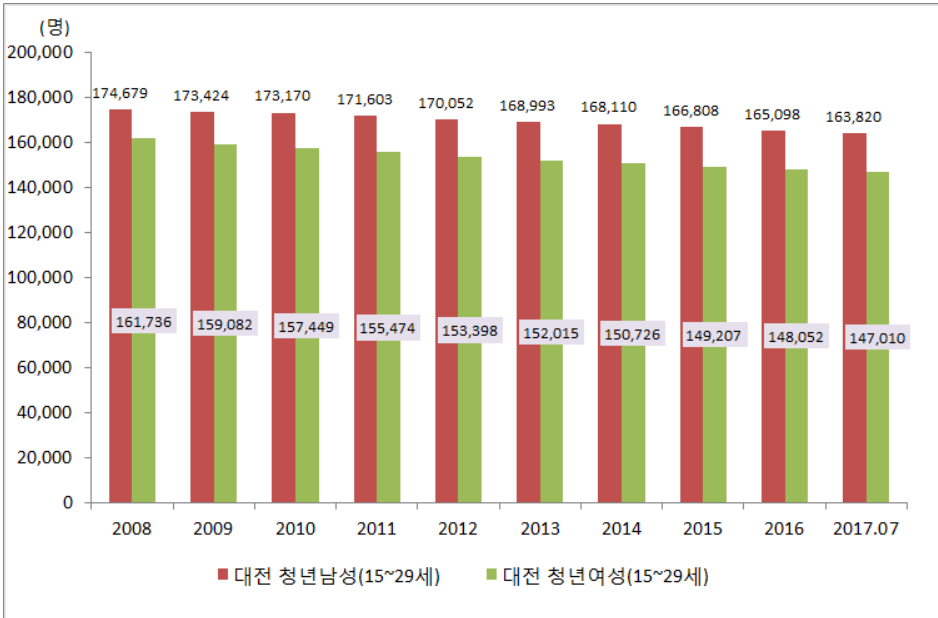
- 대전 청년의 지난 10년간 성비격차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며, 2016년부터 성비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

[표 4-10] 2008~2017 대전 청년인구수 변화

(청년기준 : 15~29세 /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07
청년전체	336,415	332,506	330,619	327,077	323,450	321,008	318,836	316,015	313,150	310,830
청년여성	161,736	159,082	157,449	155,474	153,398	152,015	150,726	149,207	148,052	147,010
청년남성	174,679	173,424	173,170	171,603	170,052	168,993	168,110	166,808	165,098	163,820
성비*	108.0	109.0	110.0	110.4	110.9	111.2	111.5	111.8	111.5	111.4

자료: 국가정보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주민등록인구



[그림 4-6] 2008~2017 대전 청년인구수 변화

주 :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자료: 국가정보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주민등록인구

(3) 대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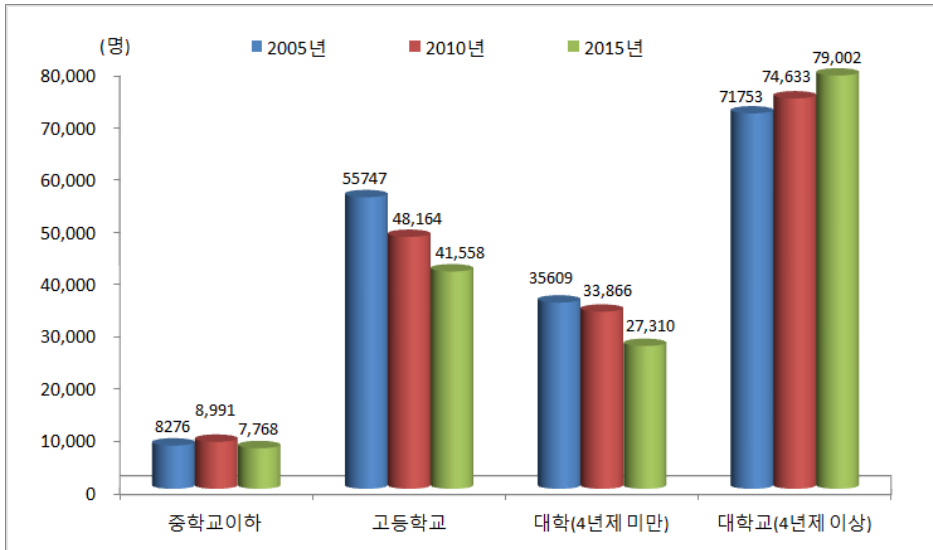
- 대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은 2015년 기준 대학교(4년제)이상 79,00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41,558명, 대학(4년제 미만) 27,310명, 중학교 이하 7,768명 순으로 나타나 고학력 청년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4-11]참조).
- 2005년과 2010년, 2015년을 비교해보면 대전 청년여성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7]참조).

[표 4-11] 대전 청년여성의 교육 수준 변화

(청년기준 : 15~29세 / 단위 : 명)

연도	청년여성 총인구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2005년	171,385	8,276	55,747	35,609	71,753
2010년	165,654	8,991	48,164	33,866	74,633
2015년	155,638	7,768	41,558	27,310	79,002

자료 : 국가정보포털/행정구역/교육정도별/인구/성/연령/2017.07.05.



[그림 4-7] 대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 변화

자료: 국가정보포털/행정구역/교육정도별/인구/성/연령/2017.07.05.

2) 대전 지역 청년고용동향

(1) 대전 청년여성 고용동향

① 대전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대전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50.5%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높아졌다. 2016년의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청년남성(44.0%)과 비교하면 6.5%p 높다. 또한 대전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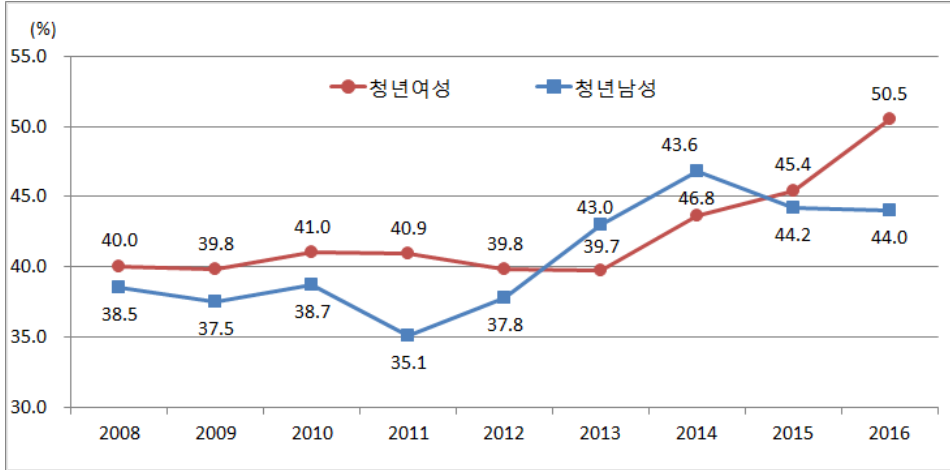
[표 4-12] 대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명, %)

연도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2008	119,689	39.3	62,102	40.0	57,587	38.5
2009	125,304	38.7	65,674	39.8	59,630	37.5
2010	127,588	39.9	66,735	41.0	60,853	38.7
2011	122,782	39.0	68,365	40.9	54,417	35.1
2012	126,382	38.8	65,010	39.8	61,372	37.8
2013	136,902	41.4	65,368	39.7	71,534	43.0
2014	149,539	45.2	72,469	43.6	77,070	46.8
2015	145,293	44.8	72,856	45.4	72,437	44.2
2016	148,764	47.3	80,979	50.5	67,785	44.0

주 : 지역별고용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분석함.

자료 :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8] 대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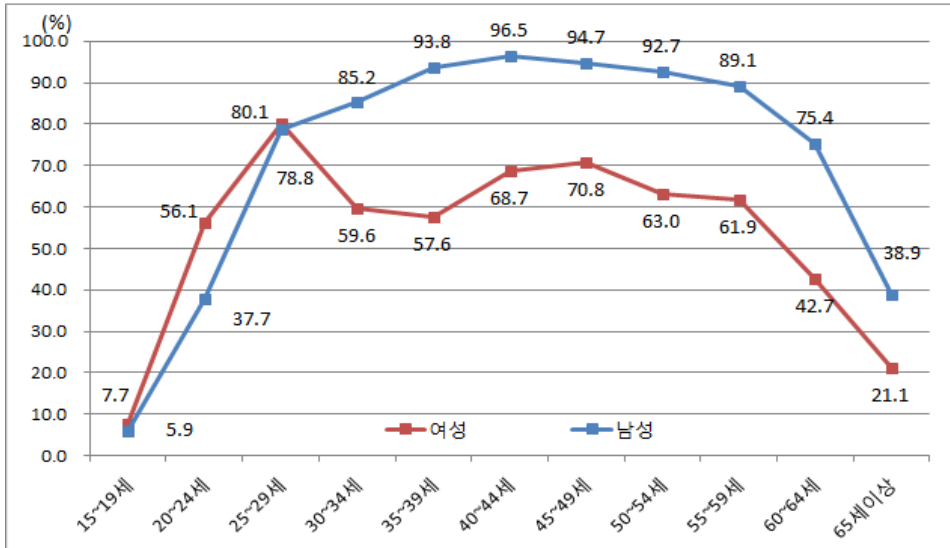
○ 대전 청년여성의 50%가 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를 [그림 4-9]를 통해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 육아의 생애주기를 맞는 30대에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청년남성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대 후반(25~29세)에서는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대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명, %)

구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여성	생산인구	653,919	47,049	56,359	57,055	52,649	56,627	62,368	65,152	58,678	56,756	42,157	99,069
	경활인구	344,924	3,626	31,644	45,709	31,398	32,603	42,836	46,150	36,967	35,104	18,018	20,869
	경활율	52.7	7.7	56.1	80.1	59.6	57.6	68.7	70.8	63.0	61.9	42.7	21.1
남성	생산인구	628,711	48,746	43,759	61,424	57,711	58,378	58,761	63,629	61,792	58,510	40,753	75,248
	경활인구	458,107	2,863	16,507	48,415	49,188	54,738	56,694	60,254	57,260	52,158	30,738	29,292
	경활율	72.9	5.9	37.7	78.8	85.2	93.8	96.5	94.7	92.7	89.1	75.4	38.9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9] 대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② 대전 청년여성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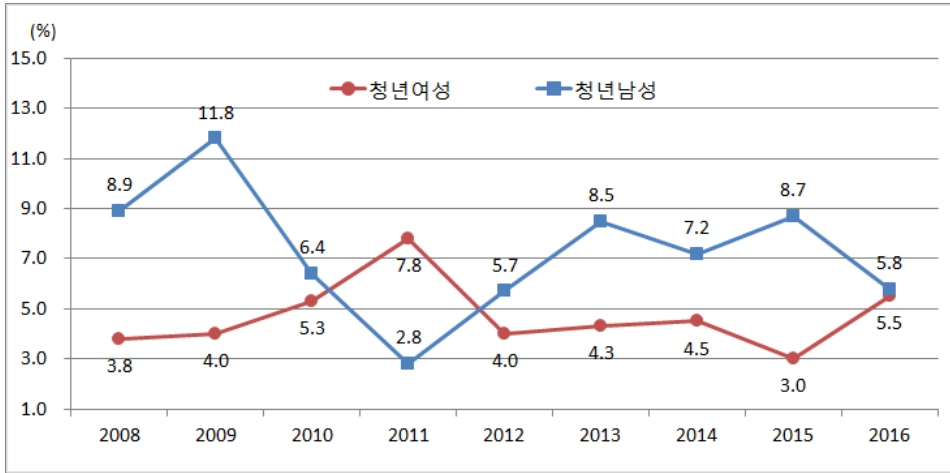
- 대전 청년여성의 실업률은 2016년 기준 5.5%로 2015년보다 2.5%p 증가했다. 청년남성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0.3%p 낮았는데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4-10]참조).

[표 4-14] 대전 청년 실업률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명, %)

연도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2008	7,520	6.3	2,367	3.8	5,153	8.9
2009	9,679	7.7	2,615	4.0	7,064	11.8
2010	7,422	5.8	3,522	5.3	3,900	6.4
2011	6,815	5.6	5,316	7.8	1,499	2.8
2012	6,122	4.8	2,622	4.0	3,500	5.7
2013	8,839	6.5	2,785	4.3	6,054	8.5
2014	8,830	5.9	3,248	4.5	5,582	7.2
2015	8,444	5.8	2,174	3.0	6,270	8.7
2016	8,363	5.6	4,463	5.5	3,900	5.8

자료: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0] 대전 청년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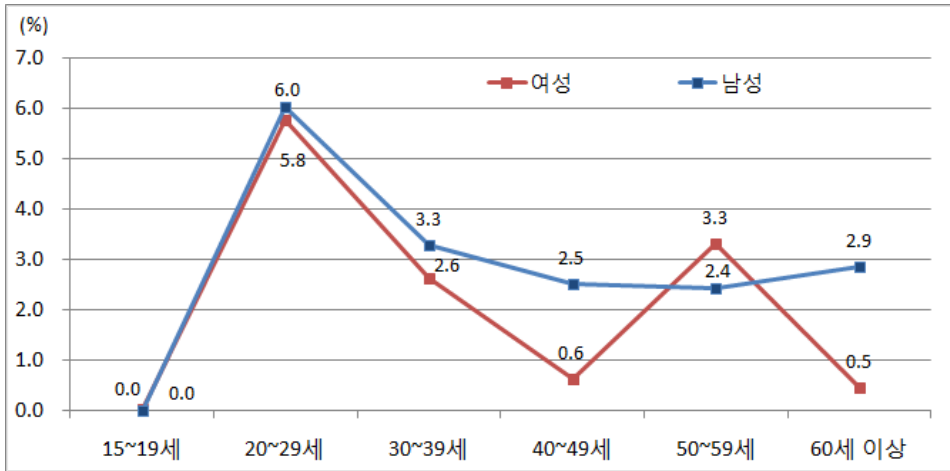
- 대전 20~29세 청년여성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면 가장 높다([그림 4-11]참조).

[표 4-15] 대전 연령별 실업률

(단위 : 명, %)

구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경활인구	344,922	3,626	77,353	64,001	88,986	72,070	38,886
	실업자수	9,258	1	4,462	1,671	561	2,382	181
	실업률	2.7	0.0	5.8	2.6	0.6	3.3	0.5
남성	경활인구	458,108	2,863	64,922	103,927	116,948	109,418	60,030
	실업자수	14,624	0	3,900	3,423	2,932	2,649	1,720
	실업률	3.2	0.0	6.0	3.3	2.5	2.4	2.9

주 : 지역별 고용조사 대전시의 실업자의 표본이 작아, 실업률은 연령을 10년으로 나눔.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1] 대전 연령별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취업을 희망하지만 지난 4주간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실질실업률을 추정하여 보면, **2016년 현재 청년여성의 실질실업률은 14.4%로 공식실업률 5.5%를 훨씬 상회한다**([표 4-16]참조).

[표 4-16] 대전청년 구직 단념자 수 및 실질실업률

(청년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명, %)

실업자 수			실업률			구직 단념자 수			실질실업률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8,363	4,463	3,900	5.6	5.5	5.8	16,220	7,232	8,900	16.5	14.4	18.9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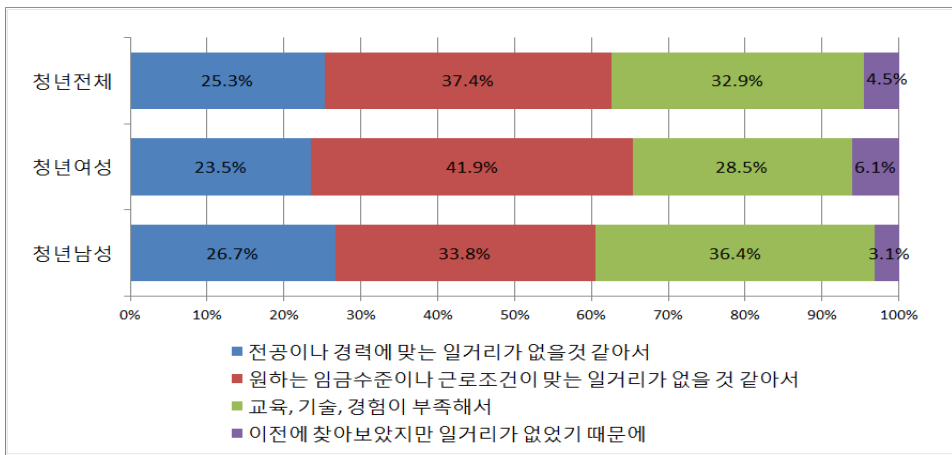
- 2016년 청년여성 비구직 사유를 살펴보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41.9%로 가장 높는데, **청년남성이 가장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대조적이다**([그림 4-12]참조).

[표 4-17] 대전청년 구직단념자의 비구직 사유

(청년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명, %)

구분	청년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101(25.3)	1,698(23.5)	2,403(26.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6,066(37.4)	3,032(41.9)	3,034(33.8)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330(32.9)	2,062(28.5)	3,268(36.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23(4.5)	440(6.1)	283(3.1)
전체	16,220(100.0)	7,232(100.0)	8,988(100.0)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2] 대전 청년 구직단념자의 비구직 사유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청년여성의 실질실업률을 다른 연령대의 여성 집단과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실질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15~19세 청년 여성의 실질실업률이 15.5%로 공식실업률이 0.0%였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데, 이는 10대 후반 여성취업이 쉽지 않아 구직을 포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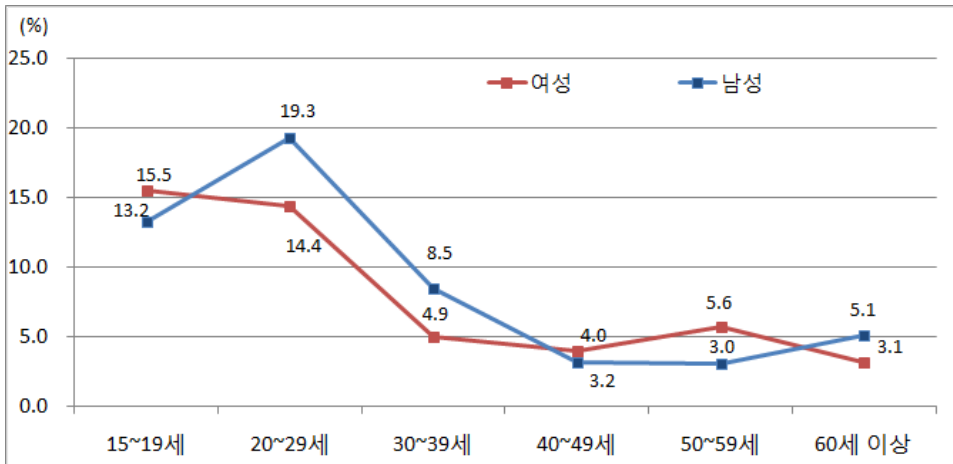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4-13]참조).

[표 4-18] 대전 연령별 실질 실업률

(청년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명, %)

구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	344,922	3,626	77,353	64,001	88,986	72,070	38,886
	실업자수	9,258	1	4,462	1,671	561	2,382	181
	구직단념자수	14430	561	6671	1496	2982	1689	1031
	실질실업률	6.9	15.5	14.4	4.9	4.0	5.6	3.1
남성	경제활동인구	458,108	2,863	64,922	103,927	116,948	109,418	60,030
	실업자수	14,624	0	3,900	3,423	2,932	2,649	1,720
	구직단념자수	17154	378	8611	5409	756	658	1342
	실질실업률	6.9	13.2	19.3	8.5	3.2	3.0	5.1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3] 대전 연령별 실질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③ 대전 청년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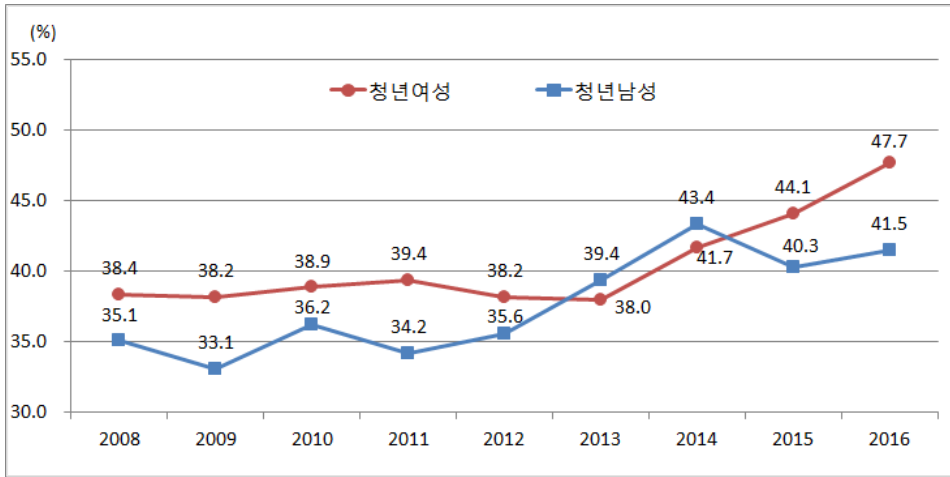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한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실질적인 청년고용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 대전청년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현재 47.7%로 2010년 이후 최고치이지만,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청년남성(41.5%)와 비교하면 6.2%p 높은 편이다([그림 4-14]참조).

[표 4-19] 대전 청년 고용률

(청년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명, %)

연도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2008	112,169	36.8	59,735	38.4	52,434	35.1
2009	115,625	35.7	63,059	38.2	52,566	33.1
2010	120,166	37.5	63,213	38.9	56,953	36.2
2011	115,967	36.8	63,049	39.4	52,918	34.2
2012	120,260	36.9	62,388	38.2	57,872	35.6
2013	128,063	38.7	62,583	38.0	65,480	39.4
2014	140,709	42.5	69,221	41.7	71,488	43.4
2015	136,849	42.2	70,682	44.1	66,167	40.3
2016	140,401	44.7	76,516	47.7	63,885	41.5

자료: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4] 대전 청년 고용률

자료: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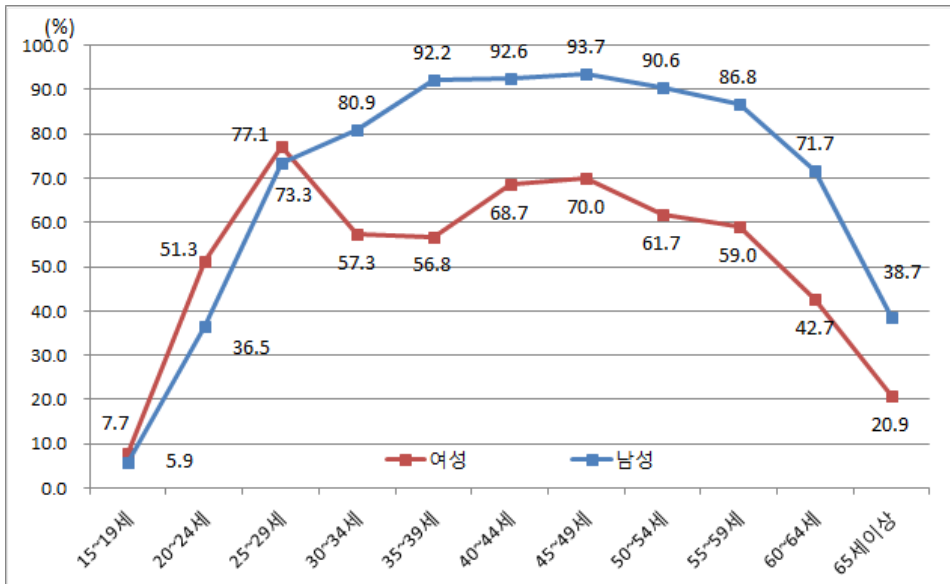
- 대전 청년여성의 고용률을 [그림 4-15]를 통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20대 후반 77.1%에 달하는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30대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전 청년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15~19세 7.7%, 20~24세 51.3%, 25~29세 77.1%를 나타내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그림 4-15]참조).

[표 4-20] 대전 연령별 고용률

(단위 : 명, %)

구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여성	생산인구	653,918	47,049	56,359	57,055	52,649	56,627	62,368	65,152	58,678	56,755	42,157	99,069
	취업자수	335,665	3,625	28,910	43,981	30,147	32,183	42,836	45,589	36,207	33,481	18,018	20,688
	고용률	51.3	7.7	51.3	77.1	57.3	56.8	68.7	70.0	61.7	59.0	42.7	20.9
남성	생산인구	628,711	48,746	43,759	61,424	57,711	58,378	58,761	63,629	61,792	58,510	40,753	75,248
	취업자수	443,482	2,863	15,981	45,041	46,698	53,805	54,426	59,590	55,994	50,774	29,220	29,090
	고용률	70.5	5.9	36.5	73.3	80.9	92.2	92.6	93.7	90.6	86.8	71.7	38.7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5] 대전 연령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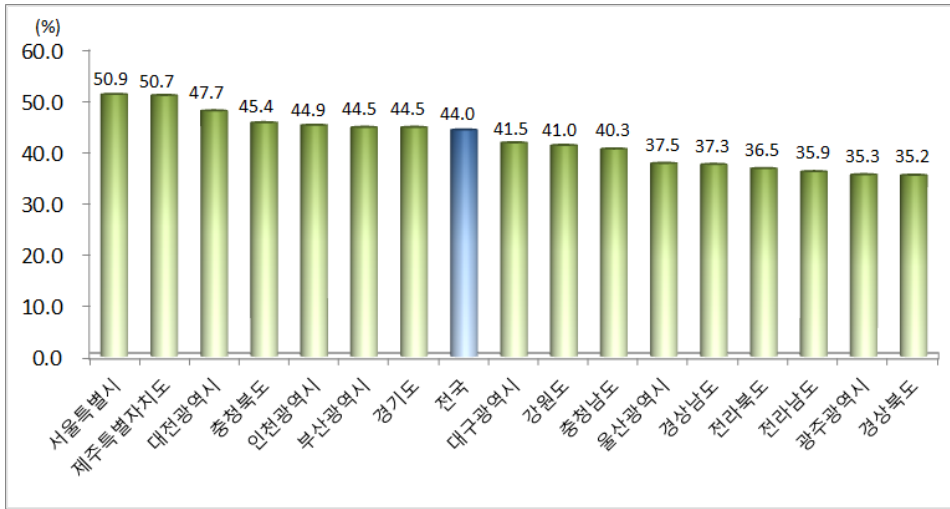
- 2016년 대전 청년여성의 고용률을 전국 16개 시도 청년여성의 고용률과 비교해보면,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나며, 전국 평균 44.0%보다 3.7%p 높게 나타난다([그림 4-16]참조).

[표 4-21] 전국 청년 고용률

(단위 : 명, %)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고용률
전국	42.4	4,702,246	2,067,436	44.0	4,697,940	1,914,421	40.8
서울특별시	46.1	1,024,782	521,706	50.9	887,449	359,763	40.5
부산광역시	42.1	306,057	136,321	44.5	303,343	120,111	39.6
대구광역시	38.0	224,534	93,272	41.5	228,746	78,925	34.5
인천광역시	45.3	266,023	119,473	44.9	279,573	127,608	45.6
광주광역시	34.5	152,065	53,741	35.3	155,636	52,283	33.6
대전광역시	44.7	160,462	76,516	47.7	153,929	63,885	41.5
울산광역시	37.3	96,173	36,101	37.5	112,131	41,650	37.1
경기도	43.7	1,182,568	526,219	44.5	1,197,334	513,380	42.9
강원도	36.3	128,034	52,534	41.0	130,984	41,368	31.6
충청북도	43.0	144,094	65,440	45.4	145,679	59,060	40.5
충청남도	45.2	211,832	85,442	40.3	216,689	108,196	49.9
전라북도	35.3	154,790	56,505	36.5	159,218	54,275	34.1
전라남도	33.9	133,794	48,054	35.9	137,478	43,805	31.9
경상북도	39.1	206,646	72,807	35.2	234,916	99,960	42.6
경상남도	39.9	253,303	94,377	37.3	300,065	126,389	42.1
제주특별자치도	47.1	57,089	28,928	50.7	54,770	23,763	43.4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6] 전국 청년여성 고용률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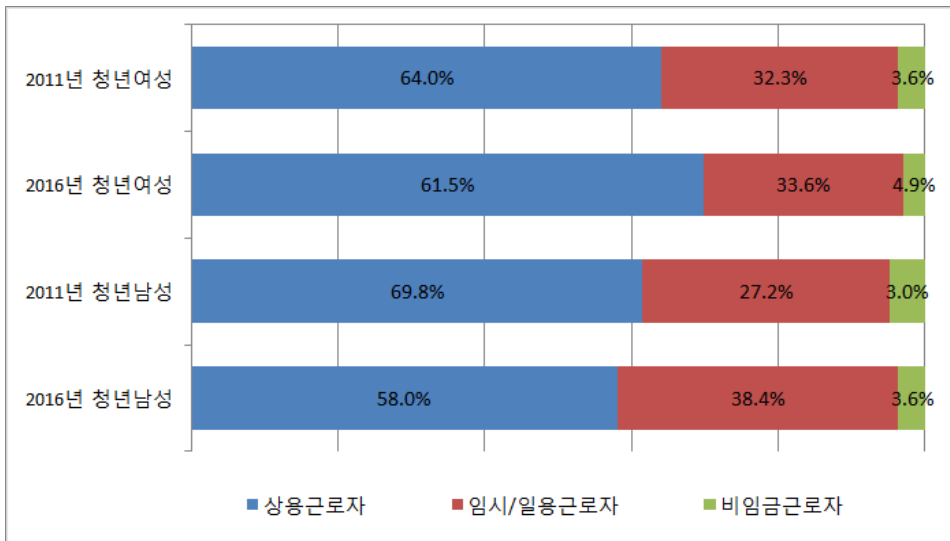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대전 청년여성의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69.8%(53,384명), 임시/일용 근로자 27.2%(20,847명), 비임금근로자 3.0%(2,285명)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청년남성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는 11.8%p 높고, 임시/일용 근로자 11.2%p 낮고, 비임금근로자도 0.6%p 낮다([표 4-22]참조).
- 2011년과 2016년 청년여성의 종사상지위와 비교해보면 청년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5.8%p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5.1%p 감소하고 비임금 근로자는 0.6%p 감소했다([그림 4-17]참조).

[표 4-22] 대전 청년 종사상지위의 변동

(청년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명, %)

	2011년				2016년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청년 여성	63,048 (100.0)	40,381 (64.0)	20,383 (32.3)	2,284 (3.6)	76,516 (100.0)	53,384 (69.8)	20,847 (27.2)	2,285 (3.0)
청년 남성	52,917 (100.0)	32,534 (61.5)	17,774 (33.6)	2,609 (4.9)	63,885 (100.0)	37,024 (58.0)	24,540 (38.4)	2,321 (3.6)
청년 전체	115,965 (100.0)	72,915 (62.9)	38,157 (32.9)	4,893 (4.2)	140,401 (100.0)	90,408 (64.4)	45,387 (32.3)	4,606 (3.3)

자료: 통계청.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7] 대전 청년 종사상지위의 변동

자료: 통계청.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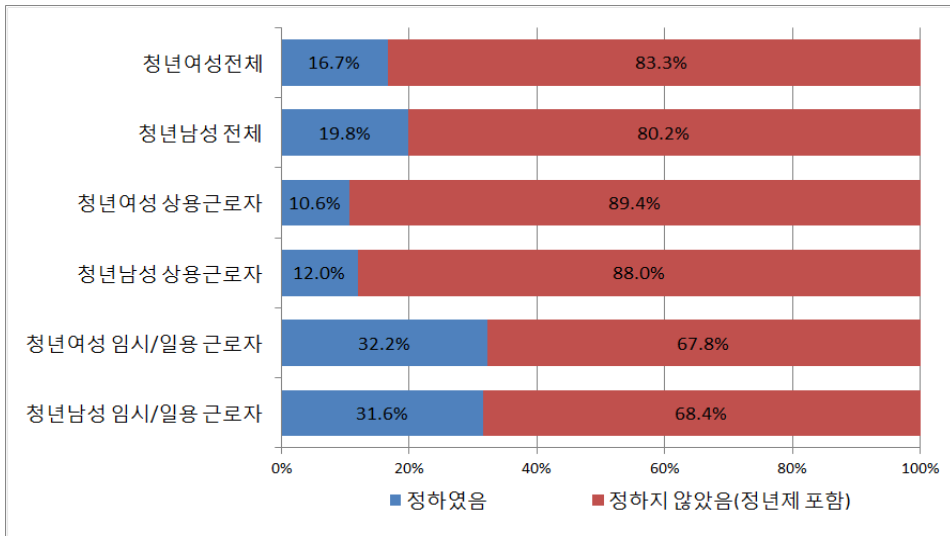
- 2016년 대전 청년여성의 고용계약 정함 여부를 살펴보면, 청년여성 상용근로자 중 89.4%는 정년제인 반면 10.6%는 고용계약을 하였다. 임시/일용 근로자 중 67.8%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였으며, 32.2%는 고용계약을 하였다([그림 4-18]참조).

[표 4-23] 대전 청년 고용 계약 정합 여부

(청년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명, %)

구 분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정년제 포함)	전체
청년 전체	상용근로자	10,124(11.2)	80,284(88.8)	90,408(100.0)
	임시/일용 근로자	14,464(31.9)	30,923(68.1)	45,387(100.0)
	전체	24,588(18.1)	111,207(81.9)	135,795(100.0)
청년 여성	상용근로자	5,676(10.6)	47,708(89.4)	53,384(100.0)
	임시/일용 근로자	6,720(32.2)	14,126(67.8)	20,846(100.0)
	전체	12,396(16.7)	61,834(83.3)	74,230(100.0)
청년 남성	상용근로자	4,449(12.0)	32,575(88.0)	37,024(100.0)
	임시/일용 근로자	7,744(31.6)	16,796(68.4)	24,540(100.0)
	전체	12,193(19.8)	49,371(80.2)	61,564(100.0)

자료: 통계청.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8] 대전 청년 고용 계약 정합 여부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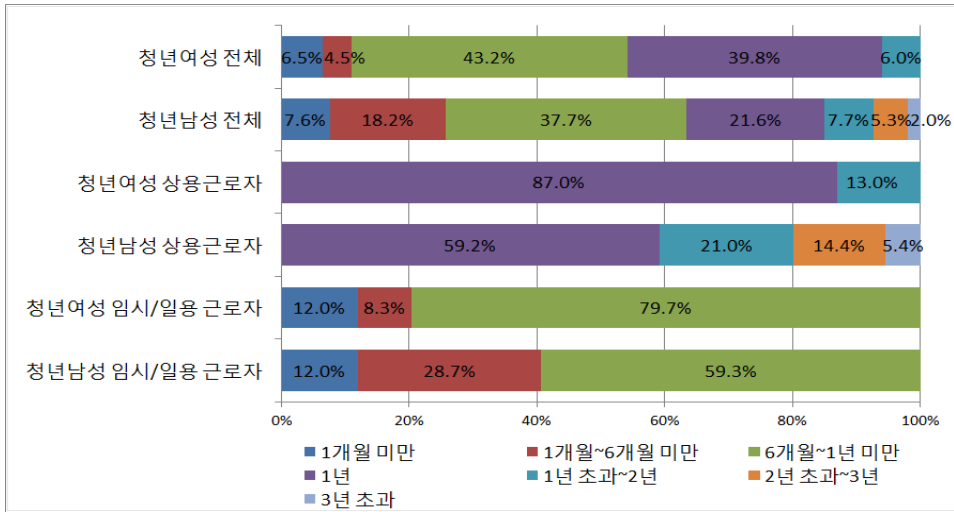
- 2016년 대전 청년여성의 고용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1년이 87.0%로 가장 비중이 크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6개월~1년 미만이 79.7%로 가장 비중이 컸다([그림 4-19]참조).

[표 4-24] 대전 청년 고용 계약 기간

(청년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명,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2년	2년 초과 ~3년	3년 초과	전체
청년 전체	상용 근로자	0 (0.0)	0 (0.0)	0 (0.0)	7,567 (74.7)	1,675 (16.5)	642 (6.3)	240 (2.4)	10,124 (100.0)
	임시/일용 근로자	1,740 (12.0)	2,780 (19.2)	9,945 (68.8)	0 (0.0)	0 (0.0)	0 (0.0)	0 (0.0)	14,465 (100.0)
	전체 근로자	1,740 (7.1)	2,780 (11.3)	9,945 (40.4)	7,567 (30.8)	1,675 (6.8)	642 (2.6)	240 (1.0)	24,589 (100.0)
청년 여성	상용 근로자	0 (0.0)	0 (0.0)	0 (0.0)	4,936 (87.0)	740 (13.0)	0 (0.0)	0 (0.0)	5,676 (100.0)
	임시/일용 근로자	809 (12.0)	558 (8.3)	5,353 (79.7)	0 (0.0)	0 (0.0)	0 (0.0)	0 (0.0)	6,720 (100.0)
	전체 근로자	809 (6.5)	558 (4.5)	5,353 (43.2)	4,936 (39.8)	740 (6.0)	0 (0.0)	0 (0.0)	12,396 (100.0)
청년 남성	상용 근로자	0 (0.0)	0 (0.0)	0 (0.0)	2,631 (59.2)	935 (21.0)	642 (14.4)	240 (5.4)	4,448 (100.0)
	임시/일용 근로자	931 (12.0)	2,222 (28.7)	4,592 (59.3)	0 (0.0)	0 (0.0)	0 (0.0)	0 (0.0)	7,745 (100.0)
	전체 근로자	931 (7.6)	2,222 (18.2)	4,592 (37.7)	2,631 (21.6)	935 (7.7)	642 (5.3)	240 (2.0)	12,193 (100.0)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19] 대전 청년 고용 계약 기간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대전청년의 청년여성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6년 대전 청년여성의 월평균임금은 166만원으로 2011년 월평균 임금 135만원 보다 31만원 증가했다. 청년남성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20만원 적은 상태다([표 4-25]참조).
-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2011년 성별임금격차는 30만원, 2016년 남녀임금격차는 20만원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임금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여성의 연령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5~19세 109만원, 20~24세 140만원, 25~29세 187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연령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15~19세는 16만원, 20~24세 5만원, 25~29세 24만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대 후반(25~29세)의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4-25]참조).

[표 4-25] 대전 청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기준 : 15세 - 29세 / 단위 : 만원, 명)

구분		청년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평균	빈도	표준 편차	평균	빈도	표준 편차	평균	빈도	표준 편차
2011년	15~29세	149	111,073	64.8	135	60,764	54.9	165	50,309	71.8
	15~19세	79	5,199	60.4	72	3,319	49.1	93	1,879	74.5
	20~24세	122	33,248	53.1	119	20,815	51.2	126	12,433	55.9
	25~29세	166	72,627	62.5	150	36,630	50.6	182	35,996	69.1
2016년	15~29세	175	135,795	80.2	166	74,231	70.5	186	61,565	89.3
	15~19세	102	6,488	58.9	109	3,625	66.7	93	2,863	45.8
	20~24세	138	44,109	66.0	140	28,314	63.5	135	15,795	70.1
	25~29세	199	85,199	77.9	187	42,292	66.9	211	42,907	85.8

자료: 통계청.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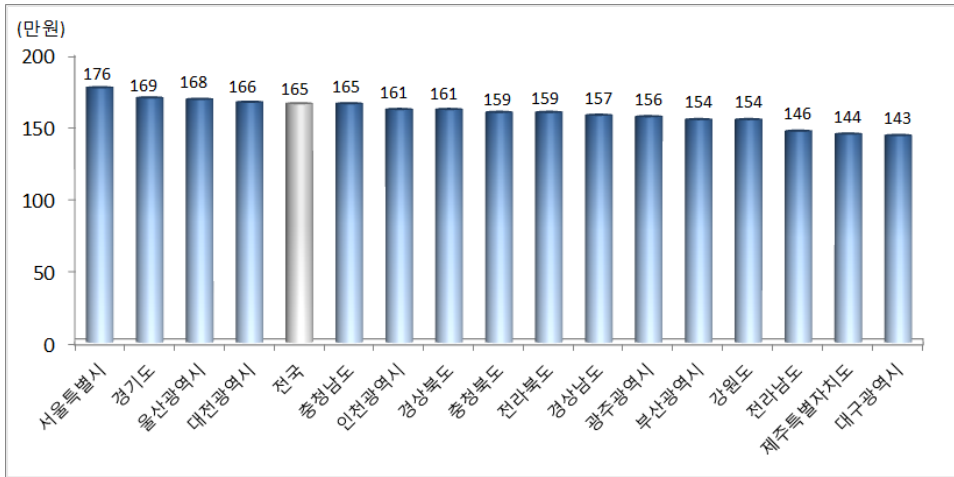
- 2016년 대전 청년여성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전국 16개 시도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과 비교해보면, 16개 시도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나며, 전국 평균 165만원보다 1만원 많다([표 4-26]참조).
- 2016년 대전 청년의 남녀임금비는 89.0%로 16개 시도 중 10번째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격차가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 대전 청년여성의 20대 후반(25~29세)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월평균임금은 187만원이며 청년남성 월평균 임금 211만원보다 24만원 적다.

[표 4-26] 전국 청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

구분	15~29세				25~29세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남녀 임금비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남녀 임금비
전국	173	165	182	90.3	201	192	209	91.7
서울특별시	179	176	183	95.7	210	207	214	96.8
부산광역시	158	154	162	94.7	180	178	182	97.4
대구광역시	153	143	164	87.6	180	170	190	89.4
인천광역시	172	161	181	89.2	203	189	215	88.2
광주광역시	158	156	161	96.3	185	182	188	96.4
대전광역시	175	166	186	89.0	199	187	211	88.9
울산광역시	197	168	222	75.8	227	198	243	81.6
경기도	178	169	188	90.2	207	196	216	91.0
강원도	158	154	164	94.4	186	177	197	89.8
충청북도	174	159	191	83.5	193	176	206	85.6
충청남도	176	165	185	89.2	203	190	212	89.6
전라북도	168	159	178	89.3	192	183	200	91.4
전라남도	163	146	183	79.7	193	166	212	78.3
경상북도	173	161	182	88.2	195	182	205	88.8
경상남도	176	157	190	82.6	202	178	216	82.3
제주특별 자치도	150	144	158	90.7	182	175	188	93.1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20] 전국 청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2016년 현재 청년여성의 산업별 일자리를 살펴보면, 청년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20.2%(15,429명)가장 높고, 2011년은 교육 서비스업 비중이 18.3%(11,564명)으로 가장 높았다.

[표 4-27] 대전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일자리 변동

(기준 : 15-29세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6년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전체	115,967 (100.0)	63,049 (100.0)	52,918 (100.0)	140,402 (100.0)	76,516 (100.0)	63,886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0 (0.0)	0 (0.0)	0 (0.0)	402 (0.3)	0 (0.0)	402 (0.6)
제조업	12,517 (10.8)	3,767 (6.0)	8,750 (16.5)	13,379 (9.5)	3,404 (4.4)	9,975 (15.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75 (0.4)	0 (0.0)	475 (0.9)	321 (0.2)	321 (0.4)	0 (0.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0)	0 (0.0)	0 (0.0)	286 (0.2)	0 (0.0)	286 (0.4)

구분	2011년			2016년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전체	청년 여성	청년 남성
건설업	4,076 (3.5)	1,686 (2.7)	2,390 (4.5)	4,317 (3.1)	1,247 (1.6)	3,070 (4.8)
도매 및 소매업	15,404 (13.3)	6,800 (10.8)	8,604 (16.3)	20,329 (14.5)	6,906 (9.0)	13,423 (21.0)
운수업	1,515 (1.3)	279 (0.4)	1,236 (2.3)	3,128 (2.2)	1,078 (1.4)	2,050 (3.2)
숙박 및 음식점업	11,814 (10.2)	5,455 (8.7)	6,359 (12.0)	18,440 (13.1)	9,760 (12.8)	8,680 (1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12 (3.6)	1,459 (2.3)	2,753 (5.2)	7,124 (5.1)	2,455 (3.2)	4,669 (7.3)
금융 및 보험업	5,013 (4.3)	2,430 (3.9)	2,583 (4.9)	3,513 (2.5)	2,386 (3.1)	1,127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72 (1.0)	931 (1.5)	241 (0.5)	764 (0.5)	0 (0.0)	764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903 (9.4)	6,018 (9.5)	4,885 (9.2)	12,540 (8.9)	8,320 (10.9)	4,220 (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174 (6.2)	3,706 (5.9)	3,468 (6.6)	5,470 (3.9)	3,973 (5.2)	1,497 (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11 (2.2)	815 (1.3)	1,696 (3.2)	4,090 (2.9)	2,374 (3.1)	1,716 (2.7)
교육 서비스업	14,485 (12.5)	11,564 (18.3)	2,921 (5.5)	18,799 (13.4)	13,882 (18.1)	4,917 (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004 (12.1)	11,486 (18.2)	2,518 (4.8)	19,856 (14.1)	15,429 (20.2)	4,427 (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58 (2.7)	1,667 (2.6)	1,491 (2.8)	3,136 (2.2)	1,385 (1.8)	1,751 (2.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34 (6.5)	4,986 (7.9)	2,548 (4.8)	4,508 (3.2)	3,596 (4.7)	912 (1.4)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원자료

-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순위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2011년 2016년 1,2순위는 청년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남성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표 4-28]참조).

- 청년여성의 산업의 일자리 순위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은 특기할만한데, 취업의 어려움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에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8] 대전 청년 취업자의 종사 산업의 순위별 일자리 변동(1~5순위)

(단위 : %)

구분	2011년		2016년	
	청년여성	청년남성	청년여성	청년남성
1순위	교육 서비스업 (18.3)	제조업 (1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	도매 및 소매업 (21.0)
2순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2)	도매 및 소매업 (16.3)	교육 서비스업 (18.1)	제조업 (15.6)
3순위	도매 및 소매업 (10.8)	숙박 및 음식점업 (12.0)	숙박 및 음식점업 (12.8)	숙박 및 음식점업 (13.6)
4순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9)	교육 서비스업 (7.7)
5순위	숙박 및 음식점업 (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6)	도매 및 소매업 (9.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원자료

- 2016년 기준 대전 청년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일자리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관리직(41.9%)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종사자(31.3%), 서비스 종사자(13.5%), 판매종사자(8.1%), 단순노무종사자(2.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0.9%)순이다.

[표 4-29] 대전 청년 취업자의 직종별 일자리 변동

(청년기준 : 15-29세 /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6년		
	청년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청년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115,967 (100.0)	63,049 (100.0)	52,918 (100.0)	140,401 (100.0)	76,515 (100.0)	63,886 (100.0)
전문가·관리직	39,837 (34.4)	24,797 (39.3)	15,040 (28.4)	48,645 (34.6)	32,090 (41.9)	16,555 (25.9)
사무 종사자	29,055 (25.1)	22,006 (34.9)	7,049 (13.3)	35,765 (25.5)	23,917 (31.3)	11,848 (18.5)
서비스 종사자	13,804 (11.9)	7,502 (11.9)	6,302 (11.9)	18,514 (13.2)	10,292 (13.5)	8,222 (12.9)
판매 종사자	12,149 (10.5)	6,329 (10.0)	5,820 (11.0)	16,127 (11.5)	6,165 (8.1)	9,962 (15.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0 (0.0)	0 (0.0)	94 (0.1)	0 (0.0)	94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904 (6.0)	242 (0.4)	6,662 (12.6)	3,708 (2.6)	724 (0.9)	2,984 (4.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777 (6.7)	1,135 (1.8)	6,642 (12.6)	6,057 (4.3)	1,242 (1.6)	4,815 (7.5)
단순노무 종사자	6,441 (5.6)	1,038 (1.6)	5,403 (10.2)	11,491 (8.2)	2,085 (2.7)	9,406 (14.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원자료

- 청년여성의 직종은 2011년과 2016년 모두 전문가·관리직,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에 80%이상 몰려있어 직종 선택의 범위가 남성보다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4-30]참조).

[표 4-30] 대전 청년 취업자의 직종별 순위별 일자리 변동(1~3순위)

(단위 : %)

구분	2011년		2016년	
	청년여성	청년남성	청년여성	청년남성
1순위	전문가·관리직 (39.3)	전문가·관리직 (28.4)	전문가·관리직 (41.9)	전문가·관리직 (25.9)
2순위	사무 종사자 (34.9)	사무 종사자 (13.3)	사무 종사자 (31.3)	사무 종사자 (18.5)
3순위	서비스 종사자 (1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6)	서비스 종사자 (13.5)	판매 종사자 (15.6)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1년 3분기, 2016년 하반기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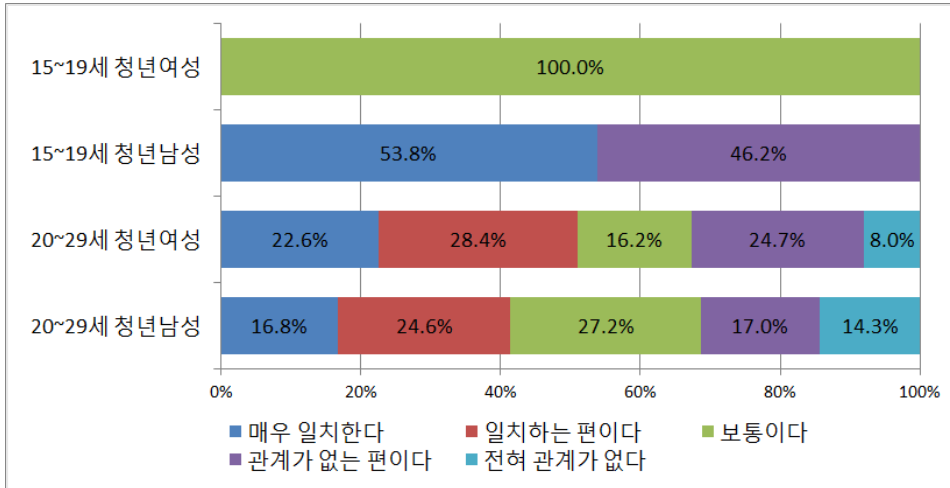
- 2016년 대전 청년여성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를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0%으로 청년남성(‘매우 일치한다’ 53.8%, ‘관계가 없는 편이다’ 46.2%)과 대조를 이룬다.
- 20~29세 청년여성의 경우 ‘일치한다’ 는 응답 비율이 51.0%(매우 일치한다 22.6%, 일치하는 편이다 28.4%), ‘불일치한다’ 는 응답 비율이 32.7%(관계가 없는 편이다 24.7%, 전혀 관계가 없다 8.0%)로 일치하는 비율이 불일치한다는 응답보다 18.3%p 높았다([그림 4-21]참조).

[표 4-31] 대전 청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

구분		매우 일치한다	일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관계가 없는 편이다	전혀 관계가 없다
청년 전체	15~19세	46.0	0.0	14.5	39.5	0.0
	20~29세	20.0	26.7	21.1	21.3	10.8
청년 여성	15~19세	0.0	0.0	100.0	0.0	0.0
	20~29세	22.6	28.4	16.2	24.7	8.0
청년 남성	15~19세	53.8	0.0	0.0	46.2	0.0
	20~29세	16.8	24.6	27.2	17.0	14.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 성인지 통계 DB」



[그림 4-21] 대전 청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 성인지 통계 DB」

④ 대전 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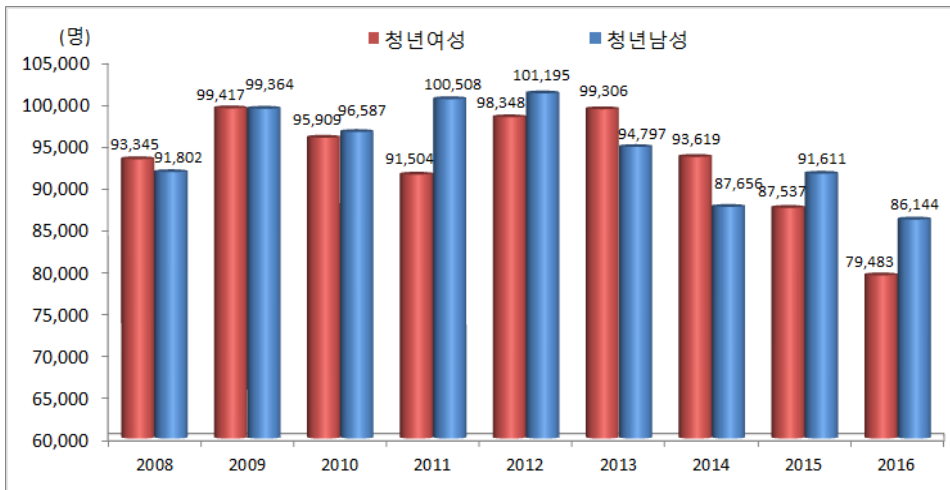
- 대전 청년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기준 79,483명으로 2015년 (87,537명)보다 8,054명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동향을 보면 2013년 최고치(99,306명)를 기록한 후 점차 급격히 감소하며, 2016년 최저치 (79,483명)를 기록했다. 2016년 현재 대전 청년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청년남성과 비교하면 청년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6,661명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2] 대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기준 : 15~29세 / 단위 : 명)

연도	청년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2008	185,147	93,345	91,802
2009	198,781	99,417	99,364
2010	192,496	95,909	96,587
2011	192,012	91,504	100,508
2012	199,543	98,348	101,195
2013	194,103	99,306	94,797
2014	181,275	93,619	87,656
2015	179,148	87,537	91,611
2016	165,627	79,483	86,144

자료: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22] 대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2008~2010년,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하는 여성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연령구간에서는 비중이 낮지만 30~34세에 들어 86.1%, 35세 이상부터 60~64세까지 90%이상을 상회하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년층 육아+가사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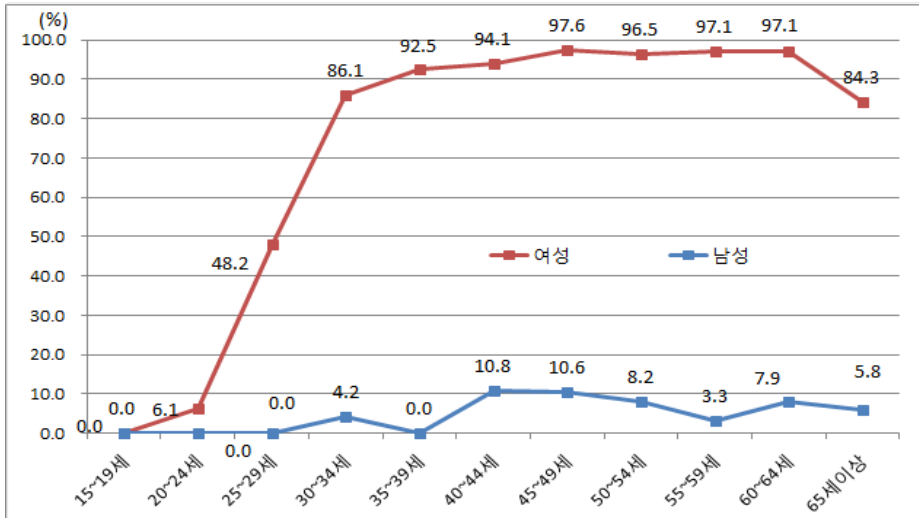
연령구간별로 세분화 해보면, 20~24세는 6.1%에 불과한 반면 25~29세는 48.2%를 차지한다.

[표 4-33] 대전 연령별*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인구

(단위 : 명, %)

	여성			남성
	육아	가사	육아+가사	가사
전체	38,360(12.4)	177,390(57.4)	215,750(69.8)	4,996(2.9)
15~19세	0(0.0)	0(0.0)	0(0.0)	0(0.0)
20~24세	1,204(4.9)	314(1.3)	1,518(6.1)	0(0.0)
25~29세	3,465(30.5)	2,005(17.7)	5,470(48.2)	0(0.0)
30~34세	14,795(69.6)	3,508(16.5)	18,303(86.1)	356(4.2)
35~39세	14,515(60.4)	7,712(32.1)	22,227(92.5)	0(0.0)
40~44세	2,713(13.9)	15,667(80.2)	18,380(94.1)	224(10.8)
45~49세	681(3.6)	17,865(94.0)	18,546(97.6)	357(10.6)
50~54세	507(2.3)	20,441(94.2)	20,948(96.5)	370(8.2)
55~59세	0(0.0)	21,027(97.1)	21,027(97.1)	209(3.3)
60~64세	246(1.0)	23,197(96.1)	23,443(97.1)	795(7.9)
65세 이상	234(0.3)	65,654(84.0)	65,888(84.3)	2,685(5.8)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23] 대전 연령별*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인구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3. 대전 청년여성의 특성

- 대전지역 청년인구(통계청 기준 15~29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 6개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4번째로 많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고학력인구는 높아지고 있다.
-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0.5%로 청년 남성비율 44.0%보다 6.5%로 높다.
-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청년여성의 경우 20세에서 24세까지 56.1%, 25세에서 29세까지 80.1%를 차지하던 비율은 30대로 접어들면 50%대로 떨어진다.
- 2016년 대전 청년여성의 실업률은 2015년보다 2.5%로 증가한 5.5%이며, 타연령대와 비교해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높다.
- 한편 지난 4주간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실질실업률을 추정하면, 2016년 청년여성의 실질실업률은 14.4%로 공식실업률과의 큰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 청년여성의 비구직 첫 번째 이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인 반면 청년남성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비구직의 이유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47.7%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69.8%, 임시/일용근로자가 27.2%로, 비임금근로자 3.0%로 상용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상용근로자라도 1년 계약자가 74.7%를 나타내어 상용근로자

또한 대부분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불안정고용 상태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여성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가 87%, 1년에서 2년 사이가 13%로 대전지역 청년여성 상용근로자가 2년 이내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현황은 비정규직 비율이 34.9%(전국 32.8%)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주거빈곤율(14㎡이하 거주)도 25.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장 대전지역 청년여성 심층면접 결과

- 1절. 조사개요
- 2절. 조사결과
- 3절. 시사점

5장 대전지역 청년여성 심층면접 결과

1절. 조사개요

-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과 창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 심층면접은 4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3명에 대해 이뤄졌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고 있는 여성 6명,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15명 총 21명을 심층 면접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대조군으로 창업남성 1명, 취업준비남성 1명을 심층 면접했다.
- 심층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최대한 여성내부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연령대로는 20대와 30대를, 국립대와 사립대의 비율, 대전출신자와 타지역 출신자 등을 골고루 선정하려 했다.
- 그러나, 본 연구가 선택한 스노우볼샘플링 방식으로는 청년여성의 다양성을 기대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스노우볼샘플링(snowball sampling)은 심층면접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소개의 소개를 받아 연구 참여자를 늘려나가는 비확률적 샘플링(non-probability sampling)이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여성 2명을 다른 대학교 출신 두 명에게 소개를 받아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이들을 통해 다시 취업준비생을 소개받는 방식을 취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을 소개받는 것이 쉬웠던 반면에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창업과 관련된 청년여성은 미용학과가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고, 나머지는 알음알음을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대는 청년여성이 주제인 만큼 20대가 17명, 30대가 3명, 40대가 1명이다. 남성은 20대와 30대가 각 1명이다.
- 여성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은 3명, 대학 중태가 1명이며,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는 2명, 나머지는 대학교에 재학, 휴학, 혹은 졸업유예, 졸업인 상태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두 명의 남성 가운데, 창업자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준비생은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 21명의 심층면접 참여 여성 가운데, 대전이 고향인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타 지역에서 온 여성들은 대부분 혼자 자취를 하거나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 심층면접자를 소개받는 과정, 그리고 연구의 취지를 소개하고 인터뷰를 동의 받는 과정, 인터뷰일정과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인터뷰는 4월말부터 7월말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
- 인터뷰 주요 내용
 - 심리와 건강, 경제 상황
 - 취업과 창업을 위한 준비 현황(일자리 정보 취득과정, 창업에 대한 정보획득 방식, 취업 및 창업 준비 과정, 어려운 점 등)
 - 취업조건(희망하는 급여와 지역, 복지)
 - 미래에 대한 기획(10년 후 나의 모습, 일, 결혼과 출산 등)
 -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어려운 점
 - 취업 및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역할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 개요

번호	면접참여자	학력	나이	동거인	부모님 거주지
1	취업준비1	대학 휴학	20대 후반	1인 가구	계룡
2	취업준비2	대학재	20대 전반	1인 가구	경기
3	취업준비3	대학재	20대 전반	부모	대전
4	취업준비4	대학원재	20대 후반	부모	대전
5	취업준비5	고졸	20대 전반	부모님	대전
6	취업준비6	대학원졸	20대 후반	선배	경기도
7	취업준비7	대졸	20대 전반	1인 가구	서울
8	취업준비8	고졸	30대 전반	1인 가구	보령
9	취업준비9	졸업유예	20대 전반	1인 가구	구미
10	창업 1	대졸	30대 전반	1인 가구	계룡
11	창업 2	대학중퇴	30대 전반	남편, 자녀	대전
12	취업준비 10	대졸	20대 후반	부모, 동생	대전
13	취업준비 11	대졸	20대 전반	1인 가구	서울
14	취업준비 12	대학휴학	20대 전반	1인 가구	경북
15	취업준비 13	대졸	20대 전반	부모	대전
16	창업 3	고졸	40대 전반	자녀, 남편	서울
17	창업 4	대졸	20대 후반	친구	대전
18	창업 5	대졸	20대 후반	친구	경기도
19	창업 6	대졸	20대 후반	부모	대전
20	취업준비 14	졸업	20대 전반	1인 가구	포항
21	취업준비 15	졸업유예	20대 전반	부모	대전
22	창업-남성	대졸	30대 전반	1인 가구	대전
23	취업준비-남성	졸업유예	20대 후반	1인 가구	구미

2절. 조사결과

- 심층면접을 수행한 23명 가운데 21명은 여성이고 2명은 남성이다. 21명의 여성가운데 취업준비생은 15명, 창업 준비 혹은 창업 중인 여성은 6명이다.
- 취업준비생 15명 가운데 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나머지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이상이다.
-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사무 경리직을 하며 첫 직장에서 13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급여를 주는 직장을 구하고 있다. 반면에 출판 편집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고졸 여성은 직장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적 언어폭력을 경험했지만 편집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2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경력이 있다. 다만 앞으로 동일분야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다.
- 대학을 다니거나 혹은 졸업 한 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여성의 경우, 희망급여에 대해 평균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표현하고 있다.
- 이들 여성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고, 첫직장에서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격모욕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 잦은 이직은 경력단절과 이로 인한 커리어를 쌓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표 5-2] 심층면접 성별 및 경제활동 현황

		여성	남성
취업준비	20대	14	1
	30대	1	
창업중/준비	20대	2	
	30대	3	1
	40대	1	

1. 취업준비 여성

[표 5-3] 취업준비 심층면접자

번호	면접참여자	학력	나이	동거인	부모님 거주지
1	취업준비1	대학 휴학	20대	1인 가구	계룡
2	취업준비2	대학재학	20대	1인 가구	경기
3	취업준비3	대학재학	20대	부모	대전
4	취업준비4	대학원재학	20대	부모	대전
5	취업준비5	고졸	20대	부모	대전
6	취업준비6	대학원졸	20대	선배	경기도
7	취업준비7	대졸	20대	1인 가구	서울
8	취업준비8	고졸	30대	1인 가구	보령
9	취업준비9	졸업유예	20대	1인 가구	구미
10	취업준비 10	대졸	20대	부모, 남동생	대전
11	취업준비 11	대졸	20대	1인 가구	서울
12	취업준비 12	대학휴학	20대	1인 가구	경북
13	취업준비 13	대졸	20대	부모	대전
14	취업준비 14	졸업	20대	1인 가구	포항
15	취업준비 15	졸업유예	20대	부모	대전
16	취업준비-남성	졸업유예	20대	1인 가구	구미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들의 심리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심리적 불안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음’으로 요약된다.
- 우선 청년여성들의 경제상황은 부모의 계층과 지원에 따라 많이 다른데, 학비와 주거비 외에 용돈까지 지원을 받는 청년여성은 해외연수나 토익학원 등을 다니며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학비와 주거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청년여성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시간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여성들은 학업은 학업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모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나, 학교를 졸업한 후 들어간 첫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경험하면서, 청년여성들은 스스로의 노동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청년여성들이 만성적인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여성은 생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표현이 많았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1) 정서와 심리

- 취업에 대한 기대나 희망보다는 부담과 절망스런 감정 표현이 많았고,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힘듦, 우울과 불안, 분노와 좌절, 막막함이 주된 언어였다.
- 현재 상황에 대한 화남과 분노, 그리고 더 일찍 취업을 준비하지 않

은 것에 대한 후회, 결코 본인은 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커리어
우면에 대한 부러움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상태였다.

- 자신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무기력
함으로 도피하고 싶은 감정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1) 독립적 주체가 되지 못할 거 같은 불안과 우울

-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여성은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졸업과 함께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 후에는 소속 없
이 ‘백수’ 라는 루저나 취준생이라는 모호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취업 준비를 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있으면 그 때는 주변의 압박이 되게 클 거 같고, 뭔가 백수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강할 거 같아요.” (취업준비, 13)

- 취업준비과정에서 청년여성들은 불안과 함께 우울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내정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나면 이들의
우울감을 더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진짜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고 너무 우울했던 거 같아요. 처음
면접을 보는 것도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이미
내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불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
준비, 8)

- 그러나 취업준비과정에서의 우울감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사라지지
는 않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일에서 오는 즐거움도 없고, 정규직이 아
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조건에서 미래를 기획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우울이 지속되고 있다.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좀 희박하니깐. 되게 절망적인 느낌?” (취업준비, 12)

(2) 학업과 취업준비 사이에서 무력감

-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취업준비자들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심적 부담으로 쉬고 싶어도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천을 못하고 머릿속에서 항상 그렇죠. 뭐 배우고 싶고…” (취업준비, 8)

“전 쉬고 싶어요. 공부라는 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취업준비, 4)

- 여성취업준비자들은 취업에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 때문에 놀 수 없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다 취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

“취업을 해야겠다는 부담은 엄청 있는데… 놀지도 못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게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취업준비, 14)

-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노는, 놀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피라고… 마냥 놀기에는 낭비하는 것 같고 그 중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준비, 4)

- 청년여성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좋은 학점을 가져야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자격증이나 영어, 공모전 등에 나가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업이랑 병행해야 되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집중이 안 되고 일은 일대로 집중이 안 되고” (취업준비, 1)

- 경제적 문제로 휴학을 하고 단기취업을 했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학과공부로서도 그렇고 제가 휴학을 하고 나서 취업을 나가 봤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사회에서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취업준비, 1)

(3) 방향을 정하지 못한 막막함

-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혹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든, 청년여성들이 경험하는 막막함은 유사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취업문제로, 취업을 하고나서는 불안한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지금 학교 다니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취업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취업준비,2)

“지금 고민 중이에요. 쉬는 것은 3개월 쉬려고 했는데, 막상 3개월 다 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취업준비,8)

- 따라서 이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발전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물어볼 사람도, 그런 게 없어서 좀

막막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뭐 막막... 뭔가 좀 제로가 되었다는 기분.” (취업준비, 4)

- 다른 사람들의 걸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데, 특히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대학교 진학을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일찍 자리를 잡고 결혼한 친구들이 많다보니까... 뒤처지는 건 아닌지... 제 주변상황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난 언제 저렇게 자리 잡나 싶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머리 아프고 누구하나 상의할 사람 없는 것 자체가 좀 힘들죠.” (취업준비, 1)

(4) 의존적 존재로서 두려움

- 취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여성들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애를 선택하기도 한다. 연애에 대한 태도는 청년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원과 시간이 부족한 이들은 연애를 아예 포기하고, 연애를 하는 청년여성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찾기도 한다.

“독립적이지만 저는 항상 남자 친구가 있었거든요. 진짜 저는 연애. 정말 감정적 소모 너무 많이 돼요. 싸우기만 하고. 그래도 얻은 점이 커요. 뭐가 필요하고 그래요. 의지 할 사람이 필요한. 제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때까지. 취업준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거 같아요.” (취업준비, 7)

- 청년여성에게 남자친구는 데이트 비용을 대는 경제적 의존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고 대화가 가능한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는 존재로 의미화된다.

“어플에서 그냥 가입을 하면 사람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모임인데, 타지에서 생활하는 데 제가 남자 친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랑 헤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크게 온 거예요. 일도 그만 둔다 상태인데 남자 친구랑 헤어지고.” (취업준비, 8)

(5) 막막한 앞날과 분노

- 청년여성 각각이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혼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상담)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딱히 어디가야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하고 연락도 안하다 보니깐 안하게 되고 말할 것도 없고” (취업준비 12)

“친구들이랑 말해도 음.. 힘들겠구나. 하고 더 위로는 해주지만 딱히 도움은 안 되거든요. 보통.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걱정하니까 말 할 수가 없어요.” (취업준비, 1)

- 가정형편상, 학업과 취업준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하는 청년여성들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정부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다.

“정부에 너무 화가 나는 게.. ” (취업준비, 6)

“정말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취업 도저히 제가 이 전공으로서는 취업을 해서 뭐라고 돼야 되나 더 이상 뭐 앞으로 꿈꿀 수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취업준비, 1)

- 안정적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청년 여성은 사회적 독립의 주체인 개인시민이 아니라 젠더화된 사회에서 ‘여성’이 되려고 한다. 여기서 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보다 낮은 임금, 남성보다 낮은 지위를 수용하는 지위이다.

“이게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열정페이는 당연지사고 그거에 대한 어디 근로복지나 이런 거에서 복지로서 뭐 국가 정부로서 보상 받을 수 있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아 이제는 정말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그냥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낫지 내가 굳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생각도 드는 거고.” (취업준비, 1)

- 입사면접 과정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스펙이나 일의 경험에 대한 요구치가 높다. 이런 경험을 한 청년여성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 일임을 깨닫기도 한다.

“팀장님이 제가 캐나다에서 있던 인턴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계속 물어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력은 없는 거죠, 제 나이가 스물다섯인데, 거기서 1년은 갔다 오고 무슨 경력을 찾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때는 네. 했지만 너무 화가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 데 뭘 바라는 거지.” (취업준비, 7)

(6) 사회의 압박

- 청년여성들은 부모와 가족들이 압력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일상적인 가족의 압력은 부모의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집과 가족은 편안함보다는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와 같은 장소가 된다.

“(부모님들의 압력) 세지는 않은데 자꾸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니가 빨리 취직을 해야 내가 뭐.. 관두든 뭐든 그게 압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취업준비, 9)

“돈이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집도 싫고. 어쨌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집에서 뭔가 계속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취업준비, 8)

- 특히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여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직장으로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로를 걷게 된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원하는 일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위해 단기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을 갖는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 하고 싶다 저런 일 하고 싶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하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고... 시간도 투자를 해야 하는 데 그런 것도.. 제 사치로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취업준비, 6)

(7) 연애의 어려움

- 학업과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청년여성은 ‘사랑’이라는 낭만적 감정으로 시작되는 연애를 사치라고 생각하게 된다. 돈과 시간, 심리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연애는 일종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혹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근데 저도 연애를 안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서 당장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취업준비, 3)

“돈도 안 벌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 하나라도 공부해서 따야지. 연애할 시간이나 이런 거죠.” (취업준비, 5)

(8) 자책과 후회

- 자신의 지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의 변화에 동참하는 결정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년 전에 다른 걸 차라리 했다면… 아니 3년 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했으면 진짜 아쉬웠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데 또 다른 취업 시장에 눈을 돌리기엔 내가 이걸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취업준비, 12)

(9) 커리어 우먼에 대한 부러움

-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하는 여성들을 동경하는데, 이는 청년여성들이 기존에 사적영역에서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의 책임자였던 여성의 책무를 공적영역의 ‘직장’으로 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도 보면 아기 키우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멋있어 보이고 돈도 벌면서 뭐… 자기 일도 하면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취업준비, 12)

- ‘커리어 우먼’에 대한 청년여성이 갖는 이미지는 추상으로 외모와 급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커리어 우먼’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이 없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 혹은 고수의 전문직 여성으로 타자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은 ‘커리어 우먼’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검정색 정장입고. 힐 신고. 한 손에 커피 들고. 사원증 매고. 커리어 우먼은 한.. 300에서 400. 4, 500?” (취업준비, 4)

- ‘커리어 우먼’ 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함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 ‘커리어 우먼’ 이미지는 학벌과 스펙, 영어, 집안, 외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고의 위치에 서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적어도 서울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해야한다는 첫 번째 조건에서 청년여성은 스스로를 ‘커리어 우먼’ 이 될 수 없다는 자기 비하는 내재화하고 있다.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약간 자기 주관이 막 뚜렷해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거 같고 그 만큼 쌓아 놓은 것도 없고.. 스펙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진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서울권.. 인 서울에서 좋은 학교. 토익점수도 좋아야 되고 공모전에서 상도 늘씬해야 되고, 어.. 집안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엄청.. 막.. 저보다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더 높은 페이를 받고 더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 (취업준비, 3)

(10) 미래에 대한 두려움

-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갖는 두려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좋은 학벌을 가진 여성들과 경쟁하여 취업할 수 있을까하는 취업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하나는 들어간 회사에서 잘 적응하면서 다닐 수 있을 까 하는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지역 청년여성에게는 역량강화가 절실히 보인다.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잘 못하고, 도전적이지 못하고, (경쟁자는) 아무래도 당연히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겠죠. 그럴 거 같아요. 뭔가 좀 학벌이 있으니까.” (취업준비, 5)

“아 뭔가 무서운 거예요. 남들한테 쓴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취업준비, 7)

2) 경제적 상황

- 취업준비자들의 학업에 대한 집중, 시간에 대한 여유, 취업준비에 대한 정보획득 등의 방법은 각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생활의 여유를 즐기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낮은 학점과 부실한 취업준비로 불안정한 직업군 혹은 저임금 일자리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취업준비자 15명 가운데 대전이 고향인 6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스스로 돌봐야하는 1인 가구다. 대전에서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이들과 달리, 타 지역에서 온 청년여성 9명의 경우 주거비로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더 소요되고 있다.
- 학업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여성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 부모님의 지원이 있는 경우

- 15명의 취업준비자의 경제적 상황은 부모의 지원에 따라 갈렸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중상계층 이상인 경우, 취업준비자들은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으며 학업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취업준비 3이나 취업준비12의 경우처럼 “학비는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취업준비 2경우는 “저는 저희 아빠 회사에서 학비가 나와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취업준비 7의 경우 오피스텔 임대료와 공과금 외에 매달 용돈을 받고, 장학금을 받을 경우 추가 용돈을 받기도 한다.

“집에서 딱 38만원 주시는, 따로 장학금 받거나하면 50만원씩 주시기도 하는데… 많이 부족하긴 한데”(취업준비, 7)

- 취업준비 13은 더 풍족한 경우로, 매달 정해진 용돈 외에 부모님이 주신 카드로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용돈은 거의 30만원... 부모님이 카드를 주셔서 그 안에서 쓰고, 조금 넘기면 말씀드리는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월세는 어머니가 100만원 정도씩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시기 맞춰서... 모자랄 때 따로 보내주시고...” (취업준비, 13)

(2)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경우

-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혼자서 학비와 생활비, 주거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기 중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방학 중에는 주·간 아르바이트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취업준비 1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사례다.

“서비스직 판매직부터 시작해서... 일단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재료비 도움 되는 건 거의 닥치지 않고 거의 다 하는 편이죠. 거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그걸 장학금 받으면서 생활비 대출로 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 애들이 대다수고 그 금액은 일단은 일정금액 학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만 솔직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다수들은 이제 거의 방학 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막노동 뛰는 애들도 있고” (취업준비, 1)

“(전공)책들 사려고 하면 기본 최소 5만원에서 뭐 좋은 건축과 작품집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 하는 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원 학교에서는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볼라고 하면” (취업준비, 1)

(3) 갚아야 할 대출금이 벌써 1500만원

- 취업준비 1은 현재 3학년을 마치고 휴학중이다. 졸업을 한 친구들이 부러운 상황이지만 현재 학자금 대출이 1500만원에 이른 상태라 복학은 미루고 돈을 벌고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은행권에 남아 있는 경우는 7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카드사에 신용대출 빌린 것만 해도 그것도 한 거의 800만원... 거의 150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근데 그거는 매달 빠져 나가는 게 있는데 물가는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근데 월급에 비해 남아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취업준비, 1)

- 대출을 갚으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취업준비 1은 휴학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다, 10시 출근해서 9시 퇴근, 총 11시간 근무로 150만 원을 벌지만, 대출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남는 돈이 없다.

“한 달에 은행권에서 50만원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는 카드도 두 카드사에서 빌린 거라서 그것도 각각의 30만원이라서 거의 110만원도 돈이 훑 나가는..나가니까 교통비랑 뭐하고 나면 없는 거죠. 게다가 감사의 달이다 뭐다 스승의 날이다 그 때 쓰게 되면 또 카드빚이 또 이만큼 늘어나니까 그 카드빚을 이만큼 또 어디서 어떻게 메꿔야 하나” (취업준비, 1)

(4) 부모님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의 경제적 상황은 부모의 계층과 지원에 따라 갈리는데,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선배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 6의 경우, 경기도에 사시는 부모님의 월세비용을 매달 송금하고 있다.

“저만 더 마음이 아프고. 엄마도 울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도 수백 번 아빠가 원망스러웠다가도.. 다시 그래도.. 되게 아빠가 자리 지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취업준비, 6)

(5) 투자가 필요한 취업

- 청년여성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취업준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직장의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학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녀들의 취업과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직장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 도전하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 사치로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취업준비, 7)

(6) 경제적 부담감과 스트레스

-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비용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자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지만, 자립과 취업이 동일한 용어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희망도 감소하고 있다.

“저도 제 힘으로 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됐어요.” (취업준비, 7)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집도 싫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집에서 뭔가 계속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너무 싫은 거예요.” (취업준비, 8)

3) 불안정(precarious) 노동의 경험

“청춘이라는 게 참 고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취업준비 1)

- 청년여성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와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경험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사업주나 선배들로부터의 인격모독, 임금체불, 성적 모욕 등 다양하다.
-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 등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청년여성의 경우, 낮에는 학업을 밤 9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빚에 쫓들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졸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있다.
- 따라서 희망, 열정, 자유와 같은 청춘의 이미지는 ‘고생’이라는 용어로 수렴되기도 한다.

(1) 긴 노동과 낮은 급여

- 피부미용 관련 대학교를 졸업 한 후 들어간 첫 번째 직장에서 취업준비 15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는 70만원이었다. 미용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취업준비 1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해 월 150만원을 받고 있다.

“70만원 준다고 하셨거든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근데 저는 처음이니깐 그것도 괜찮겠다 하고 그냥 동의하고 들어갔어요. 노동시간이 8시 30분부터 6시까지.(취업준비, 15)

“하루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휴학 중에 학비랑 재료비 벌려고 들어간 거라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라 월급제고요. 거의 최저 시급에 맞춰서 하는데, 요즘은 사업장에서는 주일수당이 사업장에서 마이너스기 때문에..주일

수당을 주기는 뭐하니까 그 주일수당을 벗어나는 그 주일시간 벗어나는 시간 안에서만 아르바이트를 쓰고” (취업준비, 1)

-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의 경우, 급여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노동시간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용이나 복지 관련 업무를 전공한 청년여성들은 자신들이 종사하는 분야 자체의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항상 왜 이렇게 적지?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직종의 분들 보면 기본급부터가 아예 저희랑 달라요.” (취업준비, 15)

“복지사들이 꼭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너무 박봉... 왜 이렇게 돈을 조금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복지 쪽에 갖는 인식,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준비, 12)

(2) 대충 들어간 첫 직장

- 청년여성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과 강박을 갖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급여와 복지 같은 기본적인 고용 조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여유도 없이, 취업이 어렵다는 사회적 현실 때문에 ‘빨리’ ‘일단’ 취업을 하고보자는 성급함이 청년여성에게 더 크다.

“학교에서 실습 한번 잠깐 나갔었다가. 아예 취업을 해버렸어요.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갔는데, 그래서 그냥, 교수님은 뭐 아시던 분도 아니었고 그런데 갑자기 부탁받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서” (취업준비, 15)

(3) 버티기

- 신중한 고려 없이 들어간 직장에서 청년여성들은 인격모욕, 낮은

급여로 힘들게 버티기도 한다.

“병원의 피부관리사로 첫 직장을 취업을 했는데, 조금밖에 못 버텨
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처음 직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기대하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라 너무 다른거
예요. 한분이 나가서 저를 채용을 한건데 그분이 일주일 안에 저를
(인수인계) 해야 하는데, 조금 마음이 급해지셨나봐요. 막 다그치시더
라고요. 첫 직장이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환자분도 막 계신데 막
소리 지르시고, 발걸음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그만뒀어요.” (취업준비, 15)

“일은 일대로 힘들고 급여는 급여대로 낮았고 계속 생활도 마이너
스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를 메꾸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랬죠.” (취업
준비, 1)

(4) 건강상태

- 청년여성들이 호소하는 건강상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취업을 준
비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진 청년여성들은 장시간노동으로 정신적인 부분은 물론 신체적으
로도 건강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피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전신까지 다 들어가는 그걸 했거든요.
뭐..얼굴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몸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쪽.. 몸 쪽이 일단은.. 프로그램이 크니깐 돈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얼굴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자
꾸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유도를 해서 들어가면 한번 들어갈 때
관리시간이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되요. 중간에 한 번도 못나오고
요.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다 보니깐. 너무
힘든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손이 펴지지 않았어요. 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취업준비, 15)

- 야간근무와 밤샘 근무 등을 강요받는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은 생리 불순 등을 경험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것마저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건축회사)힘들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기타 말하는 생리 불순 기본으로 치고, 그걸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당연 말로 못하고” (취업준비, 1)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직장에서 일을 해본 청년여성들은 부당노동행위를 ‘부당함’으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노동감수성이 취약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아는 자기 아는 사람들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5일에 한 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봤는데, 4교대가 5일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주말 아니면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준비, 8)

- 노동에 대한 압박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신경성으로 인한 질환도 있는데 이것이 건강염려증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질병으로 인한 것 보다 심리적인 이유에서 진료를 받고 안도감을 얻는다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로 위안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염려증은 자존감결여와도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취업여성들에게는 위안과 격려를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랑 건강,,, 요즘 위가 안좋아서. 스트레스에 제가 진짜 너무 취약해서. “걱정이 많이 심한 거 같아요. 아파. 아프면 무서워요. 제가..진짜 심해요 건강염려증. 조금만 아프면 가보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해서 나오고. 그때 이후로는 편하게 나오고. 가보는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취업준비, 9)

(5) 낮은 급여와 임금 체불

-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건설회사 경리로 취직한 취업준비 5는, 월 120만원의 급여로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임금이 4개월 체불되면서 퇴직했다. 아직 체불된 임금을 못받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은 못하고 있다. 청년여성이 취업할 때, 노동자의 권리 등에 교육이 필요한 지점이다.

“제가 취업 할 때도 딱 불안한 상태였어요. 회사가 되게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주시긴 했었거든요. 밀리다가도 다음 달에 몰아서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기다렸는데 너무 안 주시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지나니깐. 그 뒤 도저히 못하겠다.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안 줄 거 같은 거예요.” (취업준비, 5)

(6) 학력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 청년여성들은 일터에서 자기 또래 여성들을 만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장시간 제공하고 저임금을 받는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게 부모의 돈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받는 또래 여성에 대한 부러움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제 또래가 1, 2명씩 와요. 그때 정말 많이 욱해요. 학생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다니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자존

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막..계속..” (취업 준비, 15)

- 청년여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은 일터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하는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속된다. 장시간 노동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청년여성들은 sns 등 온라인 관계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SNS 그런 다 끊고.. 차라리 안보는게 나을 것 같아서..제자리걸음.. 그런게 많았어요.” (취업준비 12)

4) 취업의 장애

(1) 성희롱 혹은 성차별

- 청년여성이 ‘여성’ 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언어들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아버지 나이또래의 고객에게 듣는 말은 이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하는 업무에서, 성적인 언어에 대한 저항으로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남자 분들 오시면 조금 기분 나쁜 일도 좀 많고. 조금 되게 나이 많이 드신 아저씨 뭐.. 조금..그런 분들이..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냐고..데이트는 무엇을 하나? 입맞춤은 해봤냐? 막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조금..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취업준비, 15)

- 일터와 교실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봐야하는 취업공고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남자우덴데, 남자. 여자라고 써있는 거는 경리 진짜 이런 정도 밖에 없고.” (취업준비, 7)

“ W 인턴십이라고 해서 우먼스 인턴십이라고 해서 여자를 따로 뽑더라고요. 그건 오히려 여성을 뽑으려하면 이미 남성이 많아서 이걸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취업준비, 13)

“여성이 추가되는 느낌이 아니라, 남성 위주의 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제가 적응해야 될 거 같은 느낌.” (취업준비, 13)

- 학생회 생활에서도 청년여성들은 부지불식중에 성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주요책임자인 국장은 남성에게, 국장을 보조하는 차장자리에는 여성을 배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학생회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총무국이라고 돈을 관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었어요. 근데 같은 학번이었고 다른 점은 성별이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학생회장이었던 분이 그럼 제(여자)가 국장을 하고 너(남자)가 차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미묘하게 불편하잖아요. 아 이게 뭐지 싶은데 딱히 설명은 못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 봐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가 문제라고 그러냐고 해서 그게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취업준비, 13)

- 명확하게 남녀차별이라고 규정하기 모호한 상황이 일상이 되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성이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뒤바뀌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청년여성들은 직장에서 여성차별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카톡방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일도 진짜 빈번하게 있었고, 근데 또 남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근거도 없는 말인 거 같고. 근데 사회에 나가면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직장 상사에 있어서 공무원은 좀 덜하겠지만, 아무래도 진급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들이 많이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출산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런 제약이 있고, 남자들이 상사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그걸 견뎌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한 편으로 드네요.” (취업준비, 13)

- 성차별적 언어가 남성을 통해서만 유포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여성들은 직장에서 웃입는 방식에 대해 감시받고, 성별화된 업무를 지시받기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맡겨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실장님은 저한테 여기가 술집이나 막 이러는 거예요. 같은 여잔데. 아니 그래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갑질 사장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분도 지금은 영업을 하는 데 전에는 안 하셨거든요. 끝까지 커피는 여자가 대접해야 하는” (취업준비, 8)

(2) 젠더화된 학교사회와 사회

-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학교에서부터 청년여성들은 연령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위계를 내재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너 거기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한 4~50대 분들도 있는데 스물 몇 살짜리 조그만 여자애가 와 가지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고 그러면... 말을 들겠냐고.” (취업준비, 4)

- 남성교수가 많은 대학사회에서, 청년여성들은 불편함과 부당함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스승과 제자라는 위계가 명확한 대학에서 남성교수들의 일상적 여성비하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학과 자체도 거의 남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행정하면, 뭔가 분위기가 딱딱하고 올드 하잖아요. 그래서 더 남성 주의적이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 같아요.” (취업준비, 13)

“내가 사회에 나가면 밥을 엄청 빨리 먹는 연습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식 같은 걸 하면 어른들 같이 하는 회식자리에서 분위기 맞추는데, 그게 좀 남자애들이 좀 잘 하잖아요. 그런거 보면서 내가 맞춰야 되는 건가. 이런 게 그런 차이도 좀.” (취업준비, 13)

“그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이게 여자라서 무시하는 건가? 제가 그냥 여자로 일이 부친다는 그런 거 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자라서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취업준비, 13)

(3) 대학을 만나와서, 혹은 지역대학이라서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편집기술을 배워 들어간 회사에서 ‘대학졸업 여부’가 실력에 대한 편견으로 작동하고 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디자인 처음 갔을 때는 학원에서 6개월 수료를 하고 갔을 때 거의 한 80, 90만원 받았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스무 살 초반이니까. 어리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디자인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실장님이 저 여자 분한테 시키세요. 말하면 그 분이 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대학교 안 나왔고 그냥 배우러 왔어요. 하면 앞에 대놓고 ‘저 분한테 못 맡길 거 같아요. 나이도 어려워 보인데, 같은 돈 주고 하면’ 실장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취업준비, 8)

- 그러나 일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여성들은 대학교졸업보다는 어떤 대학을 나왔냐고 취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취업준비 2의 경우, “과는 맘에 드는 데 학교가 별로 맘에 안” 드는 이유는 지방의 학교라서 “자존심 상”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 청년여성들은 대전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취업을 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자체가 ‘지성’ 이나 ‘과학’ 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내에서 취업을 하는데, 대전시에서 지방대학교라는 약간 불리한 게 있잖아요 일단. ” (취업준비, 13)

- 청년여성들은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대한 편견, ‘지역대학교’ 가 갖는 사회적 낮은 평판과 불인정에 대해 불만을 갖지만 일정부분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도 대학 내 서열이 존재하고 있는데, 카이스트를 선두로 대학순위가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지역 대학에 대한 조롱은 ‘BMW’ 등의 언어로 청년층에 퍼지고 있다.

“대전시 자체에 있는 학교에서 카이스트는 완전 논외로 보니까 대전시가 대학교를 자체로 뭐라고 하나 명문대학이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뭐라고 할까 대전이 지성이나 과학이 다 빠지는 느낌. 그래서 대전 전체로 얘기 할 때는 대학의 역량이 약하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교 학생 글을 봤는데, ○○대학교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방해 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학력이다. 라고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공부를 꽤나 하던 학생들이 왔는데, 근데 약간 애매하게 다들

그런 느낌이 있어서.(취업준비, 13)

- 청년여성들은 우선 대학이라는 조건에서 취업도 어렵고 따라서 ‘커리어 우먼’도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노오력’은 하고 싶어 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 학벌! 인 서울, 그런 것도 있고, 뭐 자격증 같은.. 토익영어. 저희 이미지는 높은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그런 회사원 중에서도 커리어 우먼은 그런 회사를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제가 그런.. 지금.. 앞으로 다 하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와서. 그냥 맞춰서 가면.(취업준비, 4)

- 이런 맥락에서 대전지역 청년여성들은 학력이나 학벌에 제재 받지 않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연금 등 미래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직장선택의 기준

- 청년여성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나 미디어를 통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대인관계, 급여, 분위기, 근무, 사회적 인정, 안정성, 자기개발 등 이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여성은 우선 직장에서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따라서 인상이 좋아 보이는 상사나 동료, 친절한 면접 등이 직장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것을 결혼에서 남성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이해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희망급여를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 남성과 여성을 차별 없이 대해주는 작장에 대한 선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여성들이 고용시장의 성별격차를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여성 가운데 대부분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이 어렵고,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1) 직장 분위기

- 청년여성들이 직장선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장분위기로 나타난다. 여기서 직장분위기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인데, 강압적이거나 거친 말투를 청년여성들은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따라서 이들은 일이 ‘힘이 들어도’ 직원들끼리 좋은 관계를 갖거나, 임금이 적어도 견딜만하다고 판단한다. 청년여성들은 수평적이고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직장 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팀워크. 그런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 하면 저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끼리 괜찮으면 그냥 버틸 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쉬워도 직원들이 조금 그러면..” (취업준비, 15)

“네 힘든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힘든 곳이어도 남자 여자 똑 같이 똑같은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같아요.” (취업준비, 14)

(2) 급여

- 급여에 대한 청년여성들의 생각은 복잡하다.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 등 학력에 따른 급여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2명의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1명은 130만원 가량을 적정

임금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편집기술을 가진 여성은 250만원 이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 둘은 희망급여를 언급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직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사이의 적정선을 고려하고 있었다.

“130 이상” (취업준비, 5)

“300은 좀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아직은. 200중반” (취업준비, 9)

-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한 여성들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적정 급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대전출신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비나 식비, 공과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타 지역출신으로 대전에서 1인 가구로 거주중인 청년여성들은 주거비, 식비,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교통비 등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 살기 적절한 최소 임금) “180선 왜냐면 세금 떼면 150선에서 130만 원대 후반대 거든요.” (취업준비, 1)

-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여성들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3) 시설/시스템

- 청년여성들은 일터가 깨끗하거나 일과 관련된 설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조건을 원하고 있다. 직장의 시설 인프라와 함께 업무 시스템에 요구도 많았다.

“세번째는 그냥..병원..저는 조금..시설...이런 것도 보거든요. 환경

적인” (취업준비, 15)

“전 다른 건 몰라도 회사가 조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가고 싶거든요.” (취업준비, 6)

(4) 근무시간

-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긴 노동시간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직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동한다. 피부관리를 하던 취업준비 15는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의 특성상 한번 전신관리에 들어가면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 했다.

“ 관리시간이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되요. 한번도 못나오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갈 수 있는데..그 정도 되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취업준비, 15)

- 미용관련 업무의 경우, 급여가 낮은 대신에 ‘건 당’ 인센티브가 붙기 때문에 정시퇴근은 어려운 상황이다.

“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페이도 별로라는 것 같던데. 일은 맨날 하던데 야근하는 것에 비하면 돈도 많이 못받는다고 하던데, 근무시간을 좀 준수했으면 좋겠고” (취업준비, 9)

- 생산현장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교대’ 라는 조건 때문에 가족행사나 친구 모임 등 모든 사회적 관계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좋은 했는데 교대다 보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회사는 그렇더라고요. 생일인데 못 쉬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특히나 집 경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출근이 한 신데 일이 없는 날은 6시 퇴근.

일이 있는 날은 다음 날 9시. 당연히 위에 사람들이 그 대리님이 일을 다 하고 있는 줄 아는 데, 항상 하는 것은 제가 다하는 건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나왔죠.” (취업준비, 8)

- 청년여성들은 높은 급여를 위해 회사를 옮겼던 경우에는, 긴 노동시간 때문에 다시 회사를 이직하는, 즉 급여와 노동시간이라는 두 개의 조건에서 오락가락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인다.

“일하는 시간은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이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주 5일에, 거기 룰이 딱 센게 거의 막 야근까지 10시에 끝나고 야근까지. 두 세 사람 할 거를 너 혼자 하는 것 같다. 자기시간이 없어요.” (취업준비, 5)

(5) 안정성

-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그리고 비인격적 직장분위기를 경험하는 청년여성들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래도 안정적인걸 원하다 보니깐. 취업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직을 많이 하고 회사를 그만두길 많이 하고. 정년보장도 되고 연금도 있고 야근하면 수당도 나오니까” (취업준비, 12)

“비정규직이래요. 그게 월급제한도 있고 몇 년 1년인가 더 해야 정규직이 된다는 데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냐 확실하냐. 물으니깐 말로는 해 주신다고 하는 데. 제가 보기에다 그만두고 이직하는 게 어떡냐고 했었거든요. 버티다 버티다가 나왔나봐요. 이번 달하고 그만 나 할 거라고.” (취업준비, 5)

(6) 자기개발

- 직장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 청년여성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기술의 획득은 급여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요구받는 청년여성들은 동일한 고용조건의 경우에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회사나, 그런 기술을 가진 동료들이 있는 일터로 이직을 한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6개월만 해도 비슷해요. 만날 비슷하게 나가고. 비슷한 데 그것도 본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본사에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것이라서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전에 왜 그만둔다고 했느냐 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사실은 그만둔다고 했어요.” (취업준비, 8)

(7) 삶의 질

- 청년여성들은 성공이나 승진 보다 ‘개인’ 과 ‘가족’ 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나갈 수 있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냥 그 정도만 되도 나는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성공을 못할 거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한 삶을 살자.” (취업준비, 1)

“그 언니도 자기가 공무원을 하고 싶은 것 보다.. 그런 아기를 낳고 저녁 시간을 즐기면서” (취업준비, 8)

“제 삶의 질이..저는 돈 적게 받아도.. 승진이나 그런 것 없어요.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 아니고” (취업준비, 9)

6) 직업교육이나 취업 지원 정책 이용 경험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들은 국비지원 직업교육보다는 민간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 국비지원 직업교육은 기간이 길고, 출석률에 따라서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 민간직업교육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별이고 있는 취업지원은 홍보가 미약하여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거나, 시간을 내서 참여했을 경우 효과가 적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1) 국가지원 직업교육의 경쟁력

- 청년여성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이나 기타 지원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공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수용자인 시민들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비지원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사비로 다녔어요. 국비지원 받으려면 2, 3달을 기다려야 하고 한달이라도 빨리 하려고..사비내고..”(취업준비, 15)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굳이 국가에서는 뉴스나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데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못 느끼죠.”(취업준비, 1)

(2) 청년인턴제도의 비효율성

- 현장을 실습하게 하는 인턴 제도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간 청년인턴 생활 동안 실제 업무는 체험하지

못하고 잡무만을 하면서 실망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

“어차피 인턴 자체가 다른데 가도 뭐 사업을 기획하거나 그런 걸 안 시키니깐. (어떤 일을 하나요?) 하..엑셀시켜요. 우체국 심부름? 문구점 심부름? 그 다음엔 뭐 직인 찍어오기. 도장 찍기, 3층에 가서.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하아..실질적인 도움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뭐..말을 잘 하느냐..포장을 해서. 그 정도라면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취업준비, 9)

(3) 학교의 지원

- 막막한 상황에서 의지하는 학교에서도 취업에 관한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대전 조그만 회사들. 저는 그래서 따로 대학교에서 뭐하나. 그 대학을 다니면서 따로 쌓아야 되는 거죠. 저는 대외활동도 했고. 제가 대외활동 한 이유는 마케팅 쪽으로 관심이 처음에 있어서 대외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했었고 다른 거 뭐지? 기업 상담 실습이라고 저희 ○○○학과 애들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협회가 있어요. ○○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신청하면 대기업에서 CS 팀으로 가서 일주일동안만 실습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따로 신청하고 그래서 했죠. 근데 대학교에서는 절대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무적인 능력은 제가 따로 다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도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보통신에 가서 신청을 해서 따로 들어야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취업준비, 7)

- 좋은 채용공고가 나왔을 경우, 교수와 친한 학생들만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교수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취업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에서 저희 이렇게 과에서 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보통은 교수님한테 들어와도 애제자들한테만 말해주고.” (취업준비, 7)

-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다. 취업에 필요한 면접교육을 신청하면, 대기업에 갈 학생들에게 우선 제공되면서, 취업교육에서도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도 있다.

“제가 만족 못할 그런 곳이 많아서 많이 외면했었던 것 같아요.” (취업준비, 12)

“면접연습이 전 많이 못 받았는데, 많이 받은 친구도 있어요. 많이 받은 친구들은 공단 같은데 가는 애들. 큰 데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그런데 가는 애들한테만 많이 해 주는 거 같아요. 받으신 거 같아요. 몇 명은.” (취업준비, 5)

- 따라서 청년여성들은 취업과목을 커리큘럼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 청년여성이 바라는 취업 정책

- 취업정보 내에 상세한 고용조건(단점과 장점을 객관적 제시)
-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취업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취업준비 청년수당과 정보)

“음.. 조금.. 욕심내서 말을 하면 청년수당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제가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대해서 대학교뿐만 아니라 더 알아볼 수 있고 정보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취업준비, 12)

“내가 이걸 공부를 함으로서 뭔가 국가가 보장을 해 주니까 그 보

장..안전망 안에서 조금 더 열의 있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뭘 하더라도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동기부여도 될 거고 열정부여도 될 거고.” (취업준비, 1)

-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여건
- 휴식시간의 보장

“20~30분이라도 낮에 조금 그냥 잘 수 있는 시간이, 20분,30분 그 차이가 되게 크고. 일 능률에 따라서 다른 것도 같고, 저는 먹는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뭐 식사나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게 항상. 넉넉하게.” (취업준비, 15)

-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쌍방향 정보교환

“좀 취업 쪽으로 내가 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전혀 없죠.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도 어느 취업 상을 원하면 그 취업 상을 원하면 그런 질문이 오듯이 우리도 너네 회사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은 그것에 맞춰 가는 거죠.” (취업준비, 1)

-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실질적 일자리

“지금 내 나이 때가.. 아니지만 부모님이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이제 좀 장년층 위주로 해서.. 장년층도 경험이 있으니가 재취업을 해서...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더라고요. 전 그런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경험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 (취업준비, 6)

○ 휴가의 보장

“저는 사장님한테 연차 같은 거도 못 쓴 판국이니까 이런 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걸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제 주변에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연차도 눈치 보아서 안 쓰고 여자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도 쓰려면 눈치가 되고 안가고 말지 그러는데. 그래서 못 쓰는데, 만약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니들 다가라 이러지 않으면, 일 년에 너희들이 휴가가라 정해 주지 않으면 또 못 가는 거 같아요.”

“그럼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취업준비, 8)

○ 남녀평등한 직장문화

“저는 그걸 느끼는 게 다 애매하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다 남성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새는 너무 미체가 되어 있는데, 때 애매하니까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닐까 사회 자체가 여성이 만들었어도 사회자체가 그런 분위기여서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정보가 없어서 대전시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못 말하지만, 차라리 취업 할 때가 아니라 취업하고 나서 육아 출산 관련해서, 여성이 일하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생활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성이 일하면서 남성도 같이 육아를 하고 이런 게 당연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취업준비, 14)

2. 창업 종이거나 창업 준비 여성

[표 5-4] 심층면접 참여자

번호	면접참여자	학력	나이	동거인	부모님 거주지
1	창업 1	대졸	30대	1인 가구	계룡
2	창업 2	대학중퇴	30대	남편, 자녀	대전
3	창업 3	고졸	40대	남편, 자녀	서울
4	창업 4	대졸	20대	친구	대전
5	창업 5	대졸	20대	친구	경기도
6	창업 6	대졸	20대	부모님	대전
7	창업-남성	대졸	30대	1인 가구	대전

1) 창업의 계기

(1) 원래 하던 일

- 창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여성은 적었는데, 대부분의 여성창업은 대학에서 전공을 했거나, 기존에 하던 일과 연관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었다.
- 다른 창업의 이유는 시간으로 여유롭다는 것인데, 출산과 육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여성들의 전략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네. 과가 원래 미용과라서. 마음도 편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고 맨날 샵에는 얹매어 있다가 예약이 없어도 샵에는 있어야.”

(창업, 1)

“일단은 하던 일. 커피집도 내가 설거지 하던 일이고, 미용 쪽도

이제 여자 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자 미용인들보다 여자 미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창업, 3)

(2) 하고 싶었던 일

-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십여 년의 기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원래 서점이라는 공간을 운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대학교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라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책도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많이 읽지는 않지만, 또 책을 읽는 것보다는 남들이 책 읽는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창업, 5)

(3) 시간 유예

- 미래에 대한 계획이 확정적이지 않을 때, 결정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현재에 대한 회피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다.

“솔직히 취업을 할 자신도 없었고요. 취업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가 가능하다는 거 엄청 넉넉하게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충족된 충분한 삶을 사는 것 시도해 보고 싶어서.” (창업, 6)

(4) 돈 +꿈 + 사회적 가치

-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여성들은 꿈 혹은 사회적 가치, 돈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창업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적인 목표와 시민으로서의 책무,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창업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가 오래걸렸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딱 되더라구요.” (창업, 3)

“서점을 열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망해도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취업이야 뭐 나이 들면 취업도 힘들긴 하겠지만, 어딘가 나 받아줄 때 있겠지 생각하면서.” (창업, 5)

“그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가 가능하다는 거 엄청 넉넉하게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충족된 충분한 삶을 사는 것 시도해 보고 싶어서.” (창업, 6)

2) 창업했으나 불안한

- 창업은 혼자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창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밀한 사람의 부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창업 4의 경우, 남자친구가 해보고 싶다는 간곡한 부탁에 2 천만 원을 투자했다.

“나 진짜 하고싶은데 한번만 도와주면 안되냐고.. 그래서 또 나는 남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중략..미안해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안타까운 마음에” (창업, 4)

- 창업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으로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생소한 분야의 경우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창업 4의 경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퇴직을 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 당장 생활비가 없었던 남자친구와 동업을 하게 된 경우다.

“갑자기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버리니까 막막하잖아요. 먹고 살 길이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어자피 한번 뿐인데,” (창업, 4)

3) 창업의 장점

(1) 일하는 만큼 수익은 는다

- 창업은 ‘노동시간 대비 수입’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을 늘리는 만큼 수입도 늘게 되는 구조다. 현장에서 경험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확장되면서 1인 창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창업여성들은 고용주 아래에서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저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보다는, 일하는 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을 선호하게 된다

“많으면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창업, 4)

(2) 자유

- 시간의 자유로움은 창업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시간의 자유죠. 다 장점과 단점은 있지만, 일단은 내가 진짜 정말 급한 상황이면, 에라 모르겠다. 셔터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창업, 3)

(3) 안정성

- 특정기술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기술을 갖고 있는 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창업의 지속성을 장점으로 본다.

“이거는 망하지가 않고, 이거는 계속 여자로서는 기술직이 모든 기술직은 평생이잖아요. 정말 내가 손이 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돈을 정말 잘만 타면 월급쟁이 보다 훨 낫죠. 제가 여기 지하상가에서 사장님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도 하는 말이 내장사가 낫다.”
(창업, 3)

4) 창업의 어려움

-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문제였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여성이라서 금융권의 신용도가 낮은 청년여성의 경우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도측정이나 보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 자금부족

-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임. 창업상담을 받을 때 예상한 창업지원금 혹은 대출금이 실제 창업을 시작하고 나면 절반이상으로 줄게 된다.

“소상공인회서 천만 원 나왔다고요. 천만 원 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데요. 왜 천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픈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전화로 물어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얼마정도 나올 것 같다. 이삼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되니까 답답한 거 같더라고요. 본인도.(창업, 4)

- 자금이 부족해 지원을 신청한 이들 대부분은 ‘신용’ 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에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창업지원금에 관한 문제에서 창업을 시작한 남성도 지원에 절차도 복잡하고 보증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창업지원금을 포기하기도 한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는거잖

아요. 먹고 살기. 근데 그걸 너무 신용을 따지면, 길이 없는거예요. 여성창업 일자리 광고는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막상 뚜껑을 열면 금융권에 돈 끌어당기는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창업, 3)

- 자금이 부족한 여성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창업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창업에 대해 모르는)부분이 오히려 상처를 주지는 않았지만,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작은 거에도 조금 상처가 될 수 있지요. 물론 저 할 때는 그렇게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먹고 살아야만 돼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힘든 거 같아요.” (창업, 3)

- 동업에 참여 한 창업4의 경우, 원래 상담 받을 때 가능하다고 예상한 금액의 절반만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급하게 주변 지인에게 높은 금리를 약속하고 창업자금 일부를 빌린 상황으로, 매달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기 어려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분한테 받은 (대출)이자가 엄청 세거든요. 사채는 아닌 데 그 이자를 엄청 주기로 하고 빌렸어요. 그 이자 갚는 게 힘드니까 사장님이 소상공인회에서 빌리면 싸니까 일단 그걸 갚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갔을 때는 그 뭐지 대출 뭐 사업자 대출 줄 금액을 다 썼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안 나온다 하고, 소상공인회는 거기도 말했는데 거기는 천만 원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창업, 4)

- 아는 지인을 통해 창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창업을 시작하는 여성 대부분은 자금 부족으로 은행, 공공기관, 혹은 지인에게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는 같이 기획한 오빠가 빌려줘 가지고. 빌려줬어요. 빚으로 봐야죠. 상환은 중간에 조금씩 하고 있어요” (창업, 5)

(2) 창업자금 마련의 복잡함

- 창업을 한 여성들은 창업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금 대출을 위한 은행과 공공기관을 거쳐야하는 절차상 복잡성이다.

“조건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에 계약서,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계약서랑 교육을 받았어요. 조건이 창업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을 받고 시간도 일정부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저는 몰랐다가 내가 창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찾은 거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걸 듣고 끝난 뒤에 조건이 다 되니까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한 거죠.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거 뭐죠? 공증, 보증 굉장히 많이 돌아 다녔어요. 절차가 여자가 쉽게 하면 자기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무리는 없겠지만, 정말 집에서 일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하기에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껌껌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창업, 3)

-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창업을 한다 해도 이후 대출을 갚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업이 자리를 잡고 일정한 매출을 올리기 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원금을 갚아야하는 부담이 있다.
- 또한 창업이라는 복잡한 과정에서 대출과 관련한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못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면서 사업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금리가 어느 정도 싸죠. 금리가 싼데, 문제는 제가 그거를 할 때

꼼꼼히 읽었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원금을 너무 많이, 그게 이제 복잡한 거죠. 그게 이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은행과 저의 소통의 문제고 계약서를 쓴 내가 부주의 한건데, 그걸 당일 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대출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 어, 나는 이거 오늘 알아서 금액을 준비 못 했다고.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게 이자만 내다 갑자기 원금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이자와 같이 내야 하니까 황당하죠. 그게 복잡한 거 같아요. 왜냐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 계속 이자만 갚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는 내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부주의일 수도 있죠” (창업, 3)

(3) 창업 과정의 어려움

- 창업의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여성들은 창업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절차가 여자가 쉽게 하면 자기 아는 사람들이 하는게 무리는 없겠지만, 정말 집에서 일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하기에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낯낯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중략..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먹고 살아야만 돼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힘든 거 같아요.” (창업, 3)

“○○○○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서류나 그런 쪽에 도움을 주셨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혼자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외롭더라고요. 혼자 해보니까. 준비과정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창업, 5)

(4) 기업가 정신-시간이 돈!

- 자유로운 시간 운영이 장점인 창업의 경우, 오히려 시간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해도 정작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다.

“근데 창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저처럼 직장 생활 했던 사람들은 빨간 글씨라든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잖아요..중략..근데 이건 그게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주말에 어디도 못가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 같은데, 가장 돈이죠. (오히려 시간의 제약)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 거 같죠. 전혀 못 쉬어요. 오히려 더 못 쉬어요. 왜냐면 하루가 돈이잖아요.”

(5) 기업가 정신-합리적 운영!

- 스스로 운영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계산성이 있다.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합리성이 요구된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팔아서 이만큼 남는다 라고 보다는 여기에 세금이라든가 나의 인건비라든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계산해 가면서.. 내가 만 원을 팔면 나한테 얼마 남는구나... 그런 걸 잘 인식을 하고서는 가격도 딱 측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될 거 같아요.” (창업, 2)

(6) 기업가 정신-그러나 출산과 육아

- 창업에 성공해도 출산과 육아는 여성들에게 어려운 문제다. 취업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있는 반면에 창업여성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으로, 출산과 육아는 결국 폐업을 의미한다.

“저도 한 2년 정도 쉬다가 내년까지 쉬다가 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내년까지 쉬면 감을 잃을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손님도 떨어질까 그런 걱정도 있고 아무래도 집에서.. 그런 부분.. 내가 다시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아기 낳고도 잘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쪽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창업, 2)

(7) 기업가 정신-여자가

- 창업을 하는데 있어 가족의 응원과 지지는 중요하다. 여전히 청년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아빠가 그거는 당장에 봐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에서 낭비인 거라고 너의 젊음과 시간과 노력이 아까운 거라고. 명확하게. 외부에서 보기에든 저는 여자예요. 저랑 남자애가 있을 때, 뭔가 저는 여자이면 조금 더 우습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반말이 여자이기 때문에 더 쉬운 그런 경우들을 맞닥뜨리곤 해요. (창업, 6)

- 창업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성이기에 더 느끼는 불안이 있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나이와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창업을 남자와 여자가 해도 실패했을 때가 다를 거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 만약에 창업해서 실패했어 서른이 넘었어요. 그래도 재기 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여자보다 큰 거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이가 스펙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여자한테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가 취업하기 힘들고, 왜냐면 결혼하고 출산할 나이기 때문에 늦게 취업하면 조금 있다가 금방 애기 낳는데, 어떻게 고마워하겠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 같아요.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큰.” (창업, 5)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젊은 여자를 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남자를 볼 때와 다르기도 해서.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어 봤어요. 여자야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봤다가 안 되면 시집가면 고만이지. 여자는 오히려 선택지가 두 개 인거 아냐 더 자유로운 거 아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창업, 5)

5) 청년창업 지원 정책 이용 및 만족도

-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하고, 창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금지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처음에 예상했던 지원금액과 달리 적은 금액이 대출되기도 했고, 갑작스런 대출금 상환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 자금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는 불합리한 점이 불만으로 나타났다.
- 청년여성들은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창업자금 지원, 세금문제, 창업과정의 절차와 지원에 대한 홍보와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6) 청년여성이 원하는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

- 청년여성들은 창업과 관련해 자금문제를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창업과 관련한 자금 지원제도 및 지원방식에 대한 정보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시마다 예산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학도시 그래서 그 쪽 예산은 많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건 없다고.” (창업, 4)

“돈을 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그 프로그램을 들어주면 이자를

낮춰 준다거나 약간 이런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업, 4)

“아무래도 돈이 최고 저기 한 것 같긴 같아요. 자금이 해서 한 거고, 재창업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내가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재기할 수 있을 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도와주면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 여자가 창업을 하면 뭐.. 세금이.. 조금 세금이 반으로 까준다든가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창업, 2)

- 창업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안전망이 시급해 보인다. 창업에 대한 실패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창업생태시스템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재창업이나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버퍼링 존 마련이 요구된다.

“취업 못하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려봐라 이런 식으로 내 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창업이라는 게 실패하는 게 훨씬 많은데, 더군다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경험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한 데, 실패한 경우가 대다수고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 실패했을 때 안전망은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 불더미에 있는 거예요.” (창업, 6)

“전망을 이 마을에서 만들면서 안전망이라는 게 경제적인 안전망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심리적인 안전망이기도 하거든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을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창업하면서 드는 비용이나 힘든 것들도 심리적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전망을 만들면서 그 위에서 저희도 또 더 저희같이 창업하는 분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생태계를 늘리는 것 수가 늘어날수록 저희는 이 안에서 결속력이 다져지는 거니까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시도로서 저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훨씬 수월하겠죠.” (창업, 6)

- 창업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 되어 있거나 스스로 찾아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개사무소라든지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창업을 할 때마다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그걸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 중구청이나 처음에 가잖아요, 거기서 시에서 사업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홍보지 말해주면” (창업, 4)

- 창업의 성공사례와 함께 실패사례를 함께 제공해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고 쫓아 가잖아요. 단점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야 할 거 같아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창업한 경우에는 시에 그걸 안알릴 수 있고 또 빚쟁이가 안될 수 있고, 그런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창업, 4)

- 창업 과정과 함께 창업 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전문가 자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우리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들을 모르잖아요. DP라든가 인테리어도 컬러배치도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사한다고 하면 그런 샵에 와서 전문가가 하루라도 와서 조언을 해주는 시스템 그게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창업, 3)

“효율성에 대한 부분, 가게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사람관리 같은 것 부터해서 근무) “시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구청, 동구청, 이렇게 해 주고 시간 날 때 언제든지 구해 줄 수 있게끔.” (창업, 4)

- 여성창업자들에게 자금, 정보 등의 문제와 함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취업준비여성과 마찬가지로였다. 생애과정에서 출산과 육아라는 장애를 만나면 창업여성들은 폐업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무래도 배워서 해야 되는 거는 대전에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요. 육아문제죠. 육아도 힘들고.” (창업, 2)

3절. 시사점

- 대전지역 청년여성들의 경우 부모의 계층과 지원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현재부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 시기의 차이가 청년 이후의 삶의 질 전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진입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 및 지역 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부모의 계층에 따른 차이로 인한 현재 상황의 차이에 대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넘어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여성들의 심리적-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한 상담과 함께 취업 이후에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 대전지역 청년여성의 경우, 대전출신인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환경이 마련된 반면, 타 지역에서 이주해 대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거 및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대전지역에 대학이 많아 젊은 인구가 많다는 장점인 반면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의 청년인구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노동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평등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청년 여성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청년여성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이나 기타 지원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공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수용자인 시민들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할 것과,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장을 실습하게 하는 인턴제도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청년인턴생활동안 실제 업무는 체험하지 못하고 잡무만을 하면서 실망을 느끼는 사례도 있었다.
- 좋은 일자리의 경우 교수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채용공고 알림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일자리소개에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청년여성들은 취업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자리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객관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취업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 창업의 경우, 일하는 만큼 수익이 있고 시간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유로우며 기술직에 있어서는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만큼 취업자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다. 반면 자금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의 유용성 측면에서 일에 더 매이게 되는 단점도 있었다.
- 특히 자금부족의 경우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청년 여성들의 경우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격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불만으로 나타났다.
- 청년여성들은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창업자금 지원, 세금문제, 창업과정의 절차와 지원에 대한 홍보와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창업 과정과 운영과정에 대한 지원과 나아가 창업 및 기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취업 수당 :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도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취업 관련 사이트, 기관의 필요 :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이트, 학교 내 경력개발센터 및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원자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 관한 장점과 단점, 급여,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고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 면접, 입사, 이직 등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상담센터 및 우울증 클리닉 등의 시설 필요 :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입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내정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낙담, 현실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겪고 있다.
- 젠더화된 학교와 사회의 인식 및 정책의 시급성 : 여성들은 특히 취업을 한 후에 출산, 육아 및 휴가 등을 통해 회사 내에서 많은 성차별과 승진의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성차별 및 성희롱 등에 대한 강력한 금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창업에 관해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필요함 : 여성은 특히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취약한 계층이므로 창업에 관한 자금과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종업계에 있는 여성 취업자들끼리의 주기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육아서비스 확충 : 워킹맘 또는 커리어 우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식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기는 쉽지 않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탁아서비스,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 정부 정책 등이 필요하다.

6장 정책제언

- 1절. 청년여성 당사자 의견
- 2절. 전문가 자문

6장 정책제언

1절. 청년여성 당사자 의견 수렴

1. 대전지역 취업준비 청년여성의 상황

- 청년여성 심층면접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년당사자들로부터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대전지역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2,30대 여성 5명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 대학원생 1명, 대학교졸업자 1명, 나머지 3명은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취업준비생들이다. 2017년 9월 15일 오후 3시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청년여성 5명과 심층면접결과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들었다.

(1) 심리적 상황

- 청년여성들은 취업준비와 취업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두려움, 외로움과 분노 등 부정적 정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불만이 청년여성 전반의 상황이다.
- 청년여성들이 취업에 대해 받는 압박은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년취업난’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울감이 더 커지고, 스펙이 좋아도 취업이 어렵다는 tv방송프로그램을 대할 때마다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2) 경제적 상황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이들의 경제상황은 부모의 지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데, 부모가 학비와 주거비, 기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청년여성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를 책임지는 학생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한편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의 정도는 매우 차이가 난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등록금만 지원받는 경우, 주거비만 지원받는 경우 가정형편에 따라 부모의 지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부모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부모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하는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청년여성도 있다. 이런 경우 일시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휴학과 복학을 번갈아하며 학업을 마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 청년여성들은 주변에서 소위 ‘금수저’ 라고 불릴만한 친구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에는 있을지 모르지만’이라는 단서로 지역에서는 금수저라 불릴 계층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오히려 청년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어가 ‘수저론’ 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는데, 이를 미디어가 만들어낸 청년 분열로 해석하는 청년도 있다.

2. 청년여성이 바라는 취업정책

(1) 지역 청년여성의 입장에서

- 지역의 청년여성은 취업시, 지역대학출신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업과 공무원 등 시험제도를 선호한다. 이런 경향은 임금이 높고 복지여건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 취업에서 학벌과 스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청년여성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청년여성들은 지역 청년여성들이 시험에 몰두하지 않도록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지역의 청년여성들은 대학졸업예정 단계에 다다르면 더 불안을 느끼고

있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내고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청년여성들은 말하고 있다. 대학은 전문적 학문을 다루고 취업과 연관된 기술과 기능은 고등학교 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청년여성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적인 일을 바로 시작했으면 하는 후회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지역대학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시민인식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역 대학의 역량강화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된다.

(2) 취업준비생으로 학교에 바라는 것

-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설 학원처럼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교육과 정보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교의 취업교육 현실과 학생들의 기대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 따라서 대학에서 현실적인 취업준비나 커리큘럼을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비를 들여 영어나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에 필수로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청년여성들은 갖고 있다.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2,3백만원의 사비를 주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 졸업과 동시에 소속기관을 잃는 청년여성들은 졸업유예를 통해 최소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대학교는 일정부분 학생들의 졸업유예를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졸업유예자에 대한 취업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졸업예정자나 유예자, 졸업자에 대한 차별없는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 청년여성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취업과목과 프로그램, 그리고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쉽게 취업관련 과목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 통로를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청년여성들은 교수나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교수들은 ‘추천을 해주는 대로 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너는 이정도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3) 취업준비생이 대전시에 바라는 것

-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할 때까지,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건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취업준비자금에 대한 청년여성의 욕구가 많았다. 바우처나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통해 청년여성들이 사회의 배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 청년여성들은 커리어축제 등을 만들어 취업준비생들이 실질적인 취업 관련 정보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대전시가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
- 청년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예상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4년이라는 시간과 대학에 투자한 비용 대비 자신이 받을 임금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혐오가 커진다고 한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및 최소한의 고용복지에 대한 여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4) 사회에 바라는 것

- 청년여성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청년여성들이 과도하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방송미디어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반감시키기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이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가치를 싼값에 사고자하는 회사들을 고발하고 청년의 가치와 청년노동에 적절한 가치를 배분해주는 회사를 발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미디어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파해주길 바라고 있다.

- 지역 청년여성들은 ‘커리어우먼’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줄 것을 요구한다. 사무직이라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오히려 다른 분야에 진입하는 청년여성들을 막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커리어우먼’의 이미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고 있다.
- 청년여성들은 젠더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희롱문화를 없애 주기를 바라고 있다.

2절. 전문가 자문

- 취업 또는 창업 진로과정에서 청년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첫째, 노동시장의 성차별이 젠더감수성과 결합될 크게 인식된다는 점이고 둘째, 진로선택에 있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성평등하게 재구조화되어야 청년여성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된다.

1. 대전지역 청년취업 관련 정책 제언

- 취업 준비과정에서 청년여성들이 경험하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불안에 대해 상담해주고, 취업 후에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와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멘토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여성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희망보다는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나 무기력감 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현재 지역사회에서 청년 고용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지역사회의 고용센터와 대학 내에 설치된 청년창업조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전달체계에서 단순히 취업과 관련된 상담이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소개 만이 아니라 생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 지역부터 상담사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청년여성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생활비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스펙 쌓기 등 경제적인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 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실업부조제도 도입의 출발점으로 청년 대상 구직촉진수당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 2017년 7월부터 2018

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까지 참여한 청년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구직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해 7개 시도에서 청년활동 혹은 구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듯이 대전에서도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청년대상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지역 일자리위원회들의 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준비전략도 필요하다.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몰이해 및 성급한 취업결정 등으로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으로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취업을 위한 준비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여성 취업준비생들 및 이직대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기존에 공공직업훈련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에 불만이 많음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에 부합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인턴제도 운영기관과 인턴들 간의 투명한 운영체계를 통한 쌍방간 만족감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 필요하다.
 - 인턴활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과 분야를 명확히 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인턴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학생 조건을 미리 예고하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턴을 받는 직장 뿐 아니라 인턴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곳에서 가서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과 얻을 수 있는 역량을 명확히 하여 양쪽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턴제도

가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 인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

-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필요하다. 취업 준비생 시절 경제적 상황과 취업준비를 위한 심리적 불안감 등에 의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직장의료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이 미루어지거나 아르바이트 혹은 비정규직의 경우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지역대학 및 여성이라는 이중의 장애물에 대한 대전시 정책당국과 각 대학의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청년노동 권익지원을 위한 노동권 및 노무제도에 대한 교육,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을 포함한 취업교육(지자체 재원으로 실시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의무 커리큘럼으로 포함), 대전형 청년여성 창업 패키지 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전지역 청년창업 관련 정책 제언

- 7명의 청년 여성 창업 중이거나 준비자 심층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우선 면접 대상이 주로 생계형 창업이어서 면접결과를 통해 정책과제가 도출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생계형 창업이나 1인 창업이어서 고용창출효과가 없고 푸드트럭 등 제한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현재 전주시장에서 시작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 중인 청년몰 사업이나 푸드트럭 지원 사업,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EX청년창업 등은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생계형 창업을 기술형 창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처럼 기술형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창업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창업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부의 LINK사업이나 창업인큐베이터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과거 중소기업청)의 청년 창업 지원이 학생이 아니냐에 따라 연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처럼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대학 내에 이를 설치해 대학생이 아닌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창업한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한 안전망 구축, 유사업종의 창업자들간 연계를 통해 상호 멘토/멘티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 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멘토 역할을 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이후 멘티가 일정기간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 여성창업자를 위해 창업을 위한 자금준비 및 대출 관련 교육 뿐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인식 그리고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전반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 새로운 여성창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창업하는 여성들도 자신들의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업업종의 한계와 일함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심층면접에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창업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고용정보원
- 강순희(2015),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The Women's Studies, Vol.87.NO.2, 317-347
- 강순희(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Vol.87No.2.317-347.
- 김동수·장재홍·이두희(2009),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 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김복순(2015), 청년층 노동력과 일자리 변화, 노동리뷰, 통권 제127호, 69-85.
- 김성희(2007), 청년실업 바로 알기와 3가지 해결방안, 진보평론, 제33호, 10-36.
- 김영·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권 1호, 215-260.
- 김태완·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통권 244호, 6-19; 김문길·이주미(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244호, 20-37.
- 김태환(2007), 청년실업문제는 불안정노동 철폐의 문제다!, 진보평론, 제33호, 52-56.
- 김현미(2015), 청년 여성의 일과 이동의 좌충우돌 생애사: 해법의 모색, 정책토론회 청년노동, 말하는 대로-20'30대 여성들의 일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2015년 10월 29일).
- 대전광역시(2016), 대전광역시 청년세대 분석
- 대전광역시(2016), 대전소재 대학교 졸업생 유출입 통계-5년간의 졸업생들의 대전 거주 현황 등-
- 대전광역시(2016), 대전광역시 청년세대 분석-청년의 인구, 복지, 경제부문 분석-
- 대전광역시(2016), 2030대전 그랜드 플랜
- 대전광역시(2017), 2017 행복나눔 청년취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2017), 2017년 대전 청년정책
- 대전발전연구원(2016), 대전발전포럼,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 류유선(2017), “노동사회의 청년은 왜 단일한 범주로 인식되는가?”, 여행대전, 제 25호.
- 리차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옴김, 문예출판사
- 박건·국미애(2016),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서울여성가족재단
- 박권일(2004), 그 많던 ‘고졸’은 어디로 갔을까?, 통권222호, 56-61.

- 박제성(2016), 청년고용을 위한 프랑스의 논의들,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 27-36
- 오민애(2016), 프랑스의 청년실업과 청년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2월호, 72-82. 요약 정리
- 이병희(2011), 청년고용문제, 눈높이 때무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71-94.
- 은수미(2009), 보고, 듣고, 말하라-새로운 여성 일자리 모델,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여성일자리 대한 모색, 토론회자료집.
- 이수정(2010),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페미니즘 연구 제10권제1호, 335-349, 재인용
- 이승렬(2016), 2016년 청년 고용의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월호, 41-46
- 이정섭 · 이미순 · 김선형(2016), 창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임유진 · 정영순(2015), 고졸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가능성 영향요인 분석-남성과 여성 비교,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1호, 403-433.
- 임선영 · 김태현(2005), 청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1호, 51-73.
- 장신외(2015), “20세기 한국에서 ‘청년’은 무엇이었나”, 역사문제연구, 제33호, 219-280.
- 장지연 · 신동균 · 박선영(2014),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 정민우 · 이나영(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5집 2호, 130-175.
- 정성미(2015), 금융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통권 제122호, 35-51.
- 정세정(2016),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관적 건강과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1, 197-224.
- 주형일(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3호:77-183.
- 최나리(2008), 20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현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산업연구원
-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산업연구원
- 최미숙(2010), 청년실업여성의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통계청(2016),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2008~2010, 2011~2012년 3분기, 2013~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16개 시도별 고용동향-, 2017/여름
한국금융연구원(2016), 25권 24호, 18-19, 미국의 청년실업 완화방향
허병식(2015), 20세기 한국에서 ‘청년’은 무엇이었나, 역사문제연구, 33권,
219-280.
현대경제연구원(2016),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좋은 일자리 증가 속, 근로약자(여성·청년·고령층)의 상대적 서취, 한국경제주평, 708권, 1-14.

Arne L. Kalleberg(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4.1-22.

GEM(2004), 2004 Global Report(<http://www.gemconsortium.org/report>, 2017년 5월 17일 검색).

GEM(2005), 2005 Global Report(<http://www.gemconsortium.org/report>, 2017년 5월 17일 검색).

GEM(2017), Global Report 2016/17(<http://www.gemconsortium.org/report>, 2017년 5월 17일 검색).

연합뉴스 2017년 7월 31일자, “문제는 돈 . . . 청년 40%, 결혼 안 하는 이유 ‘경제적 부담’ 꼽아 ”

한겨레신문, 2017년 5월 11일자, “4월 청년실업률 ‘역대최고’ . . . 고용률도 하락”

